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7월 20일(음력 6월 15일) 수요일 (주간) 제 535 호

클릭! china.buddhapia.com

불교도 한류 열풍

부다피아 중국어판 20일 오픈…다양한 정보 '자랑'

세계 인구는 60억 정도. 이중 중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어느 정도일까? 13억 중국인을 비롯해 대만과 전세계에 퍼져있는 화교(해외 거주 중국인)까지 포함하면 약 15억의 인구가 중국어를 사용한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한자를 사용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면 세계 최대 공용어인 영어 사용율 30%에 육박할 정도다. 이런 엄청난 중국어 사용 인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통문화를 중화권에 알리는 국내 중국어 전용 사이트는 한국관광공사 등 손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불교를 알리는 중문 사이트가 전무한 것은 당연하다고나 할까.



'현대불교 미디어센터(HBMC)'가 한류(韓流) 열풍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어권을 대상으로 중문 불교사이트를 오픈한다.

2002년 3월 국내 최초로 영문 불교사이트(http://bud.buddhapia.com/eng/)를 오픈, 해외포교에 나선 부다피아는 지난 5월 역시 국내 처음으로 러시아어 불교사이트(russia.buddhapia.com)를 개설한데 이어 7월 20일에는 '중문 부다피아(china.buddhapia.com)'의 문을 연다.

중문 부다피아의 개통은 불교문화에 친숙한 15억 중어권 시민들을 상대로 해외포교에 나선다는 의미를 갖는다. 중국불교협회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중국 사찰은 3만여 곳, 스님 25만명에 신도는 2억명에 달한다.

중문 부다피아에는 ▲시대별 한국불교사 ▲한국의 주요사찰(삼보사찰, 5대 적멸보궁, 3대 관음도량, 5대 총림, 조계종 25교구본사 등) ▲템플스테이 사찰 및 수행프로그램 안내 ▲한국 역대 고승 14인 ▲경전 소개 및 중국어 경전(42장경 등 1차분 21권) 원문 등의 콘텐츠를 담고 있다. 또한 ▲불교용어(1만9천 단어) 사전 ▲한국불교 문화유산(해인사 팔만대장경, 불국사, 석굴암, 경주 남산, 직지심체요절) ▲한국의 부처님오신날 ▲원성스님 '동승(童僧)' 그림전 ▲국·내외 중국어 불교뉴스 ▲중문 불교사이트 링크 등의 불교정보를 갖췄다.

중문 부다피아의 개통은 2008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전통불교 복원에 나서고 있는 중국불교의 중흥에 적지 않게 기여할 전망이다.

북경대에서 선학(禪學) 박사학위를 받은 월암 스님(경주 칠불암 주지)은 "초고속 경제성장과 맞물려 중국불교도 대단한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기에, 그에 맞설 수 있는 한국불교계의 정체성 정립과 포교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며 "중문 부다피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박노자 교수 russia.buddhapia.com 자문위원 맡아



러시아 출신 귀화 사학자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교수(한국학·사진)가 7월 11일 '러시아어 부다피아 (russia.buddhapia.com)'의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박 교수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네티즌들이 한국불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는 매체가 생긴만큼 러시아 불교 발전에 디딤돌이 되도록 사이트 운영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곡사·현대불교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현장 10면

'포살법회' 왜 안하세요?

계율 안 지키는 삶 반영 '우려' … 일부사찰 현대화 반응 좋아

지계(持戒), 위대한 구속인가 타의적 해방인가?

대답은 '포살(布薩)'에 있다. 불제자로서 지켜야 할 실천계목을 조목조목 읽으며 자기 잘못을 드러내고 뉘우치는 포살은 수행자의 고백의 장이다. 하지만 대중 앞에서 참회하고 바른 삶의 각오를 다지는 포살전통이 활발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높다.

초하루, 보름, 각 재일 등 전통법회와 일요법회, 각종 테마법회 등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포살'을 주제로 한 법회는 일부 사찰에서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살법회가 대중화·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구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철우 스님은 "수행자가 계행에 떳떳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의 진단도 마찬가지다. "자기 허물을 합리화하려는 것이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 또 포살법회를 주관할 지도법사의 부재, 포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해이한 지계 정신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재가자를 위한 포살법회 활성화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1999년 포살법회의 순서와 진행법을 담은 <재가보살 포살본> 3천부를 발행, 전국 사찰에 배포했다. 당시 불교계는 "성찰적 참회수행법을 통해 재가불자가 정기적으로 자신의 수행을 검증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그 때뿐이었다.

포교연구실 관계자는 "99년 3천부의 '재가보살 포살본' 발송이후, 전국 사찰에 포살본 책자를 더 지원한 적은 없다. 예산상의 문제에다가 연구실 담당자의 정기적 업무 교체로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종단 차원의 포살법회도 있었다. 1994년 개혁종단을 출범시킨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스님들은 1996년 2월부터 청정승가상 구현을 위해 매월 한 차례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포살법회 봉행 그 자체만으로도 종단 내외의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포살법회는 2년 6개월 만에 중단됐다. 계만 줬지 지계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당시 포살법회를 주도했던 수진 스님은 중단의 가장 큰 이유를 "율장 정신의 실종"으로 분석했다. 계만 받았다고 수행자가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름마다 계를 받는다'는 생각이 포살법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포살법회 전통의 실종은 올해 초 본사가 실시한 계율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출가자 10명 중 3명이, 재가자는 6명 정도가 '계율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포살법회를 봉행하는 곳은 과연 얼마나 될까? 현재 정확한 통계는 없다. 조계종 5대 총림을 비롯해 일부 사찰 및 선원 등이 정기적인 포살법회를 봉행하면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2면으로 계속



15일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린 모래만다라 특별전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가운데)과 초페대사(오른쪽 끝) 등이 티베트 스님들의 모래만다라 제작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한-티 불심 '만다라'로 활짝 피었네

달라이 라마 한국지부 개소기념 모래만다라 특별전 개막

달라이 라마 동북아 사무소 한국지부 개소를 기념한 모래 만다라 특별전이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7월 15일 개막됐다.

이날 행사에는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회정 진각종 통리원장, 옥천범음대학 학장 일운 스님, 법련사 주지 보경 스님, 달라이 라마 동북아사무소 대표 초페 팔조 체링 대사, 초뮐 스님(부산 광성사),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사장 등 200 여명이 참석했다.

법장 스님은 축사에서 "모래만다라의 화엄세계는 불법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만다라 전시와 한국지부 개소를 통해 대승불교의 전통을 공유하는 한국-티베트의 교류가 깊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페 대사는 "한국지부는 달라이 라마 및 티베트 불교 소식 교류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모래만다라 전시로 티베트 불교문화를 공유하는 동시에 '풀뿌리 운동'도 함께 전개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다람살라 티베트 망명정부 내 '규토사원'의 전통예불의식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연돼 눈길을 끌었다.

전시는 7월 21일까지 이어지며, 행사 기간 중에는 희운 스님의 연꽃 그림전시가 함께 열린다. 7월 25~29일에는 서울 봉은사 2차 전시가 계획돼 있다. 관련기사 3·23면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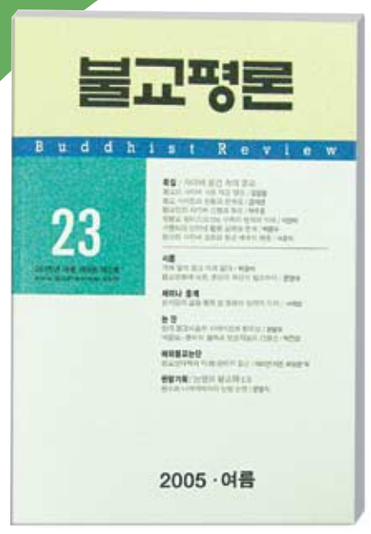


그림·조태호

종안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불교계 유일의 지성 저널 '불교평론'을 주목 하십시오

'불교평론' 제23호 발간!



■ 특집/사이버공간속의 종교
- 불교와 사이버 사회 대응양상/김응철
- 불교사이트의 현황과 문제점/김재경
- 불교인의 사이버 신행과 특징/박수호
- 원불교 원티스(WTIS) 구축의 현재와 미래/이한메
- 가톨릭의 인터넷 활용 실태와 한계/박문수
- 한국의 사이버 교회와 영상 예배의 현황/허호익

시론
개혁 없이 불교 미래 없다/박광서
불교문화재 보존, 종단의 특단이 필요하다/문명대

세미나 중계
선사들의 삶을 통해 본 동물들의 도덕적 지위/서재영

논단
현대불교미술의 시대 미감과 창의성/윤범모
메를로-뽕띠의 철학과 보조 지눌의 간화선/박진영

해외불교논단
불교생태학의 덕(德)윤리적 접근/데미언 카온, 배상환 역

권말기획/논쟁의 불교학(13)
용수와 니야야학파의 논법 논쟁/문을식

'불교평론' 가을호(제24호)부터 현대불교신문이 만듭니다.

지난 1999년 겨울호를 내면서 "한국불교 지식사회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나비의 날개짓'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한 '불교평론'을 올 가을호(제24호)부터 현대불교신문사가 제작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그간의 구독에 대해서는 구독료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며 제24호부터 새롭게 정기 구독자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독자님과 신규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구독신청절차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불교평론>의 역사와 권위를 계승하여 더욱 참신하고 유익한 계간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여러분의 큰 호응을 당부 드립니다.

- <불교평론> 구독 단위 : 1년
- 구독 조건 및 구독료 : 선납 40,000원
- 구독료 납부 방법 : 계좌 입금
  (최초 1년 구독 후부터 지로용지 발송, 입금 후 반드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독료 납부 계좌 번호
  국민은행 : 038-25-0008-365(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 100126-55-002417(현대불교신문사)
- 구독문의 : (02) 2004-8211-2(현대불교신문사 고객관리부)

“관람료 수입이 신도회 위축 초래”

‘중앙신도회 50년 평가…’ 연찬회서 박희승씨 주장

“1973년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시작되면서 신도 교화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결국 70년대 이후 전국신도회의 상대적 위축 문제와도 연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신도운동50년 평가와 올바른 신도상 정립’을 주제로 7월 14일 개최한 제3차 포교종책연찬회에서 교육원 불학연구소 박희승 차장에 의해 제기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50년, 성찰과 전망’을 발제한 박희승 차장은 당시 사찰들은 신도 시주보다 문화재 관람료가 현실적인 수입원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신도 교화를 등한시할 가능성을 열었고 관광 수입에 의존하게 돼 스님들의 의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희승 차장은 초기 신도회가 출가중 재가중이란 개념을 사용하며 출재가 수행자가 함께 하는 교단관을 보여 주고 있었던데 반해 현재 종단은 종헌에 사부대중으로 구성한다는 규정과 달리 비구승 중심의 운영체제로 굳었다고 신도회 활동과 현황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신도회는 삼보 호지와 수행의 기본을 갖춘 재가신도들의 결집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조계종 신도 교육 시스템 및 신도 교육 프로그램 마련, 부처님 법과 현실에 맞는 신도회의 이념 서원(목표) 종책 사회활동 프로그램 정립, 신도 지도자 인력 양성시스템 확충 등을 과제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최연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은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전환점으로 사찰운영의 물적 토대가 달라져 신도의 필요성이 떨어진 것”이라며 “문화재관람료가 특정사찰 배불리기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폐해가 있었던 만큼 불교계가 자진해서 정부에 폐지건의를 하고 문화재보수비를 따로 책정해서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연 사무총장은 또 “종단운영에 있어서의 사부대중공동체 실현, 사찰신도회 중심에서 지역신도회 중심으로 조직편제 변화, 소속단체의 포교원 등록은 신도회 자율성 현격히 침해, 신도 품계를 수행단계와 체계적인 신도교육시스템으로 평가, 인적 네트워크 구성, 신도회 재정자립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토론에 나선 손안식 상임부회장(중앙신도회)은 “조계종은 사부대중이 구성한다고 했고 초기 조계종 출범당시는 출가와 재가가 1:1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며 사찰 지역신도회 조직에 박차를 가해서 신도회 창립을 유도해줄 것을 포교원에 당부했다.

이 밖에도 ‘재가불자의 수행실태 분석 및 수행방안 연구-팔정도 수행법을 중심으로’ 발제를 통해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는 “재가불자로만 이루어진 수행단체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보편적 수행체계를 갖춰야 하고, 수행의 목적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수행지도자 양성 및 수행의 사회적 회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지연 기자



7월1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문희상의장 초청 불교지도자 오찬 간담회 모습. 문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장 스님 국민의 소리 살펴 주길…
운산 스님 우리것 보존하는 정책을…
운덕 스님 정신문화 계발에 초점을…

종단협, 우리당 문희상의장 초청 간담회 가져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초청 불교지도자 간담회가 7월 13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26개 소속종단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한국불교의 위상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며 “불교계가 한국사회 문화적 잠재력을 발굴해 국가발전의 초석이 돼달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평소에 불교에 관심갖고 걱정과 염려를 해주는 열린우리당 불자 의원 모임인 이타회원들에게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소리를 살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인 만큼 우리의 것을 보존하는 문화재 정책도 살펴달라”고 말했다.

또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국가 정책도 이제는 마음을 위주로 한 정신문화를 계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나아가야 한다”며 덧붙였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과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 등은 △성보박물관 항온항습장치 전기료 지원 △종교부지 제한 해제 △국사교육 확대 △범패의 유네스코 지정 협조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열린우리당에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선거제도 개선 ‘안개속’

잇따른 간담회…필요 인식, 방법엔 이견

조계종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7월 13일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었다.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간담회는 6월 11일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을 시작으로 종책모임 일승회 · 화엄회, 금강회, 중앙종회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종정기관 소속 스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현행 선거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 또는 대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차를 보였다.

총무원장 선거의 경우,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나 일승회 · 화엄회 스님들은 선거인단 규모 ‘축소’(교구본사 주지+중앙종회의원)를 원했지만 종정기관 소속 스님들은 현행(중앙종회의원 81명+교구별 선거인단 240명)보다 ‘확대’를 원했다.

양쪽 모두 대외적으로는 현행 총무원장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해 선거인단 축소나 확대를 원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선거인단 포함 여부에 따라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또 교구본사 주지는 산중총회나 운영위원회 등에서 ‘추대’하는 것으로, 중앙종회의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한편 현재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하는측은 올 9월 열릴 예정인 임시중앙종회에 선거 관련 종헌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진각종, 평양인근 ‘협동농장’ 지원



진각종이 평양인근 협동농장 운영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정 통리원장(사진 오른쪽 맨앞)과 이행정 문화사회부장(오른쪽 두번째), 장지현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은 7월 13~14일 금강산 목란관호텔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위원장(왼쪽줄 가운데), 차금철 스님(왼쪽줄 맨 앞)과 회담을 갖고 협동농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불련은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각종 대표단의 평양방문을 요청했다. 김원우 기자

교육부에 감사요청
조계종 동대 특위

동국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동대특위)는 7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에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조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동대특위는 또 소위원회(위원장 토진) 차원에서 진행한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거부된 것에 대해서도 소명기회를 주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종회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대특위 소위 위원장 토진 스님은 “동국대의 학교회계는 안정적이지만 법인회계는 700억 이상의 부채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향후에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해 관련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1면에서 계속

청주 관음사의 경우, 지난 95년 8월 개원이후 매월 한 차례 포살법회를 열고 있다. 포살법사가 예경삼보, 헌향게 등의 포살요목과 보살계서문을 먼저 낭독하면, 신도들이 ‘나무석가모니불’를 외며 참회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반응도 좋다. 빠짐없이 포살법회를 참석한다는 고보은씨(65 · 서울 반포동)는 “처음에는 지계에 대한 부담감이 컸지만, 지금은 자기반성은 물론 기복 중심의 신행에서 벗어나 복을 짓는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율 연구가들은 포살법회의 대중화를 통한 지계점검 전통회복을 위해 △계율 관련 법회의 상설화 △계층별 · 연령별 포살계본 마련 △통일된 포살법회 형식 복원 △매월 초하루, 보름날의 ‘포살의 날’ 제정 △포살지도 법사 양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인총림 율원장 혜능 스님은 “전국 사찰의 수련회에 포살 법회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된다”며 “종단 차원에서 확산시켜 하나의 지계 실천 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우 기자

불교학 결집대회 내년 4월 21~23일

9월 30일까지 논문 접수

2006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합천 해인사에서 열리는 한국불교학결집대회(대회장 종림, 이하 결집대회)는 산사의 멋과 불교학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대회가 될 전망이다.

조직위원회 이중표 위원장(전남대 교수)은 7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결집대회를 템플스테이 형식으로 치르고, 전통문화공연, 명승 답사 시간도 마련하는 등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9월30일까지 대회참가를 희망하는 논문발표자를 모집한다.

발표 자격은 대학(승가대 포함) 강사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불교관계 전문인이다.(02)923-7994 www.skb.or.kr

박익순 기자

법장 스님, 교류협의 대만行

19~22일, 싱윈 스님 · 천수이볜 총통등 만날 계획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7월 19~22일 대만을 방문해 포광산사(佛光山寺) 싱윈(星雲) 대사와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을 잇달아 만나 양국 불교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대만 불교우호교류행사차 방문하는 법장 스님은 20일 타이베이 중정기념관에서 천수이볜 총통을 만나 양국 우호 교류 등에 논의한다. 21일 포광산사에서 열리는 싱윈 대사와 좌담회에서 법장 스님은 한국과 대만 불교 전반에 대해 심도깊은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포광산사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과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등 30여명도 함께 할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본사사령

혜철 스님
命 대전 · 충북 지사장

서병수
命 울산지사장

이상 7월 1일자

경산 스님 몽골, 베티나 씨 독일 통신원

본사는 7월 20일자로 몽골 고려사 총무 경산 스님과 독일인 베티나 뮌히 에플레씨를 각각 몽골 통신원과 독일 통신원에 임명했다. 경산 스님은 2003년 금강선원 상락향에서 출가, 활안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베티나 씨는 독일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투명한 교단, 청렴한 지도자
이것은 21세기 불교중흥의 대전제입니다.

한국불교에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 불교인구 6.1% 증가(전체인구 중 24.4%)
▶ 대전/충청, 광주/전라지역 개신교인구 추월
▶ 비종교인 중 불교호감 37.4%로 개신교의 3배
▶ 도시근로자 불교인구 증가
▶ 고등학력이상 불교인구 급신장
▶ 30세 이하 젊은 불교인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네트워크 시대, 잊었던 한국인 정체성에 대한 관심, 웰빙 바람을 타고, 교단의 안정 속에 더 많은 시민들이 불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자들의 불만과 불신은 높습니다.
▶ ‘시주 1년간 한 번도 한적 없다’(49.3%)
▶ ‘스님 역할 만족한다’(58.0%, 불교인이 최하)
▶ ‘품위/자질 부족한 스님 많다’
– 불교인의 88.4%가 그렇다고 대답
▶ ‘종교단체가 본래 뜻을 잃어버리고 있다’
– 불교인 69.4%가 그렇다고 대답
(04년 한국갤럽 조사 내용 인용)
일부 교단 지도자들에 대한 불자들의 불신과 불만은 교단의 유지, 운영에 대한 대중적인 외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명한 교단, 발등의 불입니다.
▶ 스님들의 기본생활비(교육/수행비, 품위유지비)와 노후보장을 통해 스님들이 자기개발, 수행, 포교, 사회회향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공적인 정재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 삼보정재를 소외된 사람들과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일에 적극 투입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단 고위직의 지도자, 재정이 넉넉한 사찰이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청정교단수호부패근절비상회의
공동대표 : 수경, 손안식, 박광서
우.100-85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86-28번지 우리함께회관 3층
전화.(02)2278-3671 | 팩스.(02)2278-3532 | 이메일.budclean@empal.com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budclean

청정교단수호부패근절비상회의는 이렇게 활동해왔습니다.
▶ 공신력 있는 서울의 일반시민단체인 ‘문화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국사 등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 인터넷, 방송, 일간지 등 언론에 이 사실이 대서특필되어 불교계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 이에 본 ‘비상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불교단체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의혹의 공개적이고 조속한 해소, 교단의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 현재, 불국사 및 문화연대에 공히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비공개로 보냈으나 아직 공식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 본 ‘비상회의’는 사회문제화된 의혹에 대해 당사자가 시급히 해명하고 조치를 취하여, 불교계 전체는 물론 제방에서 수행정진하고 계신 스님들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 의혹을 제기 받은 당사자들이 마치 ‘비상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불교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국-티베트 '풀뿌리운동' 전개

본사-달라이 라마 한국지부 공동 추진
종교·학술·의학·예술분야 상호교류

한국-티베트 간 불교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달라이 라마 동북아사무소(일본 신주쿠 소재) 한국지부가 최근 서울 청운동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에 설치됐다. 이에 따라 현대불교신문은 올해 초부터 준비해온 '한국-티베트 풀뿌리운동(Grassroots Movement)'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 '한국-티베트 풀뿌리 운동'은?

'한국-티베트 풀뿌리운동'은 한국과 티베트 간의 학술, 의학, 예술, 종교분야 등 범문화적 상호 교류 프로그램이다. 여러 한국 불자들이 풀뿌리처럼 티베트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류를 맺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1대1 교류 및 단체 대 단체, 개인 대 단체 등 다각적인 인연을 맺는 운동을 벌인다는 것.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망명정부 내의 승가대학 및 사찰의 학인 스님들을 후원하는 활동도 벌인다.

▲범문화적 상호 교류

동북아사무소 한국지부를 통해 매년 티베트 불교, 학술, 의학, 예술 등을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와 워크숍, 학술회의 등이 열릴 예정이다. 첫 공식행사로 오는 7월 15일~21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강남 봉은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모래 만다라(Sand Mandala)와 '규토사원(Gyuto) 특별예불의식' 전시 및 시연회가 열린다.

▲의학, 종교 분야 출판 교류

티베트 문화 종교 의학 예술 분야 서적을 출판하는 유일한 출판사인 인도 팔조 출판사와 상호 교류 및 보급 활동을 벌인다. 팔조 출판사가 출간한 모든 티베트 관련 서적은 한국 여시아문(www.yosiamun.com)에서 인도 현지 가격으로 제공한다. 특히 여시아문은 팔조출판사가 보유한 티베트 고문서 도서관 서적들의 한국 내 홍보, 번역 및 출판도 담당한다.

▲온라인 네트워크 교류

현대불교신문 불교정보센터인 부다피아(www.buddhapia.com)는 1999년부터 티베트 관련 정보 서비스 및 단체 홈페이지 무료 호스팅을 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티베트센터(www.buddhapia.com/tibet), 가덴 장세(Gaden Jangtse Norling College) 사찰 공식 홈페이지(hompy.buddhapia.com/gaden) 등도 개설했다. 조만간 달라이 라마 동북아사무소 한국지부 공식홈페이지와 함께 7월부터 영문 부다피아를 통해 달라이 라마의 <용수보살보리심론> 동영상 서비스로 온라인상의 티베트 네트워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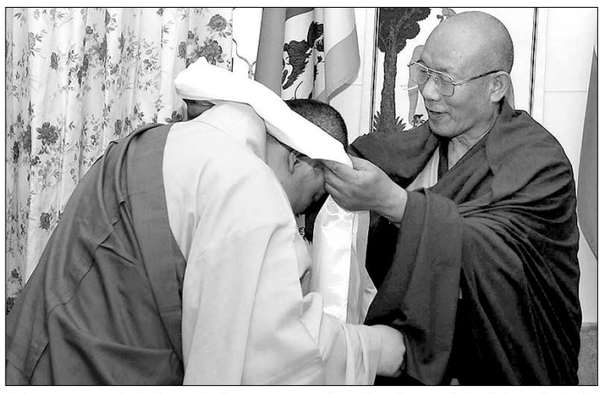
▲인연 맺기

가덴 장세, 드레풍 로세링(Drepung Loseling) 등 티베트의 전통사찰, 강원, 불교대학 등에서 정진하는 젊은 학인 스님들을 후원하는 '1인 1구좌 갖기' 운동이다.

현재 현대불교신문은 가덴 장세 승가대학과 더불어 비구니 교육기관인 잠양 쵸링(Jamyang Choling Institute)을 후원하고 있다. 가덴 장세 후원자는 가입과 함께 1개월 이내로 보시금을 받는 스님의 인적사항을 담은 확인서를 받게 된다. 또 잠양 쵸링은 후원자가 직접 스님 명단을 확인하고 후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모아진 후원금은 3개월에 한번씩 현지에 전달된다.

이밖에 티베트 사찰, 단체, 교육기관과 유대관계 또는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국내 사찰, 단체 등에게 연결고리를 제공하게 된다. 자매결연한 사찰은 학인스님 교환학생 초청 등 상호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한상희 기자



지난해 11월 현대불교신문과 자매결연을 한 티베트 승가대학 가덴 장세 주지 켄 린포체 스님(왼쪽)이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정보센터 실장 청월 스님에게 결연을 축하하며 스카프를 전달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인연맺기 운동' 동참은?

1구좌는 1개월에 3만원. 이 1구좌로 티베트 스님 한 명의 한 달간 숙식 및 학비가 해결된다.

1개월 또는 1년(10개월 기준, 30만원) 단위로 보시가 가능하며 일정 금액에 한해 별도의 개인보시도 가능하다. 후원자가 되면 본인이 후원하는 스님의 졸업식, 학위수여식 등에 초대된다.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망명정부 방문 시 후원 스님과 함께 스님이 머물고 있는 해당사찰을 둘러볼 수도 있다. (02)2004-8220 후원계좌 국민은행 006002-04-017992 예금주 엄윤정.

불교계, 수경사 진실규명 나섰다

왜곡보도 확인시 언론중재위에 제소키로

수경사 아동학대 당사자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무인 스님이 7월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된 내용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무인 스님은 수경사에서 혜명보육원으로 옮겨진 4살 동갑내기 윤경이와 윤건이, 윤서를 만나고 난 후 본지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잘못 보육한 잘못이 있다면 백번이라도 사과하겠지만 인신매매를 하고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등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된 수경사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인권위와 평불협, 대불청 등 29개 출·재가 단체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진상 규명활동에 돌입했다.

수경사 언론보도 불교대책위원회(상임대표 혜총, 이하 수경사대책위)는 7월 13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와 인신매매 여부 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왜곡된 부분이 확인될 경우 SBS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상임대표 혜총 스님은 "경찰이 4번째 청구한 구속영장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됐다"고 전제한 뒤 "방송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한다"며 아동 인신매매 여부 등을 규명할 토론회를 SBS와 수경사에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SBS는 7월 13일 내부회의를 통해 사실상 토론을 거부한 상황이다.

유철주 기자

"불교미술 창의성 부재"

윤범모 교수 '불교평론'서 기형적 불사문화 비판



과거의 것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최대'로 만드는 데 애쓰는 불사문화가 현대불교미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술평론가 윤범모 경원대 교수(회화학과·사진)는 <불교평론> 제23호에 발표한 논문 '현대 불교미술의 시대미감과 창의성'에서 "불사 시장이 한 해 수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미술의 발전은 일천하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을 기형적인 불사문화에서 찾았다.

윤 교수가 말하는 불교미술의 가장 큰 문제는 창의성 상실. 윤 교수는 "창의성은 미술의 핵심개념"이라며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건 올바른 불교미술은 창의성을 기본으로 새로운 작품을 제작해왔다"고 강조했다.

창의성 결여 문제와 관련, 윤 교수는 "전통성에 바탕을 둔 장인과 현대성을 중심으로 하는 미술가가 서로 협력하면서 제3의 창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장점을 외면하는 것이 지금의 풍토"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창의성과 시대정신이 담긴 불교미술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그릇된 불사문화가 이 같은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는 윤 교수는 "공개적 입찰을 거치지 않아 훌륭한 아이디어의 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불교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분 아래 과거 고수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불사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

"이 같은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계종이나 정부의 불교미술 관련 업무가 혁신돼야 하며, 작가는 투철한 작가의식과 창의성으로 시대정신을 살린 '오늘의 미술'을 구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윤 교수는 강조했다.

박익순기자

나눔의 집 요양원 건립 난항

수질보호구역 묶여 광주시서 불허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전문 요양원 건립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 광주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원장 원행)'이 인근 퇴촌면 원당리 대지 700평에 조성할 계획인 '위안부 할머니 전문 요양원'이 광주시의 난색 표명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원 건립을 2002년부터 추진해 왔다. 피해 할머니들 대부분이 70대 후반의 고령으로, 피해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어 할머니들을 위한 전문의료시설 설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나눔의 집' 후원자들을 상대로 '땅 한평 사기 운동'을 벌여 1억 8천여만원을 모금해 토지를 매입했고, 현재까지 약 1억 4천여만 원을 후원받아 놓은 상태다.

이미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의 조감도와 건축 설계 계획도 끝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원이 설립될 경우 전체 예산 중 건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자체의 허가를 선조건으로 제시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복지법 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건축 설립 허가가 나지만 퇴촌면 원당리의 경우 수질보호특별대책 제1권역에 포함돼 있어 나눔의 집 요양원 건립은 환경부 고시에 먼저 걸리게 돼 시설 건립이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나눔의 집 측이 하수관 연결 등 허가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이미 완료했는데도 광주시가 '나눔의 집' 요양원 설립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환경법 때문이 아니라 추후 요양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눔의 집 안신권 국장은 "할머니들 요양원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지자체와 합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나눔의 집'은 요양원 건립 부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공원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김강진 기자

세계박물관 박람회 시정 요구

조계종 문화부 공문보내

경기 한국종합전시관(KINTEX)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박물관문화박람회에서 불교문화가 종교관이 아닌 민속관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본지 기사(534호 2면 기사참조)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탁연)가 박람회 실행위원회(위원장 신을식)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 문화부는 7월 15일 △종교관 명칭을 기독교문화선교관 등으로 바꿀 것 △민속관에서 불교 관련 유물을 철수할 것 △이 같은 일의 재발방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박람회실행위원회 신을식 위원장은 "조계종은 물론 대표적 종교의 종단과 성보박물관에 참가공문을 발송했으며, 목아박물관이 민속관에 포함된 것 또한 박물관 측이 원했기 때문이다"며 종교 편향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박람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일절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익순 기자

조계종 결연청소년 70명
8월 1~4일 마곡사 캠프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정념)는 오는 8월 1일~4일 공주 마곡사에서 '조계종 결연청소년 참나찾기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이번이 3회째인 청소년캠프는 조계종과 결연을 맺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70여명이 참가한다. 캠프는 자기긍정 명상, 문화유적 탐방 등으로 꾸며진다. (02)2011-1820 **유철주 기자**

대불련, 대구서 여름대회
8월4~10일 리더십 캠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김홍현, 이하 대불련) 24차 여름대회가 7월 22~25일 동화사 및 대구 일대에서 '아름다운 청춘, 당당히 꽃피어라, 대불련! 언제나 ING'를 주제로 열린다.

대불련의 여름대회는 참다운 생명가치를 발견하는 대중대회이자 정진과 성찰 전법의 장으로 준비 중이다.

한편 8월 4~10일에는 제주도에서 대불련 리더십 캠프가 열린다. 리더십 캠프에서는 회원 간 커뮤니케이션, 지부 지회 비전 수립, 사찰 및 불교문화답사, 캠프, 한라산 및 오름산행, 바닷가 프로그램과 리더십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이 마련되어 있다. (02) 732-0239 **강지연 기자**

가시는 길, 부담되고 싶지 않은 부모마음, 고인이 되더라도 편히 모시고 싶은 자식마음,
이제 안심하십시오. 미래의 여유, 국민상조가 함께 합니다.



리무진 행사차로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최고의 서비스를 단돈 하루 660원으로 해결!! 한달 20,000원씩 99회면 걱정 끝 OK!!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상조이행 보증보험가입*"



감동의 서비스 국민상조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사 진행으로 마치 내 가족처럼 지극한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최상의 서비스와 마음 깊은 친절과 봉사로 최고의 감동을 제공합니다.



경제적인 서비스 개인 행사시의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평소에 적은 돈으로 불입하여 행사 발생시 최저 비용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드리며 누구에게나 양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물가상승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크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서비스 365일 일년 내내 전화상담요원을 배치, 행사 발생시부터 종료시까지 장례에 필요한 사항들을 완벽하게 처리해 드리며, 장례지도사가 그때그때 도움을 드려 모든 부분을 산속하고 친절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심 서비스 세월이 흐르면 물가변동도 예측할 수 없고 행사진행은 제대로 치루게 되는지 불안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상조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차질없이 모든 행사를 치루며, 규정대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한 걱정은 안심하십시오.

장의 무료서비스(국민상조 회원용)

제 공 상 품	내 용
관	오동나무 1치 5푼
수의(순창포 대용직물)	삼베(명주) 세마포
초론, 수시, 염습, 입관, 출상	무료봉사
도포, 원삼, 천금, 지금, 명정, 관보, 결관보(외울베)	무상제공
상복, 굴건 제, 복조끼	무료직계상주
행전, 두건, 작지, 요절, 수절	무상제공 10EA
혼백함, 위패, 습신, 리본, 첩지, 운아, 폐백, 다라니경, 입관충관물 양초 향, 짚신, 축문, 부의록, 선도차 장식	무상제공
영정바구니, 근조기, 병풍, 조등, 향로, 촛대, 잔대	무료대여
케딜락 또는 장의버스 중 택일 특별무료 전국운행	알선서버스(공원묘지, 납골당, 장제비신청, 장의버스, 장례식장, 이장안내)
1급장례지도사 2명 행사도우미 1명	파견

※ 효력 발생은 1회차 불입 후 부터이며 일주일 내 회원증서와 회원카드를 보내드림.(본 증서로 원하는 분 누구에게나 양도 가능)
※ 회원의 빈소, 손님 접대와 음식, 장지만 준비하시고, 나머지 모든 절차는 저희가 책임지고 내 부모님 모시듯 열과 성의를 다해 봉사하겠습니다.(일체의 봉사료는 사절합니다)

KS kookminsangjo
· 본사 서울시 양천구 목 2동 131-119 KS빌딩 · 팩스 : (02)2654-1414
· 전국 어디서나 1544-4110 · H.P : 011-581-8851(대표 남광일)
· www.kookminsangjo.com · www.kookminsangjo.co.kr · www.국민상조.com

‘맞춤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비승비속(非僧非俗)’. 포교의 최일선에서 전법사명의 원력을 불태우면서도 종단 내에서 종법이 규정하는 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위치의 포교사들이 스스로 자탄하며 하는 말이다. 조계종의 경우 ‘포교법’을 통해 포교사들의 종단적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종단 행정과 예산 편성 등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 개방성과 다양성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원력 불자들이야말로 포교 인프라의 중심이다. 그들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한 포교의 미래도 밝아지기 어렵다.

● 글 싣는 순서 ●
1. 프롤로그 – 포교, 지금 이 순간의 사명
2. 포교사들의 원력과 고뇌 그리고 희망
3. 일터불심, 신행과 포교의 틈 좁히기
4. 사이버 공간 첨단 포교 공간인가?
5. 불교와 어울리는 대중문화
6. 문화 공간에 연꽃 피우기
7. 복지와 불교는 ‘같은 말’
8. 포교에 지역이 따로 있나?
9. 불교의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
10. 캠퍼스와 군부대에 불교 심기
11. 지식인, 포교 주체인가 대상인가?
12. 무엇을 들고 해외로 나갈 것인가?
13. 기자방담

포교사 지위 보장 · 지원 시스템 구축 시급



매년 300여명의 포교사가 포교사 고시를 통해 배출된다. 그러나 포교사 자격증을 딴 뒤 활동하는 현직 포교사는 전체의 30%에 이를 뿐이다. 포교사 배출 및 관리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연 25억 자비들여 고군분투

포교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조계종 포교사단. 1982년 포교사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7천여명의 포교사가 배출됐다. 매년 포교사 고시를 통해 새롭게 품수되는 포교사는 300여명에 이른다. 포교사들은 현재 17개분과 90여개 팀으로 나누어 전문성에 바탕을 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계종 이외 종단의 경우 자체적으로 포교인력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구체적인 활동 실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포교사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은 조계종 포교사단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조계종 포교원과 포교사단이 조사한 <포교사단 팀활동 포교사 현황 보고서(2003)>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활동 중인 포교사들은 2천여 명으로 전체 포교사의 30%이다. 70%에 이르는 5천여명의 포교사는 자격만 부여받았을 뿐 활동을 아예 하지 않거나 도중에 포기했다.

왜 그들은 포교 일선에 나서지 않는 것일까. 포교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승무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자격만 부여할 뿐 포교사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거의 없고 재정적인 지원, 물적인 후원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벽에 막혀 포교활동을 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한다.

현재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2천여명의 포교사들은 자신의 가정과 직장에서 상당부분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가정의 생활비를 나누어 포교비로 사용하고 있고, 가족과 함께 보내야할 주말시간을 포교활동에 투자하고 있다.

교육 부재…전문가 양성 역부족

포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은 포교사 배출과 관리 체계에 관계된 교육의 부실이다. “예비포교사들의 현장학습 강화, 포교방법 연구기관 및 포교사 전문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전문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것이 현장 포교사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는 곧 포교사 고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조계종 포교원은 매년 불교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포교사 고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불자들 사이에는 사찰불교대학 수료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취득하는 ‘자격증’ 쯤으로 여기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때문에 포교사 자격증이 ‘장롱자격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교대학 졸업자만을 포교사 고시 응시자격자로 제한하는 지금의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조계종 포교원은 포교사 고시의 시점을 졸업 전에서 졸업 후로 바꿀 예정이다.

그러나 포교사들은 “포교사 시험의 시행시기와는 별개로, 자체 교육과정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불교대학은 포교사 활동을 위한 전문양성과정이 아니다보니, 포교에 대한 전문적인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키워내기에는 부족하다.

때문에 포교사 전문 교육과정을 불교대학 내에 개설하거나, 포교전문 아카데미를 설립하지 않으면 현장의 애로사항을 풀 길이 없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을 제도권 내로 포섭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포교사 고시는 불교대학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실무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불교대학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포교사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소속 사찰이나 단체장의 추천을 받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나마 전체 응시자의 10% 내외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선웅스님은 “추천자 제한 규정을 없애 좀 더 등용과정을 넓히고 다양한 현장전문가가 적재적소에 기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으론 ‘보장’ 현실에선 ‘외면’

어렵게 포교사 고시에 합격해 일선에 투입된 포교사들은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가지로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고 토로한다. 현장 포교사들이 호소하는 어려움 가운데는 ‘지원이 미비하다’거나 ‘일거리를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다.

서울 · 경기포교사단 지역봉사팀에 소속되어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모 포교사는 “합장주나 불경을 선물하는 일, 호스피스 재교육을 받는 일 모두 자력으로 해결하다보니 생활비가 많이 모자란다”며 “적어도 종단 내에서 기본적인 포교도구는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교원에서는 포교사 위탁교육에 대한 연수교육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 포교사단 자체 집계결과, 한해 포교사단의 활동비용은 약 25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환산됐다. 모두 포교사들이 일선에서 뛰며 직접 자비(自費)로 부담한 돈이다.

양성홍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포교에 큰 뜻을 품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들은 신심과 원력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낸다”며 “포교와 관련된 당면과제들을 포교사들만으로 풀 수 없는 만큼,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미 법적 장치는 있다. 조계종 포교법 제33조 1항에 ‘교구본사 및 사찰, 포교당은 포교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포교사가 상근하는 사찰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또 같은 법에서는 사찰이 포교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상당히 많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최근 수원 용주사가 본사와 50여개에 이르는 말사 사찰마다 각각 1명의 상임포교사를 기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교사단 측은 이 같은 방침을 전해들은 뒤 “크게 고무되었다”며 “보다 많은 사찰들이 종법대로 사찰 포교사 제도를 실시한다면 현재와 같은 열악한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

포교사와 사찰이 밀착되어 포교를 펼치는 방안 외에도, 사찰의 눈이 미치지 않는 포교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들에 대한 지원 대책 역시 마땅히 강구되어야 한다. 종단과 교구본 · 말사, 각종 포교단체와 포교사단 내 팀을 잇는 포교행정망을 구축해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종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찰-포교사 협력관계로

현 포교사들은 재가신도와 뚜렷이 구분되는 여법한 위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포교사에 대한 예우는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종종 원대한 포교 원력을 세운 포교사의 활동을 가로 막거나 사기를 꺾는 원인이 되어왔다.

창원의 D사찰 포교사인 이모씨는 거사법회를 이끌려다 “재가자가 법상에 앉으려한다”는 스님들의 비난에 부딪쳐야했다. 이씨는 “사찰에서 활동하고 싶어도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며 “포교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포교사라는 직위가 우바이 · 우바새와 승가를 잇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분 보장을 확실히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위상제고 문제와 함께 각 사찰은 사찰불교대학 강사, 사찰 평신도 교육, 자원봉사 등의 사찰 제반활동에 포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찰은 포교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포교 사각지대에 주력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 경기포교사단 사찰문화해설1팀장 권중서 포교사는 “포교사를, 스님의 영역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스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포교사들에 대한 종단적 지위 확보, 종법에 따른 활용, 재교육 시스템 등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포교 인프라’의 핵심도 구축될 수 없다. 포교사는 맞춤포교 시대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전문 인력이고 이들의 참여에 따라 맞춤포교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 모범사례 ●

문화재 해설 · 어린이회 지도
포교 시너지 효과 높인다

동해 삼화사(주지 원명)는 사찰내에서 포교사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대표적인 사찰이다.

서울 · 경기포교사단 지역봉사7팀(팀장 김명남) 소속 30여 포교사들은 사찰내 포교와 신행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화사 부설 동해불교대학 교무처에서 7명의 포교사가 활동하는 것을 비롯해 사찰 안내, 수련회 · 템플스테이 진행, 프로그램 구성 등을 주관하고 있는 것.

이는 포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업무와 여건을 만들어 준 삼화사측의 역할 제공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삼화사 주지 원명 스님은 지난해 포교사들의 활동비 명목으로 1백만원을 선뜻 내어주기까지 했다.

화성 용주사(주지 정락)의 사례는 사찰에 연고를 두지 않은 포교사들이 노력봉사로 자리를 잡은 경우다. 서울 · 경기포교사단 사찰문화해설1팀(팀장 권중서)은 성보박물관의 터줏대감 같은 존재다. 성보박물관 관람객을 위한 문화해설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교육, 현장학습 지도, 교도소 위문법회 등을 담당하고 있다.

스님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이들이 대신하게 되자,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은 교구 50여 말사에 상임포교사를 두고 그들로 하여금 지역포교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화계사(주지 성광)와 남양주 봉선사(주지 철안)도 사찰내 포교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사찰로 꼽힌다.

동해불교대학에서 봉사하고 있는 최종옥 포교사는 “사찰은 포교활동을 원하는 준비된 포교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 포교사들은 포교원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을 제공받으니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자연 속에 천둥, 번개칠 때의 대기정화 방식
새로운 기술방식의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자연의 원리를 재현한 ‘Living Air’의 특성”
無병균 천둥,번개가 일어날 때 지구를 정화해 주는 원리를 도입하여 실현된 100%살균 능력으로 신선한 공기 생성.
無필터 신소재 린트스크린 방식으로 필터 교환의 번거로움이 없어 비용이 절감되고 성능의 저하를 막아 줍니다.
無소음 Thunderstorm Theory의 원리를 이용하여 제작되어 작동의 소음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반영구 후면 신소재 스크린과 카드플레이트의 세척만으로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소형 높이 30cm, 폭20cm, 무게8kg 으로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이동 설치가 가능합니다.
신뢰성 미국과 캐나다환경 보호청 및 국내 산업공해연구소의 시험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미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최고의 격찬을 받고 있습니다.
조절기능 5평에서 84평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가능합니다
model:XL-15
model:Fresh Air
자연의 신선한공기 우리가 꿈꾸는 내일
자연에서는 공기가 천둥번개와 비로 인하여 깨끗해진다. 천둥번개는 오존을 생산하고 또한 양이온과 음이온을 발생하여 자연적으로 공기를 정화 한다. 비는 오존과 이온을 지구표면에 가까이 내려오게 한다. 오존과 이온은 대기의 오염물질에 부착하여 공기중의 오염물질을 제거 하고 지상에 떨어지거나 산화 시킨다. 리빙에어는 야외의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 기기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 공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공기를 여과하거나 나쁜 증세를 가리거나 희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청정한 상태로 정화하는 것이다. 이온화는 공기 중에서 먼지입자와 오염물질을 충전시켜 더 끌어당기게 함으로서 제거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한다. 입자는 계속적으로 더 큰 입자로 커지다가 결국 그 무게를 유지하지 못하고 공기 중에서 떨어져 내린다. 그리고 오존은 먼지에 남아있는 세균을 살균해 준다. 이 모든 순수한 오존이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은 Living Air의 생성 및 Fan에 의한 송출방식으로만 유지된다.
미국 Ecoquest사 제작 수입완제품이며 탁월한 기술력으로 스피커만한 크기로 84평까지 청정지대로 유지하며, 필터가 없으므로 교환의 수고가 없고 구입 후 별도의 유지비가 전혀 없음
인증서
▶ 산업공해시험성적서 : 오존수치(세계안전 오존(O_3) 안전수치 0.05ppm이하)
▶ CSA : 캐나다 표준협회 발행 산업안전규격 승인청
▶ EPA : 미국 환경보호청(검사인증서) ▶ 미국방성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음
EPA Est. Reg. No. 065975-TN-001
◀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발행 분진, 수은 검사 측정결과서
다중 시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사찰 및 복지기관에 꼭 필요합니다.
TEL : (02)2055-0202
FAX : (02)2055-027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3-7 이오빌딩 518호
www.o2air.net

수신토종오가피
禮獻
禮獻(예헌)이란?
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때 국왕에게
축하의 뜻으로 바치던 진상품을 일컫는 말
국내 최대의 토종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24년의 기다림 !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예헌 禮獻
/수/신/토/종/오/가/피/
품질로 평가받겠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과에서는 연구논문을 통해 오가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로만 생산됩니다.
오직 900분께만 매월 한정판매합니다.
월 10만갑을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수신오가피에서도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1달에 오직 900갑만 생산할수 있습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가피만을 원료로 사용하기때문입니다.
수신오가피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복제를 방지하는 홀로그램에 매월 001번부터 9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선물하시는 분께 그 가치와 품격을 안겨드립니다.
※ 산삼배양근이 함유되어 있다는 모 업체의 오가피 제품은 성광수씨나 수신오가피와 하등의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예가 서병호 교수가 직접 제작한 분청다완을 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

너·나 없이 모두가 하나된 날

영호남 지체장애인 300여명 경주서 '우리는 하나' 연합캠프 펼쳐



영 · 호남지역 10개 장애인복지관 소속 정신지체장애인들이 7월 13~15일 경주시 일원에서 연합캠프를 열었다. 사진은 레크리에이션 음악에 맞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애인들.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7월 13일 저녁 경주 한화콘도 지하 강당. 장기자랑에 나선 영 · 호남 지역의 정신지체장애인과 자원봉사자 450여명이 음악에 맞춰 꾸밈없는 몸짓을 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이들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주시장애인복지관(관장 종광) 주관으로 열린 영 · 호남 지역 정신지체장애인 연합캠프 '우리는 하나' 참석자들.

복지관별 장기자랑 시간. 포항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이외숙, 김지혜, 윤지숙 양이 1년간 연습한 오카리나를 연주했고, 영주시장애인복지관은 빨간 머리수건까지 쓰고 등장해 노래와 춤을 선보였다. 카메라만 들이대면 빙그레 웃으며 손가락으로 브이를 그리고, 음악만 흐르면 몸을 흔드는 모습이 그대로 천진불이다.

이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맛본 장애인들은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정말 재미있다"는 말을 계속 되풀이했다.

경주시 일원에서 열린 '우리는 하나'는 정신지체장애인이 외적 활동과 경험에서 느끼는 한계를 적극적으로 극복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연합 캠프로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다. 2002년 4개 복지관의 참여로 시작된 연합캠프는 올해 규모가 커져 포항, 영주, 구미, 상주, 경남, 덕산, 남원, 광산구, 대구 등 영 호남 10개 복지관에서 300여명의 정신지체장애인와 15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장기자랑으로 우정 나누고
불국사와 석굴암 참배
"세상 경험은 중요한 공부죠"

문화체험과 역사기행이라는 색다른 주제로 열린 이번 연합캠프는 약 300여명의 영 · 호남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다. 입소식 후 천마총, 첨성대, 안압지를 생전 처음 둘러봤고 둘째 날에는 불국사와 석굴암도 참배했다. 혹여 길을 잃을까 손을 꼭 잡고 담당 선생님을 따르는 캠프 참가자들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마냥 즐겁다. 그러나 15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담당 복지사 선생님들은 초 긴장상태. 육체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인지능력은 4~7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은 지체장애인들에겐 그 어느 순간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시간. 연합캠프에 처음 참가한 장애인들은 다른 지역에도 나와 비슷한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는 듯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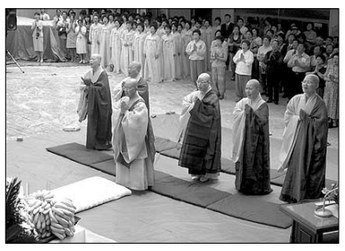
이미 몇 해째 참석한 장애인들은 지난해 만난 다른 지역 복지사 선생님과 친구들을 알아보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느라 분주했다. 4~7세 정도의 인지능력을 가진 정신지체장애인들이 1년 전에 만난 친구와 장소를 기억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 연합캠프가 이들에게 큰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이다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상헌 직업재활팀장은 "교정, 교육, 재활이란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업재활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장애인들이 연합캠프 등을 통해 사회경험을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며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고 설명했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법라 스님은 "장애인들과 거리감 없이 함께 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너와 내가 없고 영호남이 없이 하나로 어울리는 맑은 영혼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글 · 사진=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단신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탑 봉안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는 7월 14일 한마음선원 본원 주지 혜원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법당 우주탑 봉안식을 봉행했다(사진).

봉탑의례, 봉안 및 정근, 축가, 혜원 주지 스님 법어 순으로 진행된 이날 우주탑 봉안식에는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혜원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이미 갖추어진 주인공의 능력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면 불사의 원만 회향은 물론 일상의 모든 일들이 공부 재료이고 깨달음으로 나를 이끄는 스승이 될 것"이라고 법문했다. 천미희 기자

"개성 · 재능 · 끼 맘껏 펼쳐봐"
부산 삼광사 청소년가요제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는 7월 22일 오후 5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제6회 바다사랑 청소년 가요제를 개최한다.

바다사랑 실천 운동 시민연합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개성과 재능, 끼로 똘똘 뭉친 청소년들의 열기를 여름 바다의 시원함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이번 무대에는 부산시 고등학교 재학생들이며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바다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가요와 춤을 선보인다.

2부 행사인 바다사랑 삼광사 청소년 봉사단 발대식에서는 최창진 삼광사 학생회 회장이 결의문을 통해 봉사단 발대식의 각오을 다지게 된다.

바다사랑 청소년 가요제에는 그룹사운드 모피딕스, 그룹사운드 매니아 등이 특별 출연하며, 대상 1명에게 해양수산부 장관상, 금상 1명에게 부산광역시장상 등이 시상된다. (051)808-7111 천미희 기자

영천 만불사 산사음악회

영천 만불산 만불사 대웅전에서 안데스 음악과 국악이 만난다.

7월 20일 오후 7시, 만불사가 개최하는 세 번째 달맞이 산사음악회에서 1990년 에콰도르에서 결성된 유명한 안데스 음악 그룹 카루난(KARU NAN, 먼길이라는 뜻)이 출연하여 에콰도르, 볼리비아, 브라질, 페루 등의 전통음악과 원주민들의 다양한 리듬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국악실내악단 '여의'와 함께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과 페루의 전래 민요 '엘콘도파사(철새는 날아가고)'를 협연한다. 모두 남자로 구성된 카루냔은 그들의 전통인 길게 땋은 머리와 화려한 색깔의 전통 복장, 신발 등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의 색다른 볼거리를 함께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찬불가로 포교하는 시명, 도신, 범능 스님과 구미 불로사 어린이합창단이 출연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부산의 주말 불교계가 책임진다

'주말복지관 지원사업' 16개중 6개 개관 운영

주 5일제 근무의 여파로 주말 복지에 대한 욕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부산지역 주말 복지를 책임지게 된다.

2005년 상반기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테마기획사업 '주말복지관 지원사업' 선정 기관 16개 중 6개 기관이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선정되는 성과를 낳으면서 주말 복지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앞서가는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 친절한 봉사로 주목

이미 개금복지관, 용호복지관의 경우 주말 복지 사업을 시행해왔을 정도로 주말 복지에 대한 앞서가는 사고와 실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프로그램 덕분에 개금복지관, 금정구복지관, 낙동복지관, 두송복지관, 몰운대복지관, 용호복지관 등이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들 복지관은 모두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소속 기관.

이들 복지관에서 제안한 프로그램들도 다양하다. 금정구복지관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방임가정 아동 지 덕 체 함양 프로그램'의 경우 중학생이 초등학생의 공부와 취미 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으로 중학생이 초등학생의 형, 누나가 됨으로써, 중학생은 자기 성장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형제처럼 짝을 이룬 이들은 1년 동안 함께 수영, 음악레크레이션, 다도 교실, 문화지탐방 등의 활동을 하면서 방임되는 가정의 청소년, 아동 문제를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두송복지관의 '주말 3색 파워 프로젝트'는 거동불편 노인, 주말 부양이 필요한 아동, 여가 활용의 기회를 찾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지역 주민간의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회장 혜총 스님은 "주말에 생기기 쉬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연극하며 지역 화합 이뤄요"



'용호 햇빛 연극단' 발대식
10월 '오륙도축제' 때 첫 선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던 지역 주민들이 연극배우가 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7월 8일 용호복지관(관장 혜총) 강당에서 열린 '용호 햇빛 연극단' 발대식(사진)이 그 자리. 이들은 소외된 지역민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연극단을 꾸린 아마추어 예술인들이다.

평소 단순히 보여주는 공연보다는 연극을 통한 봉사에 관심을 가져왔던 남구 연극회 박동민 회장과 지역민이 지역민의 복지를 이끄는 주인이 되게 하자는 용호복지관이 의기투합해 시작된 햇빛 용호 연극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무대 공연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박동민 단장은 "앞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주체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꿈,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극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연극 봉사에 대한 관심 때문에 차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멀리 금정구에서 찾아온 최종원(52) 씨의 각오는 더욱 특별했다. "나이가 들면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데 연극을 하면서 그런 것도 극복할 수 있고 또 봉사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며 "기쁨과 슬픔 등 가슴속에 품었던 것을 발산하며 이웃들과 공감할 수 있는 연극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8일 발대식을 가진 용호 햇빛 연극단은 박동민 단장의 지도로 매주 금, 토요일 연극 수업을 진행하며 올 10월 열리는 지역 축제인 '오륙도 축제'에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는 각오로 연습에 들어간다. 또한 양로원 방문 연극, 소녀소년가장을 위한 연극공연 등 문화 봉사를 펼친다. (051)628-6737 천미희 기자

시 · 음악 어우러진 법회 보셨나요?



대구교사불자회 70여명 마련
어린제자들 동참 분위기 더해

7월 12일 밤 능인고등학교 반야전, 대구 초중고 교사불자들의 풋풋한 노랫소리와 시낭송, 은은한 색소폰 소리가 어우러져 화엄세계를 연출했다.

2003년 9월부터 아함경 강독법회를 이어온 대구교사불자회(회장 신연섭)가 1학기 종강법회를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작은 축제의 장으로 마련했다(사진). 1부 예불과 법회, 2부 시와 음악 한마당, 3부 찬불가 따라 부르기로 이어진 이날 법회에는 능인고등학교 교법사 아용 스님을 비롯해 대구시내 초 · 중 · 고 교사 불자 70여명이 참석했다.

2부 시와 음악 한마당은 대구시내 교사 불자들의 독창과 자작시 낭송, 색소폰 연주, 초등학교 어린 제자들의 찬조 출연으로 조촐히 꾸며졌다. 비록 무반주에 자그마한 카세트라디오를 이용한 무대연출에 아마추어 교사들의 공연이었지만 잔잔한 감동의 무대가 펼쳐졌다.

연발 하는 실수는 사회자 손경제(경신중) 교사의 재치 있는 한마디에 웃음으로 승화됐고, '꾀꼬리 친구들'로 통하는 어린이 중창단의 해맑은 공연은 입가에 싱그러운 미소가 피어오르게 했다.

자작시를 낭송한 능인고 구본섭 선생은 약 15년 교사생활을 통해 학생을 엄히 가르치는 것보다 따뜻한 가슴으로 가르쳐야 함을 배웠다며 경험담을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배지선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8월 6일개강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7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권기종(동국대교수) · 김형준(근본불교원장)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최종석(금강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최봉수(동국대교수)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 (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5년 7월 1일~ 2005년 7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례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5년 8월 6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 불교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장례문화학과 : 2005년 9월 6, 7, 8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우리가족의건강 지킴이
N-K NATURAL 묘향산 전 록 탕

본 제품은 전 북한 만수무강연구소
약국장이 직접 제조한 신비의 건강식품

보정, 보기 보혈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 김일성이 생전에 빠뜨리지 않고 먹었던 35가지 약성분을 배합한 것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맞도록 만들어진 식품이다. 만성피로에 시달리거나 원기가 부족한 사람, 수술후나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물론,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 전록탕의 효능 ※

〈보혈, 보기, 보정, 작용이 탁월하다〉
적혈구, 백혈구의 생성 활발행렬작용을 한다.
중년 남,녀들의 기력강화, 갱년기 장애를 해소시키고 젊음을 찾아준다.
기를 보하며 면역력을 높여준다

이미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있는 묘향산 전록탕 그 효능이 탁월합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말하는 묘향산 전록탕은 묘향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가시오가피"를 북한에서 직수입하여 "동충하초"를 비롯한 우수한 한약제를 "약물동역학적"으로 제조한 안전한 건강식입니다.



• NK내츄럴 대표 허창걸
• 사리원 동양대학교 졸업
•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약국장
• 한 의 담 당 동 의 학 박 사

묘향산 전록탕 이란...
본 제품은 북한 만수무강연구소에서 최고위급 인물들을 위하여 개발된 제품 그대로입니다.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묘향산 요양소 약국장이었던 허창걸 동의학 박사가 우수한 한약제를 "약물동역학적" 으로 제조한 안전한 건강식품입니다.

판매원 : 록원 02) 771-2985 • 제조원 : NK내츄럴 • 총판대리점모집 02) 755-9821

극빈층 노인시설 '하얀 연꽃' 준공

보성 스님·김근태 장관·의원·본사주지 등 1000여명 '축하'



국내 최초로 불자와 시민들의 힘으로 건립된 노인전문요양시설 '하얀연꽃'(이사장 진옥)이 7월 8일 준공됐다(사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현지에서 열린 이날 준공식에는 조계총림 방장 보성, 흥국사 회주 명선, 화엄사 주지 종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정토마을 능행, 자비신행회 현장 스님 등 원로 및 복지관련 스님과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김선미, 김성곤, 주승용 의원 등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보성 스님은 법어를 통해 "하얀연꽃은 외로운 부처들이 더불어 사는 보금자리로 더욱 맑고 고운 연꽃을 피울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자"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진옥 스님은 인사말에서 "외로운 어르신을 부처님으로 모시려고 10년 전에 발원해 4년간의 공사로 하얀연꽃 한 송이를 겨우 피웠다"고 회고하고 "하얀연꽃을 일군 주인공은 바로 이자리에 계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라며 대중을 향해 삼배를 올렸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순수 민간자본으로 대규모 노인요양시설이 설립되기는 처음으로 함께 동참한 모든 이들이 부처이고 보살이다"며 "나눔의 정신과 마음을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얀연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노인 가운데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극빈층(차상위 계층)을 위한 요양시설로 연건평 720평 지상 3층 건물로 100여명이 거주할 수 있다.

요양시설은 2~5인실 주거공간 50여개와 목욕탕,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상담실, 식당, 회의실, 법당 등을 갖춘 초현대식 건물로 내부에 문턱을 없애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입소는 치매, 중풍 노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며 노후생활은 물론 임종, 장례, 제사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자원봉사 및 후원문의 : (061)644-8877

글 · 사진/여수=이준엽 기자

불자 국악인 '예인회' 창립

예향의 도시 광주에 불교국악인불자모임 '예인회'가 창립됐다.

예인회(회장 이복순)는 7월 8일 광주 덕림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기념공연을 펼쳤다.

한편 예인회는 창립에 앞서 지도법사 무이 스님(덕림사 주지)지도로 3개월 기초교리강좌를 마치고 매월 넷째 금요일 정기법회를 갖고 있다.

이준엽 기자

해인사, 대적광전·법보전 목불 '닮은꼴'

높이·얼굴 길이 등 같아…동시대 제작 가능성



해인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

최근 통일신라시대 목불로 판명된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상과 크기가 같고 모양도 비슷한 목조불상이 해인사 대적광전에도 1위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월 10일에 있었던 경남문화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상은 높이 125cm, 얼굴 길이 27.4cm, 어깨 너비 63.5cm로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의 126cm, 26.7cm, 64cm와 거의 같다. 뿐만 아니라 지권인의 형태나 주름 등도 같아 두 불상이 쌍둥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로써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에서 발견된 묵서의 '대각간의 등신불과 오른편에 부인의 등신불을 2위 만드노니'에서 나머지 1위가 해인사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은 1996년 고려말 고승인 지공(指空) 스님의 계첩 '문수최상승무생계법(文殊最上乘無生戒法)'과 14세기 복식 11점이 복장으로 발견돼 고려시대 불상으로 간주돼 왔다.

박익순 기자

사패산 터널 관통

사찰 수행환경 보존은 '숙제'

국립공원 훼손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이 7월 13일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사찰 수행환경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완공된 사패산 터널은 폭 18.8m, 길이 3997m의 편도 4차로 쌍굴 터널이다. 사패산 터널 공사는 착공 5개월만인 2001년 11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2년만인 2003년 12월부터 재개됐고 지난 7월 13일 관통됐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의정부 홍법사를 비롯한 몇몇 사찰이 직간접적으로 수행환경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윤주옥 사무국장은 "사찰 수행환경 침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국립공원 환경훼손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자연과 인간은 하나" 강릉 현덕사 동식물천도재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는 7월10일 등명낙가사 주지 청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동식물천도재 및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청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며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자연을 대할 때 우리도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덕사 주지 현종 스님은 "부처님이 모든 다른 동물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듯 생명은 그 자체로 고귀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원문 낭독과 조류방생이 끝난 뒤



동식물천도재에서 살풀이춤을 공연하는 모습.

하유 스님의 북춤, 춤사랑예술단(단장 박태숙)의 살풀이춤등 추모공연이 진행됐다.

김원우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구리 천도사

모두가 주인인 공간



지난해 다녀온 남방불교 성지순례 때 태국 성지에서 단체촬영한 미륵종 소속 스님들과 천도사 신도들.

경기도 지역에서 '포교 사각지대'로 불리는 구리시. 천도사(주지 천명)는 지역포교를 결심하고 포교당을 열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곳에서 20년째 운영되고 있는 도심포교당이다. 1986년 중심가 수택동의 한 주택을 개조해 문을 연 이후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물론 사찰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천도사의 포교는 산사처럼 열려 있지 않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절을 지향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절 신자'라는 고정관념을 경계한다. 천도사 주지 천명 스님은 "스스로 마음자리를 찾는 불교신자여야지 우리 절에만 다녀야하는 신자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천도사는 이웃주민의 편한 쉼터 도량이 되기도 하고 불교를 이웃에게 회향하는 무대가 되기도 한다. 천명 스님에게는 도심포교의 원력을 실현하기 위한 정진터다.

모든 신자들은 언제든지 절에 올 수 있고 또한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다. 모두에게 열려있음으로써 모두가 주인이 되는 공간, 이것이 천도사의 포교방식이다.

그래서일까. 10여 년간 공양미를 모아 사찰인근 소년소녀가장과 무의탁 노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선행을 펼치면서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다.

천명 스님이 도심포교에 원력을 세운 이유는 중생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불교가 가까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 때문이었다. 또한 살아있는 생명을 살려주어야 할 방생이 물고기를 죽이는 방생으로 변질되는 등 구태를 벗지 못하는 불교계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다.

'우리절 신도'라는 고정관념 탈피, 열린 쉼터로
10년간 공양미 모아 인근 불우이웃에 보시

복 짓는 불교를 실천하자는 방생의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 방생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보이는 것은 불교내부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천명 스님은 지적한다. 금전을 중요시하는 풍토가 자리잡을 만큼 불교가 세속화됐다는 것이다.

천명 스님은 "여러 종교가 뒤섞여 있는 우리 사회는 종교경쟁시대를 맞고 있는데, 불교와 사찰이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어줄 때 비로소 불교는 생명력을 갖게 된다"고 강조한다.

박봉영 기자

제18기 전생 · 빙의/영 치유법 특별강좌!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최면-전생·빙의/ 영치유법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 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교육내용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빙의 치유법	◉ 빙의 진단법 ➡ 빙의령확인 ➡ 영가와의 대화 ➡ 영가천도 ➡ 천도확인 ➡ 재접신 방지 영치유법 ◉ 악령제압법, 제3자를 통해 빙의된 사람의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를 통한 원격제령 천도법 ◉ 신도가 자기 몸 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확인할 수 도 있다.
전생요법	◉ 전생과 현생은 천륜보다 질긴 연결고리로서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여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고통의 단서를 찾아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정통 사주 명리학	◉ 사주로 조상 영가, 빙의 보는 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 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 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서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유도법, 최면 심리치료, 자율훈련, 최면 명상법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 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망법, 자연 치유력 활성법 등

빙의(憑依)란? 흔히 귀신들림으로 말해지며 영혼이나 강력한 힘, 절대적 신의 힘이 사람에게 침투하여 삶의 전반이나 특정 증상에 영향을 주고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조정할 수 없다", "누군가 내 머리속에서 뭐라 얘기하는 것 같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등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행동, 괴벽, 정서불안,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환청이나 환각, 악몽, 가위눌림 등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빙의 영가의 생전시 질병이나 사고 부위에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세계 보건기구(WHO)국제 질병 분류에는이를 포제션(Possession)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원인 모를 불임시에도 낙태 영가를 의심해봐야 한다.

본 강좌 개강 8월 4일(매주 목요일) 오전10시~18시까지 7회 과정
▶신청요령 : 전화접수 및 방문신청
▶교 육 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 한국의식개발원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지원

통신 (VIDEO) 교육과정

통신교육 방식
▶전생·빙의/영치유 전체교육내용을 실황 녹화한 비디오테잎을 매주 1회(2시간용 3개씩)우송 (7회과정 비디오 테잎 총 20개)
▶실습능력 점검 및 질의응답 등 보충교육을 위해 1회 본원에 출석수업
▶특전:수료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한국전생빙의연구회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교육비 : 200만원

원장 상담학 박사 임 재 형

주최 : 한국 전생·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 최면 과학원 WWW.HYPNOS114.COM

• 전 화 : (042) 255-0734~5
• 장 소 : 대전시민회관후문 청운빌딩 (2층 본원 강의실)대전역에서 5분거리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무료공개강좌 8월 1일 오후1시~4시까지

※ 본 교육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거나 1만원을 송금하시면 공개강좌 비디오 및 안내 자료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한국생활최면실천학회 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한국치유목회 대학원 겸임교수
SBS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KBS 무한지대Q, MBC TV특종놀라운세상, iTV,CMB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과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 공무원 연수원. 기업체 등에서 강의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상담소 전화자원봉사 백천사 보살들

가정폭력에 멍든 맘 보듬어요

남양주 백천사(주지 무구) 법당 건물에 들어서려하면 '가정폭력상담소'라는 현판이 눈에 띈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상담소라니, 생소하다.

"아직 가정폭력의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연구소나 상담소는 서울에만 밀집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남양주시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라도 듣겠다는 의지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7월 13일 전화를 받기 위해 가정폭력상담소로 출근한 황혜영(41) 소장의 말에서 왜 백천사가 이러한 사설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명확해진다. 조금이라도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면서 지역 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다. 그 일선에는 가정폭력상담소 자원봉사자들이 서 있다.

10년 전 우연히 불교 상담 수업을 듣게 된 황 소장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울분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절실히 느끼고는 상담 봉사에 뛰어들었다.

황 소장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배춘자(45) 보살 역시 불교상담공부가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고 말한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통해 삶의 희망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 배보살 자신을 이렇게 뿌듯하게 만들지 몰랐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각 가정마다 폭력의 이유가 모두 달라 '맞춤 상담'을 하기는 무척 힘들다고 봉사자들은 토로한다.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이 고통을 받는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은 '가정 해체'라는 결과물을 낳는다는 것은 같다.

앞으로도 그런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저 없이 도움을 주겠다는 봉사자들에게 꿈이 있다. 상담소의 규모를 키워 자체적으로 클리닉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지역 여성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강좌들도 유치하고 싶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든 날이 있어도 더 좋은 서비스로 피해 여성들을 돕게 될 수 있도록 정진하고 또 정진한다. **남양주=김강진 기자**



남양주 백천사에서 가정폭력으로 마음을 다쳐 힘든 사람들을 다독이는 전화상담 봉사자의 모습. 사진은 7월 13일 봉사 모습이다.

상담봉사자 부족합니다

백천사에서는 여러 후원 물품도 필요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늘 필요하다. 특히 가정폭력상담소에는 상담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절실하다. 가정폭력상담소 황혜영 소장은 "현재 백천사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해도 상담봉사가 가능한 자원봉사자가 없어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뜻있는 불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031)577-3545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훈장 노릇 생각만큼 쉽지 않네"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 초등학교서 서예교실

"어르신들,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평소 실력으로 아이들에게 서예 가르쳐 주시고 가훈도 하나씩 써 주시면 돼요."

7월 12일 서울 서정초등학교 과학실. 앞문과 뒷문에는 '서예훈장교실'이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1교시가 시작되기까지는 30분 이상 남았지만 과학실 안에는 이미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 어르신 20명이 도착해 복지관 직원으로부터 마지막 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 서정초등학교를 찾은 어르신들은 '노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서예훈장으로 집중 훈련시킨 '문방사우(회장 권진기)' 회원들이다. '문방사우'는 앞으로 초등학교 특활시간을 이용해 '서예훈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아카데미 교육에다, 직업교육까지 받은 어르신들로 구성돼있다. 그렇게 훈련을 거듭했음에도 실전으로 아이들을 대한 경험은 거의 없다보니 긴장이 풀리지 않는 것이다.

드디어 1교시 시작종이 울리고 3학년 4반 40명의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온다. 어르신 1명당 학생 2명이 자리에 맞춰 앉아 인사를 나눈다. 누구나 그렇듯 처음은 어색하고 쑥스럽다. 간혹 할머니 할아버지가 낯선 아이들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그러나 본격적인 서예 수업이 시작되면서 아이들과 어르신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진다. 학교에서 딱 한 번 밖에 해 본 적 없다는 서예시간. 아이들은 훈장님들이 화선지에 붓으로 써 내린 글씨를 넋을 놓고 바라본다. 그리고는 자신들도 이제 붓을 들어 담당 훈장님에게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집중한다.

프로그램 시작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서예를 한 정홍(10)이는 얼마나 글씨에 공을 들였는지 팔이 아파 연신 두드려댄다.

"힘주면 글씨가 잘 안된단다. 그리고 'ㅇ'은 한 번에 쓰려하지 말고 붓을 조금씩 왔다갔다 움직이면서 그리면 쉽지."

정홍이의 손을 꼭 잡은 구민옥(70) 할아버지 덕분인지 정홍이의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고 얼굴에는 웃음이 번진다.

이날 행사는 서예 교육 뿐만 아니라 '가훈써주기'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어르신들이 직접 붓글씨로 가훈들을 들고 있다. 강희(10)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방에다 붙여둘 것"이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김은희 과장은 "이번 사업은 1 · 3세대 통합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어르신들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계속 추진해 어르신들이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어르신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진행 중인 '서예훈장교실'. 7월 12일에는 서울 서정초등학교에서 어르신들의 솜씨가 빛났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재능있는 불자 축구선수, 후원자 찾습니다

뛰어난 재능이 있는 불자 축구선수가 학업을 지속할 학비가 없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 당시 국가 유소년대표 발탁된 한정연(동대부고 3학년 · 사진)군은 올해 들어서도 '제14회 금석배전국축구대회'와 '전국체전예선 및 서울시장기대회'에서 최다득점상을 두 번이나 거머쥔 축구인재다. 그러나 작은 공장 운전수로 일하는 아버지와 식당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수입으로는 매 시합 때 마다 1백만원씩 내야하는 축구부의 현실을 감당하기 버겁다. 더구나 부모님은 IMF 부도 이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극도로 집안형편이 어려운 상태.

정연군은 합숙비를 내지 못해 의정부 집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해 새벽부터 홀로 연습에 전념한다. 모두들 점심을 먹는 시간에도 합숙소에서 함께 먹지 못하고 빵으로 요기하며 축구를 한다. 그러나 정연군은 "운동장을 뛰면 모든 근심걱정이 사라진다"며 환히 웃었다. 후원문의:016-754-7495

이은비 기자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민수를 도와주세요.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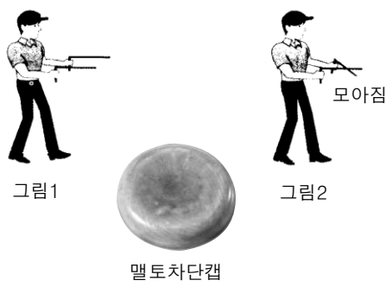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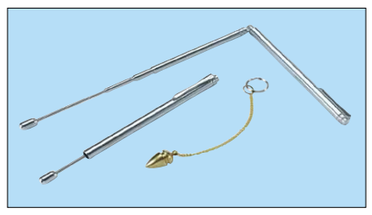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2004-8234 /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면 유망

출장수맥감정비 30만원 개업 또는 부업 노후 대책도 안정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인기

수맥파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발표가 속속 밝혀지면서 우리집 땅속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수맥감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선진국에는 수맥감정사무소가 많이 있으며 일본같은 경우 수맥 감정법인까지 있어수맥감정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맥감정을 하고 싶어도 의뢰할 때가 없다.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식수를 찾으려 해도 땅속에 있는 물줄기를 정확히 찾는 전문가가 몇명안돼 이곳저곳을 뚫기 일수다. 수맥탐지 기술만 있으면 수맥감정 사무실을 오픈해 홍보만 조금해도 재 투자가 전혀 없는 평생 안정된 부업 또는 사업이 될것이다. 氣의 입자파장에서 세상물체가 인지 반사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미세한 파장이므로 오랜경험에 의해 감지하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 엘로드의 발달로 보편적인 수맥과 수맥파는 일반인들도 집이나 들에서 예민한 銀나노 엘로드로 연습하면 찾아 낼 수 있다. 그림1 같이 엘로드를 가지고 집안곳곳을 탐사하다보면 그림2와 같이 엘로드가 모이게 된다. 이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으로 그곳에 멜토 차단캡을 놓고 다시 해보면 그림2 모양이 아닌 그림1 같이 된다면 그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이다. 정신집중이 잘되지 않는 사람은 엘로드가 오작동을 하므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면 된다. 전국 氣기능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KSO 銀나노 엘로드와 탐사추 및 수맥탐지연습용 멜토차단캡과 수맥탐지법책 셋트 가격65,000원 문의(02)741-4477

수맥파 차단 카드

아침 자고나면 머리 맑고 컨디션 좋아 가족 건강위해 인기



(크기 8.5cm×5.5cm)



맬토차단캡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일본의 산업의학연구소는 수맥파가 흐르는곳을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 "병인성 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병원을 신축할 때 수맥파를 차단하는 동판을 깐다. 병상밑에서 발산되는 수맥파로 인해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수맥파는투과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 물질을 관통하고 종파로 발산되어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간 살게되면 체질에 따라 중증질환과 중풍, 치매, 만성피로, 수면부족, 오십견, 집중력 저하, 불면증등에 시달리고 수험생은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며 정리를 못하고 짜증을 낸다. 수맥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발표가 있따르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수맥파 차단카드 설치 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러시아 과학자가 발견한 멜토에너지는 모든 유해파를 중화시키는것으로 한국수맥파연구회에서 제작한 멜토수맥파 차단카드는 간편하게 안방 침대 바닥에 놓고 멜토차단캡 은 거실 구석에 고정시켜 놓으면 종파로 올라오는 수맥파를 중화시켜 20평APT나 주택은 완벽하게 차단된다. 수맥파차단카드는 6개월에 한번씩 햇볕에 3시간 충전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대단히 가뿐해진다. 가격7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02)741-4477
농협입금053-12-102911

평생 부자지갑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福지갑 출시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불경에 입각해 부처님법구제작 전문업체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 불공속에 만들어낸 영험의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관세음보살 수진언 영험중 1번으로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 금은 보화가 들어오며 땅을 소유하고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는다는 영험을 담고 있다.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내부구조가 일반지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섬세하게 꾸며져 있다. 지갑앞면에는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고 영험의 불력으로 금은 보화를 들어오게 하는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부착해 자신감을 갖게했다. 여성용장지갑에는 귀금속 장신구 지퍼주머니가 내부에 만들어져 있고 신분증을 꽂는 창 3개와 신용카드 11개를 꽂을 수 있으며 지갑 뒷면에는 동전 지퍼주머니가 별도로 있는 복지갑으로 안과 밖이 고급 천연소가죽으로 최고급 지갑이다. 축원불공을 마치고 판매하고 있는 관세음 복지갑은 출시 100일도 안되어 신비의 영험이 나타나, 안돼던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부도직전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 돈을 벌고, 되는 노릇이 없던 가정이 잘되는 등 윤년이 끝나고 관세음보살 축복 시대의 문이열리고 있다. 관세음보살은 보화와 보물을 모은다는 뜻에서 보라색으로 여성이 보라색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보화가 끈이지 않는다는 영험을 담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정성껏 보내드리며 남성용중지갑 5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이다.

■문의전화:(02)741-4488
농협:053-12-102911

현장중심 재교육 시스템 정착

▌'조계종 본 · 말사 주지연수 10주년' 성과와 과제

시대 변화 반영, 포교 · 문화 · 복지 부문 확대
주제별 심화교육 인기…연수원 건립 시급

조계종 교구 본 · 말사 주지연수가 오는 8월로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연인원 1만2천여 명의 주지 스님이 본말사 주지연수를 이수했다.

변화된 종단 안팎의 환경 만큼 본말사 주지 연수의 변화도 적지 않다. 승려재교육에 대한 일선 스님들의 욕구가 커진 만큼, 달라진 실제 수행환경과 포교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을 위한 교육원 연수 담당자들의 노력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종단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5년 시작된 본 · 말사 주지연수는 일선 주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앙종단의 주요 종책을 보고받고, 일선 종무행정 소양을 함양하는 등 승려 재교육의 자리로 시작됐다. 2002년부터는 교육법 개정으로 주지연수는 의무연수가 되면서 참가율이 급증, 연간 1200명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비록 2박3일 짧은 일정이지만 사회와 접촉이 제한된 산사의 주지스님들도 연수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포교자세를 갖게 했다는 점은 상당한 성과다.

지난해 연수에서는 참가 스님들을 중심으로 이명박 시장의 서울봉헌 발헌에 대한 사과, 천성산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을 촉구하는 등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2002년에는 서울 · 경기 · 강원 지역 본말사 주지스님 200여명은 연수기간 동안 북한산관통도로 반대 농성장인 철마선원을 방문 '북한산 살리기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성명서를 채택해 불교계의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도 했다. 이는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본말사 주지들이 공동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행동하는 긍정적인 변화의 하나로 꼽힌다.

2004년부터는 주제별 심화교육으로 진행해 연수의 전문성도 높아졌다. 수행, 포교, 복지, 문화, 사찰관리 등 5개 주제 가운데 1개를 선택해 실시하는 '주제별 분반교육'이 그것이다. 특히 최근 종단이 발간한 〈조계종 수행의 길-간화선〉을 교재로 종단의 선지식인 고우 스님(봉화 각화사 선덕), 혜국 스님(충주 금봉선원장), 설우 스님(청주 법인선원장) 등이 '국내외 수행 흐름과 간화선 수행체계의 이해'을 강의했다. 이 강의에는 매 회 70여명의 스님들이 몰려 수행에 대한 스님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6월28~29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불기 2549년 본말사 주지연수'에 참석한 서울, 경기, 강원 지역 주지 스님들의 모습. 사진=유철주 기자

6월 28일 고우 스님의 강의를 수강한 증용 스님(인천 서학사)은 "참선을 노인복지와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고우 스님의 강의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 '사찰신도 2배 늘리기(카톨릭대 교수 송용민 신부 강좌)'를 수강한 종오 스님(춘천 상원사)은 "교통이 나쁜 사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강의를 신청했다"며 "이웃종교 얘기지만 다양한 포교 방법을 고민할 수 있었다"고 만족해했다.

하지만 수년째 거론되고 있는 종단 연수원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과제다. 권역별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승탑 30년 이상 스님들을 따로 모아 실시하는 중진주지연수(8월30일~31일)를 천안 한국중권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이유도 이런 까닭이다.

교육원장 청하 스님은 "포교, 수행, 행정 · 복지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시대변화와 사회의 발전을 뒷받침 하는 주지연수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수 · 유철주 기자

진각종, 울릉도서 회당문화축제

8월 9~13일 풍등 날리기 · 가요제 · 무료진료 등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이 울릉도 지역 주민의 문화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울릉도 도동항 가설무대 등에서 제 5회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진각종이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문화원 울릉청년단 진각복지재단 문화복지연대 등이 후원하는 제 5회 회당문화축제는 진각종 스승과 독도수비대, 울릉군 주민, 관광객 등 1만4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동항 가설무대와 울릉 초등학교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11일부터 12일에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풍등제작, 소망등 달기, 독도사랑 전각탁본, 제기차기, 영화상영, 해변가요제, 풍등 날리기등의 행사가 열린다. 이어 13일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수비하는 군부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문공연이 펼쳐진다.

또 회당문화축제 준비위원회는 축제기간동안 독도수호대와 공동 주관으로 '독도의 날' 제정 1000만인서명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진각복지재단과 문화복지연대, 고려대 안암병원이 공동으로 11일과 12일 양일 간에 걸쳐 울릉군 여래심인당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회당문화축제 준비위원장 이행정(문화사회부장) 전수는 "올해로 5회 째를 맞은 회당문화축제가 이제는 울릉도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잡고 있음을 느낀다"며 "타 도시에 비해 문화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울릉도가 회당문화축제를 계기로 넓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자원봉사자 응급조치교육
천태종, 26~28일 관문사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이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관문사에서 응급조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응급처치교육은 천태종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단인 니르바나 봉사자 및 일반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봉사자들은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의료진이 없는 곳에서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치료를 받기 전까지 심리적으로는 안정하면서 환자를 즉각적으로 처치해 질병이나 손상이 더욱 악화 되는 것을 방지하여 생명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이번 교육은 대한적십자사의 전문 응급처치 강의로 이뤄지며 교육수료자 전원에게 대한적십자사의 응급처치과정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한편 천태종 복지재단은 8월 2일에서 4일까지는 간병인 교육을 실시해 불자들의 자원봉사활동방안을 계속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02)575-3467 김강진 기자

열린불교 아카데미 개설
열린선원, 7월23일부터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이 최근 개원한 서울 역촌동 열린선원이 예비불자들의 기초교육과정으로 열린불교 아카데미 기초과정 개설했다.

7월 16일 '무엇이 불교를 믿게 하는가?'를 주제의 공개강좌에 이어 7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개설하는 열린불교 아카데미는 부처님의 생애, 불교기초교리, 사찰예절, 가람의 구조와 법구의 의미, 불자의 기초생활인 계율, 불교의 세계관 등의 불교 기초 상식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주5일제 근무형태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주말강좌와 평일 퇴근 후 저녁 시간을 택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한 맞춤 강의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큰 특징이다. 1일 2강좌 12주 24강좌를 3번 반복하여 불자들이 선택 수강할 수 있다. (02)386-4755 김원우 기자

금산사 8월 8일
해인사 8월16일
산중총회 개최

김제 금산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8월 8일 오후 1시부터 금산사 설법전에서 열린다.

입후보를 원하는 스님은 7월 29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5시까지 등록신청서 1부, 호적등본 2부, 수행이력서 1부, 사진(반명함판) 5매 등을 첨부해 제17교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접수하면 된다.

거주승 신고기간은 7월 28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5시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시간은 8월 2일 오전 9시부터 4일 오전 11시까지다. 063)548-4441

한편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의원 해인사 교구 보궐(직선직 1명) 선거가 8월 16일 오후 1시 해인사 종무소에서 열린다.

입후보를 원하는 스님은 8월 6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5시까지 등록신청서 1부, 호적등본 2부, 이력서 1부, 사진(반명함판) 5매 등을 첨부해 해인사 종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거주승 신고기간은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선거인명부열람기간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다.

남동우 기자

합동득도수계산림
행자시험 8월23일

태고종은 제29기 합동득도수계산림 참가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양시험을 8월 23일 오후 1시 동방불교대학 설법전에서 실시한다.

소양시험에 합격한 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합동득도수계산림은 9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열린다.

이번 태고종 합동득도수계산림은 선(先)교육 후(後)득도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설판되는 수계산림인 만큼 자격기준과 교육과정이 그 어느 해보다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고종은 내년부터 종립 동방불교대학과 선암사 승가대학등을 졸업하는 수계자에 한해서만 승적을 주는 선교육 후득도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한편 종립 동방불교대학 학인들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은 7월 13~31일(1차), 2차 교육은 10월 8일~15일(2차)까지 선암사에서 실시한다. 김원우 기자



총지종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7월 15일 하반기 49일 불공을 회향하고 16일 방생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부산경남교구 제천 의림지, 대구경북교구는 경남 합천댐 등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부산경남교구는 올해 부산에서 열린 예정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 기원법회를 함께 봉행했다.

우승 통리원장은 "방생은 생명을 아끼고 살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경전의 가르침을 설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해탈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분원활동 지원, 수행풍토 진작"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법운 스님 취임

제 15대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법운 스님 취임식(사진)이 7월 9일 전주관광호텔 풍남홀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승정원장 남파 스님을 비롯한 종단 관계자 스님과 김완주 전주시장, 정길진 도의회의장, 이강수 고창군수 등 지역기관장, 신도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법운 스님은 취임사에서 "전북 종무원의 활성화를 위해 분원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매년 연수교육을 실시해 수행 풍토를 진작시키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도 격려사에서 "전북은 역대 고승이 가장 많이 배출된 불국토이다"며 "1사찰 1선행 운동을 전개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종단과 불교발전을 위해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운 스님은 1958년 고창 문수사에서 송용현 스님을 은사로 동진 출가한 후 1969년 백양사 강원을 수료했다. 현재 고창 용화사 주지, 태고종 종회의원, 고창불교사암연합회장, 고창 경찰서 경승을 맡고 있다.

이준엽 기자

영산의식 비디오 시리즈

전통불교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스님께서 불교의식 비디오를 아래와 같이 촬영 제작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필요한 의식비디오가 있으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령 / 관욕 2. 상주권공 지장 불공의식
3. 상용영반 4. 화청 ①② 5. 구병시식
6. 관음시식 7. 점안의식 8. 방생의식
9. 사물 다루는 법 10. 안택 11. 시다림
12. 산신불공 13. 미타불공 14. 신중불공
15. 관음불공 16. 지장불공 17. 삼대화상증명불공
18. 종사관욕 19. 종사영반
20. 가사불사 이운식 ①② 21. 39위신중작법
22. 간단한 신중작법 23. 전통조석예불
24.천수경 / 장엄염불 25. 상주권공, 각배, 영산염불
26. 사시상단예불 27. 작법무(복청게천수바라)
28. 작법무(사방찬소리도량게)
29. 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
30. 작법무(향수나열 사다라니)
31. 교재 2권 80,000원

• 비디오 각 25,000원

제품구입처
• 전통불교의식대학 종무소 062)362-8604
• 혜공스님 직통전화 011-624-8604
• 계좌번호 : 농협 641010-56-000296 (노연숙)

범음범패 하계교육 대특강 안내

1. 자격 : 스님 및 교임 포교사 일반불자
불교에 관심이 있는 자
2. 일자별 교육내용
◆ 8월 29일: 사물다루는 법(북, 태징, 목탁, 요령) 39위 신중작법 외
◆ 8월 30일: 구병시식, 안택기도 외
◆ 8월 31일: 화청(회심곡), 종사관욕 점안의식, 용왕불공, 방생의식 외
◆ 9월 1일: 시다림(상가염불하는법), 바라춤 종사영반
◆ 9월 2일: 요잡바라, 천수바라, 관음시식 외
3. 교육기간 :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4. 교 육 비 (교재비 별도)
1) 200,000원정(숙박포함)
2) 1일 수강시: 50,000원
5. 모집일시 : 8월 29일 오전 10시
6. 교육장소 : 본 대학 강의실
7. 준 비 물 : 가사, 장삼, 필기도구, 세면기
8. 문 의 처 : 전통불교의식대학
종무소 062) 362-8604
011-624-8604
9. 계좌번호 : 농협 641010-56-000296(노연숙)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59-14
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노 혜 공

움직이는 禪의 숨결 템플스테이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골굴사 · 선무도 대금강문에서는 청소년 및 일반인을 위한 선무도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절제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생활이나 휴가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대안교육의 새 지평'**이란 평가를 받은 선무도의 수련을 통해 평소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며 화랑의 호연지기를 맛봄으로써 **건강하며 활기찬 삶, 화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을 배워 익힐 수 있습니다. 주말과 휴가를 이용한 일반인 템플스테이는 년 중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언 제 : **하계 - 7월 ~ 8월 (2달간)** ▶ 모집 인원 : **수시모집 (1주, 2주, 한달)** ▶ 대 상 : **초등학생이상 개인 및 단체**

※ 동참금은 청소년-1일 2만, 한달 60만원, 성인-1일 3만, 1개월 65만원이오니 아래 계좌로 송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하셨더라도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확정이 안되오니 미리 해당계좌로 입금바랍니다.
농협 721107-52-037300 (예금주 : 설기준 골굴사)

수련내용

1. 안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판소리, 활쏘기, 다도)
2. 기림사, 감은사지, 장항사지, 동해 문무대왕릉 등의 성지순례
3. 주지스님의 초발심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정화 및 한문공부
4. 매일 영어 회화를 원어민(외국인 행자님)이 지도합니다.(해외 연수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 지도진 : 스님 · 사범 등 10명, 판소리강사 1명, 다도강사 2명, 영어강사 1명
※ 준비물 : 개인 세면도구 · 필기도구 · 우산 · 운동화 · 운동복 등
※ 접수 및 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홈페이지 : www.sunmudo.com

일 과 표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13시	독서와 사색
5시	좌선	14시	오후수련(학생)
6시	조깅, 등산	15시	전통문화 강습(학생)
7시	아침 공양(발우 공양)	16시	울력 (도량청소 및 정비작업)
8시30분	불교 강의	18시	저녁 공양
9시	오전 선무도 수련	19시	예불, 자율학습 및 참회록(학생)
11시	108배 참회기도, 자아를 향한 서원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12시	점심 공양	21시	점호 및 취침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선무도 대금강문 • 선무도 대학

대구불교방송
캐나다 공립학교 영어연수
7.26 - 8.21(4주간)
선착순 15명 모집
www.dgbbs.co.kr
053)427-5114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산 자·죽은 자 모두를 위한 쉼터로

새 단장한 진주 안락공원 장례 서비스 현장


진주 안락공원 직원들의 인사는 무조건 90도 허리 굽히기다. 친절이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가장 중요한 코드이기 때문이다.

대한불교감로심장회, 진주시로부터 재수탁 2007년까지 운영

산 자와 죽은 자의 마지막 이별이 이뤄지는 곳, 화장장. 7월 13일 진주 안락공원(이사장 불산)에서는 그 이별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애달프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으랴. 아무리 장수를 누리다 떠난 망자라 해도 살아남은 이들에겐 '아픈 이별'.

망자를 온 곳으로 돌려보내는 의식은 언제나 높은 오열과 흐느낌으로 힘겹기만 하다.

상복에 몸을 의지한 듯 맥이 풀리고 때론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유족들 옆에 소리 없이 다가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들이 있다. 말끔한 복장과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일처리로 유가족들의 이별 의식을 돕는 이들은 바로 안락공원의 직원들. 이들은 장의차가 안락공원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열어주는 숭고한 의식인 듯 화장 의식을 조용하고도 엄숙하게 이끌어간다.

유족의 슬픔이 극에 달하고 조그만 실수에도 마음을 상하게 되는 터라 일하는 이들 모두는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 또 조심하며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 주고 있었다.

7월 11일,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을 헐고 최신 시설을 갖춘 신축 건물을 짓고 개장식을 가진 진주 안락공원은 친절한 직원들의 서비스만큼이나 시설 면에서도 앞서가는 화장장으로 변모했다. 총 83억 7천여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부지 8천8백여 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784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을 새로 짓고 일일 20구의 화장이 가능한 화장시설과 고별실, 수골실, 유족대기실, 관리사무소 등이 배치됐다. 또한 식당은 192석 규모로 유족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밖에도 6천5백기 안치가 가능한 추모관도 중앙에 햇빛이 들어오도록 설계해 유가족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불교감로심장회(이사장 불산)가 2000년부터 진주시로부터 위탁받아 6년째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감로심장회가 위탁받은 이후 유족들의 민원이 없는 화장장으로 유명해졌다. 전국에서 비영리민간단체가 화장장을 위탁받은 것은 대한불교 감로심장회가 유일하다. 2000년 3년 계약으로 위탁을 받게 된 것은 그동안 대한불교감로심장회가 펼쳐온 심장병 환자 수술 지원, 벽지 농어촌 순회 무료진료, 장기기증 주선 등 의료 지원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였다. 게다가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행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좋은 이미지를 확고하게 굳힌 것도 큰 가산점으로 작용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선 전국 최초 최신 시설, 최고의 서비스 '정평' '노잣돈' 요구 · 이권사업 등 배격

대한불교감로심장회는 위탁과 동시에 화장장의 구태를 벗기는 노력에 착수했다. 전국에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위탁받은 최초이자 유일의 화장장이라는 부담감에다가 불교계의 명예를 걸고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3년 계약으로 위탁 운영을 시작했지만 첫 1년간은 시행착오도 겪었다. 경험 부족으로 유가족들의 불만과 민원도 발생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단 한건의 민원만 발생했을 정도로 진주시청 관계자들도 놀랄 정도의 변화를 이뤄냈다. 우선 '마지막인데' 하는 말과 함께 은근하게 요구되는 '노잣돈' 압력이 사라졌다.

그리고 돈과 결부된 말썽의 소지가 있는 일체의 이권 사업을 뿌리부터 없앴다. 그래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유골함 판매나 식당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 같은 친절 서비스와 과감한 이권 포기가 가능한 데에는 감로심장회 이사진의 숨은 노력과 후원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사들의 갹출로 적자를 메우는 한이 있더라도 영리와 결부시키지 않겠다는 각오로 망자와 유족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만들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감로심장회의 운영철학이 이제 전국에서 견학을 올 정도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진주 안락공원 직원들의 서비스는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유족들을 만족시키는 노하우을 가졌다. 진주 안락공원에서 일하는 직원은 강위재 관리사무소 소장을 비롯 모두 5명. 이들의 친절은 유족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뿐만 아니라 이사장 불산 스님이 매주 한차례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며 법문도 잊지 않고 있다.

강위재 소장은 "돌아가신 분을 내 자식처럼, 내 부모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힘들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가족을 잃은 슬픔에 과음을 하시고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분들 때문에 속이 상하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슬픔을 내 슬픔처럼 여기면서 일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소장의 이 같은 친절은 슬픔에 젖어 있던 유족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할 정도다.

"잘한다는 얘기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이, 또 마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이라는 강 소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늘 마음을 비우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유족들을 배웅하며 90도 각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것으로 부족한 서비스에 대신하려 한다.

대한불교감로심장회 이사장 불산 스님의 추진력과 적극성이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와 어우러지면서 2003년 2년 재계약에 이어 2007년까지 3년간 추가 계약을 이뤄낸 진주 안락공원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 되고 있다.

납골당에 모셔졌던 어머니의 유골함을 신축 추모관으로 옮기기 위해 이곳을 찾은 강주희(50 · 진주 상대동) 씨는 "새 건물 짓기 전부터 친절하다고 소문이 나서 어머니를 이곳에 모셨는데 이제 시설도 한결 좋아져서 더욱 좋다"고 말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다만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일이다. 끝없는 윤회 속에서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는 인간세계에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곳인 화장장 운영에서 불교적 가르침이 오롯하게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다.

"죽음을 일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죽음에 대한 보다 성숙된 이해가 가능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불교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한 불산 스님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슬퍼하는 많은 유족들이 편한 마음으로 이곳을 이용하고 또 육신으로는 다시 볼 수 없는 망자를 모셔놓고 고향에 오듯 기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다면 생사불이의 부처님 법을 소리 없이 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글/진주=천미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추모당.


화장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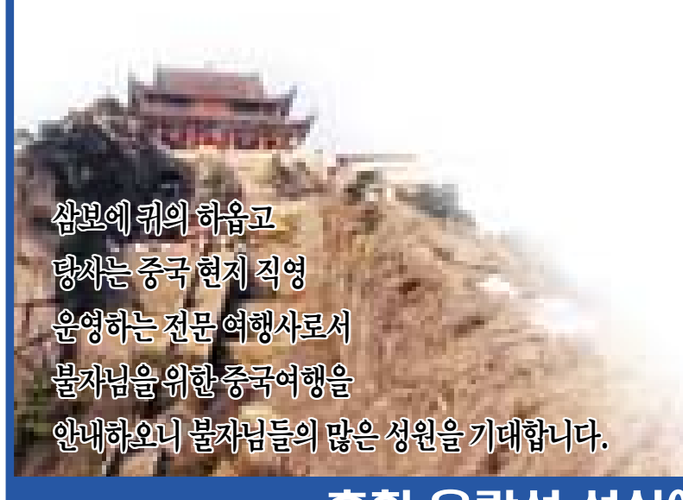

최신 시스템으로 관이 이동되는 모습.


유족(앞)과 직원은 언제나 한마음이다.


추모관에 유골을 봉안할때도 정성을 다한다.


깨끗하고 엄숙한 추모관은 또하나의 법당이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티벳 성지 순례 8일
여행경비 : ₩ 1,890,000원
(중국 비자비, 가이드, 기사팁 포함)
왕자 싯다르타에서 깨달은자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오묘한 묘음에 밀교 티벳 불교 성지순례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미얀마 태국 성지 순례 6일
여행경비 : ₩ 1,290,000원
화려한 황금빛 에머럴드 사원이 있는 부처님의 나라 태국과 세계 8대 불가사의중 하나인 천년 보고 앙코르와트의 신비를 간직한 미얀마가 여러분을 불은(佛恩)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중국의 6대조를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 790,000원
10명이상 출발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한문실력 · 신행이 '쑥쑥'

금강선원 1백여 신도 한자공부
경전이해 · 수행에도 큰 효과

"다음은 연(緣)자네요. 인연 연이죠? 연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쓰는 인연(因緣), 연유(緣由)가 있네요."

7월 18일 오후 3시, 서울 개포동에 위치한 금강선원(원장 혜거)에 한자공부 열기가 여름날 만큼이나 뜨겁다. 30여 금강선원 신도들이 임시 강의실로 바뀐 법당에서 강수경(51 · 명선행)씨의 강의에 열중한다.

한문어문학회 주최로 11월 열리는 한자능력 검정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은 벌써 3개월째 한자공부 중이다. 한자능력검정 1급 자격자이기도한 강씨도 1년전 똑같이 학생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3급반 강의를 맡고부터 3시간 수업을 위해 10시간을 준비한 뒤 강단에 섰다.

"오늘은 쪽지시험 보는 날인거 아시죠?" "어~!"

학생들의 탄성이 쏟아지는 것은 나이는 들었지만 학창시절과 다를 것이 없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책가방을 싸들고 법당 문을 나섰다.

금강선원에서 운영되는 한자공부반은 총 4개. 1~3급, 통감반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2001년 12월 첫 공부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급 자격을 받은 인원만도 1백여명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지역 복지관 등지에서 한자를 가르치는 교사로 봉사활동을 하는 이까지 생겨났다. 1~3급반 강사들도 이 과정을 모두 거치고 1급 자격을 얻은 신도들이다. 올해에는 1급반 20명, 2급반 25명, 3급반 30명, 통감반 20명 등 1백여명이 한자공부에 등록했다.

금강선원 불자들의 한자공부는 선원장 혜거 스님의 권유와 경전을 원전으로 강독하는 금강선원 특성상 신도들 스스로 필요성을 절감한 데서 비롯됐다. 여기에 향상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불자들에게 당부하는 혜거 스님의 평소 법문을 들은 신도들이 한자공부반을 스스로 만들면서 금강선원이 자랑하는 신행형태로 자리 잡았다.


강수경씨의 강의로 한자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금강선원 신도들.

3급으로부터 1급에 이르기까지 걸린 1년 6개월 동안 많은 변화가 생겼다. 무엇보다 해냈다는 강한 성취감과 아울러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겼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품었던 반신반의의 마음이 결국 해냈다는 뿌듯함으로 바뀐 것이다. 한자능력검정 급수에 연연하지 않고 신도들의 자기개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3년 1급 자격증을 딴 서혜선(47 · 환희장)씨는 "자격검정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본 가족들은 나를 다시 보게 된다"며 "공부가 힘들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내, 엄마가 되는 즐거움을 결코 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원경> <금강경> 등 경전 원문을 이해하는데 한걸음 나아간 점은 또다른 수확이다.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보고 직접 이해하면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 보다 감응이 커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행불교를 뿌리내리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보살행 실천하는 의료불자 될 것

서울 고려대의료원 7일 · 대구 불교약사회 14일 창립

대구불교약사회는 7월 14일 대구약사회관 2층 대강당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활발한 신행활동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을 비롯해 지역 신행단체장과 약사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회에서 초대회장에 김태일 약사(극동약국), 부회장에 박동훈 약사(명보약국)가 선출됐다.



김태일 회장은 "직업적 특수성 때문에 일반 불자들과 어울려 신행활동을 갖지 못했던 약사들에게 불교를 보다 쉽게 접하고 신행활동을 펼쳐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대구불교약사회는 앞으로 정기법회와 함께 무료투약, 약물 오 · 남용 방지, 마약퇴치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7월 7일 서울에서는 고려대의료원불자회가 창립됐다(사진).

고려대의료원불자회는 안암병원 대강당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법당 건립 추진 등의 활동에 들어갔다.

김우주 초대회장(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안암병원을 비롯해 구로병원, 안산병원에 법당을 개설해 환자와 보호자, 직원불자들이 부처님 전에 기도할 수 있도록 불자회가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고려대의료원에서 10년째 호스피스 활동중인 지현 스님을 지도법사로 위촉한 고려대의료원불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법회 봉행, 연2회 의료봉사 및 성지순례 등의 활동을 펼쳐나간다. 박봉영 · 배지선 기자

우리단체 이사람



김명락

서울 은평구청 불심회 포교부장

언제 어디서든 '준비된 포교사'
불심회 카페 개설 인터넷 홍보

지역 불교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는 은평구청 불심회. 1996년 불심회를 창립할 때 함께 일했던 도반들은 대부분 정년퇴임해버린 요즈음, 불심회 내에서 고참 중의 고참인 김명락(53 · 은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포교부장은 여전히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 힘이 있는 순간까지 불교를 전하겠다는 신념 때문이다.

"일붕선교종 포교사이기도 하지만 소속 종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와 인연을 맺고 불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큰 기쁨이지요. 포교를 수행이라고 여기면서 지냅니다."

김명락 포교부장은 '준비된 포교사'다. 그의 가방에는 언제 어디서든 집전할 수 있도록 목탁과 의범집이 들어있다. 또 불교에 관심을 갖는 이에게 나눠줄 염주가 담겼다. 그러면서도 "길 안내자에 불과할 뿐"이라며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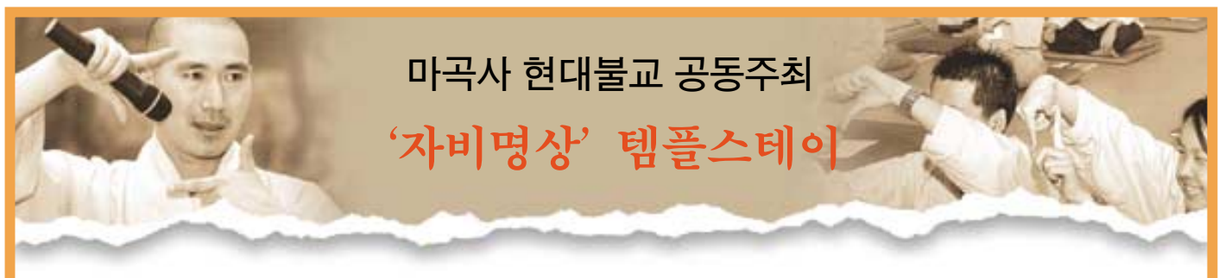
"벌써 물려주었어야 했는데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의 열정을 불심회원들은 잘 알고 있다. 오히려 불심회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하는 김명락 포교부장에게 부끄러울 뿐이다.

서예, 조각 등에 조예가 깊은 김명락 포교부장은 경기도 광주에 불교조각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불심회와 조각원을 알리는 카페(cafe.daum.net/bsmrlkim)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불과 4개월여 남짓 동안 김명락 포교부장은 카페에 들리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명락 포교부장은 포교, 수행, 봉사 등 각 분야에서 재가불자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평소 강조한다. 재가불자들이 제역할을 찾을 때 한국불교 전체가 현재보다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불교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은 그가 초발심을 잃지 않고 활동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재가불자들의 신행터전이라 할 수 있는 신행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해요. 재가불자 한사람 한사람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할 뿐이지만, 이 점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거대한 힘이 나옵니다."

박봉영 기자



마곡사 현대불교 공동주최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마음의 틀 깨는 순간
당신은 인생의 주인공

2차 이혼 사별자 위한 '새 출발'


'이혼 · 사별자를 위한 새출발'을 주제로 한 마곡사 제2차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계곡에서 진행된 '마음열기' 명상에서 받은 느낌을 노트에 젖고 있다.

'사랑.' 받아들이기도 거부하기도 너무 어려운 것. 그래서 시인들은 사랑을 뿌리치기 어려운 '독약'과 같다고 한탄했다. 또한 이혼이 납 중독만큼이나 뇌혈관 질환 사망률을 높인다는 한 연구결과는 사랑의 파탄이 인간에게 얼마나 고통스런 영향을 주는지를 방증한다. 이혼과 사별. 왜 그것들은 몸과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하는가?

마음 상처를 훌훌 털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7월 8~10일 공주 마곡사를 찾았다. 마곡사(주지 진각)와 본사가 공동주최하는 '자비명상 템플스테이'의 두 번째 테마는 '이혼 사별자 등을 위한 새 출발.' 지도법사 마가스님(마곡사 포교국장)과 20여 참가자들은 2박 3일 동안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화두를 들고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상처없는 마음으로 새출발하기.' '마음열기' '자기 긍정명상' '감사명상' '구름이 흩어지듯' 등 치유명상 프로그램은 여행의 중간 정거장이다.

#"한번 웃어보세요" 주문에 멋쩍어진다

7월 8일 오후 2시 공주 마곡사. 20여 참가자들이 수련복을 갈아입고 옹기종기 앉아 있는 연화당 안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섰다.

그러자 대뜸 나오는 말. "사진은 찍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말 속에서 무언가가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이혼자 특유의 정서.

마가 스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 고통 받지 않고 살게 하자"고 설득한다. "그럼,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간신히 한발 물러선다.

이어 마곡사를 감돌아 지나는 계곡으로 나왔다. 지도법사 묘운 스님이 "여러분은 지금 즐거워 죽을 듯 합니다. 한번 크게 웃어보세요"라고 주문한다. 왠지 멋쩍다. 잠시 전 스님을 따라 수백 번씩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의 벽을 허물고 나오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울고 싶은 사람은 울어보라"하자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들이 몇몇 눈에 띈다. 이 세상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테니….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는…

어느새 웃음보다 울음에 더 익숙한 사람이 됐다. 필사적으로 이혼이란 암초에서 빠져나오려 했기에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혔다. 어떻게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갈까?

묘운 스님은 "우리 사회는 개인들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기쁨 슬픔 고통 등 감정과 생각을 죽이도록 한다"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이 살아나야 그간의 응어리를 터놓을 수 있고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자기긍정'에서 시작된다.

자기긍정의 원리는 간단하다. 첫 번째는 평범함 속에 중요함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 템플스테이 입제 다음 날 아침 마가 스님은 참가자들에게 쌀 한 톨씩을 나눠주었다. "쌀 한 톨이 우리 손 위에 오기까지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종이 위에 써 보세요."

'쌀 한 톨이 뭐 대단해?'라고 생각한다면 큰 코 다친다. 쌀알이 땅에 떨어져 다시 쌀이 되기 위해서는 '우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쌀을 키우는 농부의 직접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쌀을 운반하는 자동차, 자동차를 움직이는 석유, 석유를 파내는 정유회사, 석유가 만들어지기 위해 필요한 수백만 년의 시간, 그리고 땅과 태양 등. 잠깐 동안의 생각에도 참가자들은 쌀 한 톨 안에 온 시방세계가 들어 있음을 알게 된다.

참가자들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이 쌀알보다 몇 백, 몇 천 배 커다란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가?'

"그동안 내가 소중한 존재란 사실을 잊고 지낸 것 같아요. 여기 오기까지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지금의 나'는 그 분들이 원하던 모습인가 돌아보게 됐어요"(유심). 여유가 조금씩 생겨나는 듯 하다.

#용서하세요, 다음 생엔 좋은 아내로…

자기 긍정원리 두 번째는 나에게 고통을 준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바로 배우자였던 사람을 이해하는 것. 둘째 날 죽음체험 명상 '구름이 흩어지듯'은 자신의 죽음을 가정하고 유언장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죽음이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 고안됐다.

마가 스님은 "삶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30분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정리해 보자"며 참가자들을 죽음 체험 명상으로 이끌었다.

유언장을 쓰며 느낀 공통점은 무얼까? 이혼의 피해자는 당사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혜' 씨는 유서를 "내 사랑하는 아들…야"로 시작했다. 그녀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아들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사랑을 주지 못한 부모로서의 자책감 때문이다.

"늙으신 부모님, 나이 들어 이혼한 딸 때문에 걱정시켜드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참가자인 '진' 씨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란 말로 유서를 끝냈다.

'한울' 씨의 유서에는 헤어진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묻어났다. "여보 미안해. 좀더 따뜻하고 기댈 수 있는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다음 생에는 좋은 엄마, 아내가 될게요. 내 삶이 버겁다고 당신을 돌아보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 걸을 준비 됐지요?"

이혼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것은 나만이 아니었다. 내가 모를 고통을 배우자 역시 겪고 있었으며, 결혼을 축복해주었던 가족과 친구, 결혼의 결과인 자식들은 나보다 더 큰 피해자였던 셈이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죽음체험 명상을 끝내고 유언장을 태우기 위해 마곡사 입구 극락교에 섰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빌었다. "나와 그 사람, 내 가족이 근심에서 벗어나 진정 행복하기를…."

마지막 날에는 화 다스림 명상이 진행됐다. 화 다스림 명상은 상대방의 말 행동 생각을 '~구나' '~겠지' '~ 감사합니다'라는 삼단계로 나누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평소 타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가 명상을 하는 동안 드러났다.

화 다스림 명상에 이어 마가 스님의 특강이 진행됐다. 마가 스님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틀에서 사물과 사람을 파악하려 한다"고 전제하고 "결국 그 틀에 따라 나쁘고 좋다는 생각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전도몽상이다"고 강조했다. 어떤 사물과 사람을 보고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순간, 그것들이 나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쁜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마가 스님은 "여러분이 내는 한 생각이 사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우주를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과 행동, 사고를 바꾼다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 일어나 다시 걸을 준비가 됐지요?" (041)841-6227

글 · 사진/마곡사=강유신 기자


촛불 앞에서 가족들을 위해 세운 서원을 다시한번 다짐하고 있다.


마음열기명상. 참가자들은 자연을 바라본 느낌으 그대로 관찰하는 법을 배운다.


부모의 이혼 때문에 힘들었을 아들을 생각하며 울음을 터뜨린 한 참가자.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2004-8200 /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개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채용용 / 인테리어
6. 생활정보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개인,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사문의
011-869-8560 진우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 전수자 모집
기초부터 특수반까지 여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
바라무 작법무 기타 법무
개인지도 각 행사 대행해드림
영남불교전통범음범패전수원
051)554-1518
011-849-0961

여름어린이불교학교
- 사찰명상 체험등 대비
- 염주 大 염가판매
- 시중가격 8000~12000원 상당 개당 3000원
- 100개이상 구입시 가격 절하 (한정 수량입니다 선착순)

043)733-6766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8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 02)720-5719/720-5682

자동차폐차긴급속보
폐차프로오세요(바퀴만 달려 있으면 폐차가능)
과태료+세금+국민연금+가압류+고장차+방치자동차
때문에 노후된 자동차를 폐차할수 못하고 계십니까? 걱정고민 끝 하루만 정 때문에 고민을 풀어 드립니다
(승합차+화물트럭)가능 사정상 우선 급 폐차환영
이제는 폐차도 어디든지 찾아가는 서비스
최고가 매입(즉시 현금지급) 모든 자동차 24시간. 무료출장상담 (공.휴일 정상근무) (국)가유공자 협동 사업장/수출부품판매
대흥산업폐차 TEL 02)3471-4444~5
02)579-1114 / H.P 011-470-3118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사주명리학 확실하게 배우실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기타
주2회(화,금요일) 2시간씩 5개월간
초보(입문)에서 예행, 연수까지 책임완성
수료후 재청강은 무료, 개업 부업 적극지원
6호선 망원 전철역 2번출구 인근
해동명리교육원 02)336-8484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천도재, 49재,
시달림, 예불
정성을 다해 예불을
모십니다.
051-505-2108
010-7548-0108

① 출가에 뜻이 있는 행자를 찾습니다.
→ 천일기도 후 수계함(40세 미만)
② 사찰에서 생활할 노부부를 모십니다(보시금 없음)
③ 총무 소임으로 사찰을 관리할 비구나 비구니를 찾습니다
011-9803-6301
041-566-0722
033)334-0730

사찰운영(동업) 같이 하실분 모심 (스님 처사 보살)
1. 위치: 경주 2. 사찰규모 : (토지: 약500평, 건물: 330평)
3. 참여하실분(소자본 투자가능 한분 사찰부동산 같이 등기함)
4. 교통 환경 너무나 좋습니다
010-7228-4817

어렵게 불사하시는 스님들에게 달마그림 보시해드립니다 오셔서 받아가세요
010-6462-0343
주강합장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50대~60대
011-483-5639

공양주보살님 행자 모십니다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 곳 동해사
033)672-2900
033)671-607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출퇴근 80만원
(7호선 강남구청역)
010-5541-6568

공양주보살님 모심
▷조계종사찰
(충남 서산)
041)662-3824

조계종 고려고찰 내원암 산사에서 쉬면서 자기 기도하며 지낼 40-50대의 공양주를 구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거처하는 상좌인 연암스님을 찾고 있으니 속히 연락바람.
경북 054)653-1180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
011-9723-0967

부전스님 모십니다
유서깊은 도심사찰
금법당 수국사 사부대중 합장
02)356-2001,
011-746-8698

부전스님 구 함
▷부산 (대광명사)
011-595-5121

운영이나 관리가 어려운 사찰 또는 암자를 맡겨 주실 분 연락바랍니다
▷경남지역
011-831-6434

부전원함
재,불공의식 원만
(4~5년 장기간 근무가능)
016-853-5519

공 양 주 구 함
▷충북 제천
019-648-4898

공양주 구함
▷유서깊은 전통사찰
041)836-5066

사찰운영 자신있는 스님 모십니다
▷충북영동
011-493-7428

천일기도 하실 스님, 기도하실 보살님 행자 모십니다
▷경북
011-561-6644

기도스님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010-4586-7160

공양주·총무보살님 구합니다
▷ 40~50대 이상
031)978-9782

행 자 모 집
천년고찰이며 전통수행도량인 본 사찰에서는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신심과 원력을 가진 수행자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내설악 백담사 033)462-6969

해외포교에 관심있는 분 모심
한국사찰로서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종교국으로 부터 설립허가를 득한 사찰입니다. 한국인이 제일 많고 한국기업만 10,000여개의 회사가 상주한 중국 청도에서 포교의 꿈을 실현할 50세 이상 주지경험이 있는 비구스님을 모십니다.
FAX 031)906-5108

관음기도 성취도량
- 교통 사통팔달 산세수려 기도하는 분위기
- 최신식 실버타운 심신수련 기도처
- 독방사용, 숙식제공, 저렴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 선착순

010-9367-5982
주지 법사는 관음기도로 가피받은 사찰임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안에 맞추면 입금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혜도 혜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6 제일약국 (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전국 제일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감포도량, 뉴욕도량, 서울도량

▶신입생 주·야간반 모집
- 주1회 공부/학력,연령 제한없음
- 일반신도교육, 조계종포교사 배출기관
- 최첨단 시설

▶행자(예비스님 남·녀)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 – 45세미만, 고졸이상)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우학스님 – 직접강의 ('저거는 벨낭 고기묵고'의 저자)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문의전화 : 053)474-8228 011-9852-0075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의 에드가 케이시 **박진여씨의 놀라운 최면 투시 능력**

충격적인 카르마의 보고서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속에 당신이 전생에 지어 놓은 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불치병, 자식의 죽음, 자살, 사업의 실패, 좌절 ... 이 모든 불행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 났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삶의 비밀이 풀린다.

인간의 삶은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 펼쳐지고 그 인과율을 인수분해 하면 사주팔자라는 답이 나온다. 사주팔자는 그 사람의 전생의 성적표이고, 그 성적표를 읽어낼 수 만 있으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길흉화복과 흥망성쇠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해결할 수 있다.

리딩과목
- 하필이면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 조상묘(음택)를 어디다 쓸까?
- 사찰의 운영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
- 가족과 전생의 인연은 무엇이었을까?
- 재운을 따르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 미래의 진로를 어떻게 선택해야할까?
- 공부가 안되는 이유는 뭘까?
- 동업자와의 인연은 무엇이며 사업을 원만히 성취할 수 있을까?
- 결혼 할 사람과의 전생 인연은 무엇일까?
- 사업을 번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동방파동명상연구소 02)2198-5789 / 051) 817-6156



전생을 읽는 여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생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닌 박진여씨가 자기최면투시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부분을 리딩해 주었던 사례별 이야기 모음집이다. 이 책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과 불행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윤회, 카르마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를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과학적이고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소개하여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던 삶의 심오한 의미와 가치를 절로 깨우치게 한다.



고요아침 값 8,000원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쑥뜸용구-

소자본으로 대박잡는 틈새업종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허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쑥뜸을 할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쑥뜸을 뜰 수 있다.

오행쑥뜸기



■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쑥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음양쑥뜸기 (무릎관절)



■ 제품의 특징
- 좌훈기 내부에 온열판 장착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 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훈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오행좌훈기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특허등록
ISO 9001:2000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 : 제 03662호
의료용구 제조업허가 : 제 16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 JC07019-3001
실용신안등록 : 제 0308642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18970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28990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01호
ISO 9001 인증서번호 : 제 017269호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 **문의전화**
오행쑥뜸기, 음양 쑥뜸기, 오행좌훈기 등을 찜질방 및 사우나, 피부미용실, 한의원 등에 독점 공급하실 분
※ 무경험자도 가능 (완벽한 본사의 교육)
02)521-4453

www.moxa4u.com 오행쑥뜸 좌훈기/음양쑥뜸기제품구입 문의 02)521-6353~4
D.M.I산업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바이오 창업보육센터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 법당: 30평
• 요사: 60평
• 부지: 11000평
※ 농작물 년수입 4000만
• 가액: 10억

• 위치 : 전북 전주
• 법당: 25평
• 요사: 60평
• 부지: 440평
• 가액: 2억5천

• 위치: 서울 강북구
• 임법당: 40평
• 부지: 61평
• 가액: 3억5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① 서울시내大사찰-45억
② 경기명산사찰터-평당5만원
③ 여주사찰2000평-3억
④ 양평산속사찰3000평-8억
⑤ 원주명당사찰1000평-5억
⑥ 천안여법한절3000평-9억
◆ 대작불사,노후투자상담환영
※ 직원.공양주.부전스님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부산 강서구 녹산동 부근 경내에 500년생 괴목 2그루 (부산시 보호수)있음
• 법당, 요사(큰방1, 각방3) 등기필
• 가액: 3억5천만원

010-5655-1250
051)973-4562
051)941-8989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포교원안내

• 위치: 용산구 남영동 대로변 4호선 출구
• 2층건물 2층 • 평수 : 약 6평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아미타 관음지장 후불탱화 신중탱화 모셔져있음
• 가액: 보증금 시설비 합 1천만원 월 30만원

033)647-5475
011-750-5424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군청 소재지
• 땅 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18평 외 미륵불
• 요사: 23평, 용왕전
• 급매 1억2천, 약수물

• 위치 : 서울
• 부지 : 40평
• 법당 : 12평
• 요사 : 12평
• 가액 : 2억 3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포교원안내

• 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 평수: 30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약간
• 몸만오시면됨 교통편리 즉시법회가능

016-621-3267

신축사찰안내

• 위치: 충북 옥천(대전 20분거리)
• 대지: 200평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 (목조) 요사채 18평 11평
• 옥천읍 5분거리에 270호의 촌락의 끝이면서 산자락에 자리한 작고 아름다운 사찰로써 비구니스님께 적합
• 가액: 1억1천만원

011-9405-8186

포교원(철학)안내

• 위치: 서울 강서구 화곡동 (2,5호선 까치산역 근접)
• 2층건물중 2층 평수:22평
• 유동인구많은 사거리에 있음 목좋음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시설금 1300만원 월 40만원

010-8527-8747

사찰안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건평 56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7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즉시입주(법회) 可.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1천 2백만원 포함)

019-503-79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내
• 부지: 600평
• 법당: 20평(목재)
• 요사: 40평
• 가액: 3억(융자가능)
※ 산세좋음

• 위치 : 경남 김해시내
• 대지: 150평
• 요사: 40평
• 가액: 1억5천
※ 산세좋은 토굴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신모라 사거리
• 평수 : 약 40평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절충 후 결정
• 교통편리, 아파트 단지 인근, 포교 최적지로 즉시 입주가

051)317-0011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동 2층건물의 2층
• 법당 15평, 전체 32평 시설일체 완비
• 가액 : 보증금 2백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8백만원

016-640-8133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무거동 부근
• 대지 68평, 건평 35평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2269-8688
052)223-8617

사찰안내

• 위치: 전남 순천시 부근
• 대지 250평, 건평 25평 완전목조, 대웅전, 신축건물, 화장실, 교통편리
• 가액: 2억5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61)742-8977
017-875-6712

사찰안내

• 위치: 대구 수성구 파동 가창교옆 산밑 아파트 밀집지역
• 대지 60평 목재 임법당, 방 6개, 주방 2개, 화장실 2개 채전밭 40평 • 주차장 무료사용
• 보증금 5백만원 월 80만원 / 보증금 4천원원 월 40만원 가액 1억7천만원 • 집기일체 제공. 교통편리

011-9357-5677

• 경남 밀양시 문화재 50m거리
• 대지 304평, 창건 1년 법당 24평, 요사채 27평 삼성각
• 가액: 2억2천

011-9576-6338

사 찰 안 내

• 위치: 진주 근교
• 대지: 700평
• 법당: 30평
• 요사: 15평
• 가액: 3억5천
• 납골당 허가 유 교통편리한 근교암자

• 위치: 경주 ↔ 포항
• 대지: 650평
• 법당: 20평
• 요사: 55평
• 가액: 4억
• 포항20분, 경주30분 거리 편안한 신라고찰터 암자

• 위치: 밀양 얼음골
• 대지: 200평
• 법당: 35평
• 요사: 25평
• 가액: 2억
• 산세좋은 수양토굴 전망만점, 교통편리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1)581-1599, 018-563-9575
대길부동산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사찰(급)안내

• 위치: 경주 산내면
• 대지: 임야 250평
• 교통편의: 경주에서 산내면간 (버스 40분간격)
• 법당: 인법당
• 특징: 산세가 수려하고 암벽과 냇물이 흐름
• 가액: 3000만원

011-540-8431

사찰 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
• 실사용 평수: 400평 (등기필 200평) 법당 20평
• 집기일체,몸만 오시면 됨
• 가액: 1억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0-7474-0108
010-4788-0483

포교원안내

• 위치: 마산시 부림동
• 평수: 60평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1-585-7521

포교당 안내

• 위치: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 평수 : 22평
• 삼존불, 각단탱화, 에어콘 및 집기일체 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전세+시설비포함 3500만원

011-380-5611
031)251-5615

사찰안내

• 위치: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 평수: 600평 (대지 402평) 대웅전: 33평 (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 7층석탑 전망좋고 수행과 포교에 적합
• 가액: 7억3천만원

011-9411-5302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 평수: 110평
•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시설비 별도)

※ 능력있는 분에게 좋은 조건으로 양도

011-436-0097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통영시
• 법당: 약 20평
• 건물: 3동(큰방2개 작은방7개 전부 심야보일러)
• 대지 등기필 250평
• 사용할 수 있는 터: 약500평
• 가액: 1억5천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1-9849-1080

사찰안내

• 진주지역
• 평수: 100평 (등기필)
• 법당 단청 15평 요사 15평, 목욕시설
• 가액: 1억2천5백만원
• 산세수려함

011-870-6493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의령
• 종교부지평수 600평 +400평(1000평)
• 건물: 요사채1동 임법당 가기와1동(별도)
• 가액: 총 4천만원
• 스님불사관계로 인연되시는 분께 드림

055)573-7832
010-3189-3525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 평수: 30평
• 전세: 1800만(월20만) 시설비는 스님 답사 후 절충 시설완벽 완비

051)781-3037
011-594-1526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생면 간절곶
• 대지 : 260평, 건물 80평 이상
• 가액 : 6억(융자 1억 5천 포함)
• 바닷가 경관수려, 사찰 최적지

052)239-2115
주인직접

포교당 안내

• 위치: 인천 서구 관내
• 법당 50평. 시설일체 완비

※ 스님 노환으로 급히 안내 20년간 운영해 왔음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시설비 직접내왕 절충

010-9790-1761

암자 터 안내

• 위치: 경주시 산내면 건천I.C에서 10분거리
• 평수 : 1,160평
• 건축허가면적- 주택 25.7평, 창고 14평
• 가액 : 평당 7만원

※ 조용하고 물이 좋음

055)337-7774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충북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 천년고찰 아래 마을
• 건물 : 주택 30평, 불상 모심 대지 500여평, 1600여평
• 가액 : 2억

043)832-6144
043)832-2090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인접지역
• 단독 2층(20년 전통사찰) 법당 2층 30평 요사 1층 50평
• 전세 보증금 3천만원 시설비 : 내방후 절충

031)536-0403

사찰(전세)안내

• 위치: 충북보은
• 법당(인법당), 방7개, 주방, 욕실, 화장실 등, 창고, 하우스, 텃밭, 선방, 기도나 수련 등으로 사용가능.
• 마을에서 1km 정도 떨어져있고 뒤로는 산이며 앞으로는 냇물이 흐르며 지하 암반수가 나오며 난방은 심야전기보일러 입니다.
• 전세를 구하는 스님은 연락바랍니다.

011-763-1080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낭성면
• 평수(대지): 466평
• 법당 26평(2층), 요사 26평, 창고 30평
• 가액: 1억6천만원

※ 물이좋아 별장용도가능

016-467-5822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성북동
• 대지 : 220평,건평 60평 법당, 요사채 2동
• 전세 : 2억5천(절충가능)

02)762-2204
02)745-6939
011-244-2083

포교당 안내

• 위치: 충남 천안시 원성2동 목화예식장 뒤 4차선 대로변 세진컴퓨터 2층 30평
• 옥상과 살림가능 아미타여래 관음불,후불,신장,칠석
• 보증금 250만원,월38만원 시설비 110만원

010-9465-6808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괴정동
• 대지 : 60평
• 구조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 가액 : 1억9천만원 (3천5백만원 융자포함) 절충가능

011-9543-0226

사찰안내

• 위치: 충북 단양
• 전체 430평중 대지평수 290평 요사채, 대웅전, 지장전 시설일채완비
• 가액: 1억4천만원

011-9567-5300

사찰 (급) 안내

서울시내 강변 최적의 요지에 위치한 1백년 역사의 사찰로써,
급박한 사정에 의해 매매코자 하오니 사찰운영을
본의로 하는 원매자가 있으면 상담을 요합니다.
중개인의 개입은 사절합니다.

• 대지 : 1천평
• 건물 4동 (대웅전, 요사채 등 대형건물)
• 주변 환경이 뛰어남.
• 매매즉시 등기 이전 가능 함.

연락처 010-2559-9487
011-573-0108

포교원 안내

• 위치: 서대문구 남가좌역 우측 큰도로에서 50m
• 4층 건물 중 3층, 20평
• 보증금 5백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2)302-6941
019-501-3590

포교당 안내

• 위치: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 평수 :40평 시설일체 완비
• 가액 : 1천7백만원에 월 25만원

010-7309-5000
042)934-811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150평, 법당 목조 12평 요사채 벽돌 25평
• 가액 : 8천5백만원

016-652-7547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평수 : 200평
• 법당 20평(기와단청), 삼존불, 약사전, 신중단, 각단 후불탱화, 범종, 원불, 삼성각(5평기와), 요사채 20평, 방3칸, 입식부엌(정화조 유), 산신지지가 응집된곳
• 가액 : 상담후 결정

010-6440-3062

사찰(급)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신축 2층건물
• 대지: 105평 • 법당: 28평
• 요사채: 45평
• 시설: 화장실 4, 심야보일러, 수도, 지하수, 창고, 상수도
• 가액: 2억 8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011-785-5670
053)986-2227

포교원 안내

(포교원 최적지 상가건물 3층)

• 구미지산동 고층아파트 윗 주택가 국도에서 도보로 1분거리
• 평수: 40평
• 가액: 7300만원

※ 월세 원하시는 분

• 보증금 1천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권리금 없고 선착순
• 별장 밀집지역. 청정계곡 접
• 김천 352평 평당 8만원 -사찰 주말 농원-

010-4512-4248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 평수: 30평. 3층건물중 3층
• 시설: 사존불외 일체 후불,지장,신중,산신 탱화 방1칸, 주방, 화장실, 베란다, 에어컨 시설완비
• 유동인구 많음, 배 300여쳑 드나듬
• 가액: 보증금+시설비 3500만원 월 30만원
• 역술하는분 환영

010-7181-7569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천호 4동 암사역 2분거리
• 평수: 48평(5층 건물중 2층)
• 시설: 사존불외 집기일체 후불탱화, 방2칸, 주방, 화장실, 배란다. 시설완비 대로변, 역세권 유동인구 많고 위치 좋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7324-5115

포교당 안내

•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역 2분거리, 시장 내 위치) 3층건물의 2-3층
2층 : 법당, 사무실, 스님방
3층 : 요사채(방3개)
• 시설일체 완비
• 가액 : 2층만 사용 (1천만원에 월 80만원) 2,3층 사용 (1천만원에 월 100만원)

019-9264-7000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부평구 부개1동 (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 (4층건물 2층내), 법당1,방2개,후원1개, 대중방 포함
• 주차 : 도로상 일렬 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모든시설완비. 바로 법회 가능함

017-269-2629
032)517-3001

천고비전 「월영도(月影圖)」 드디어 베일을 벗다

■ 「월영도」 활용 CD를 내며

지난 수백년간 토정(土亭)이 쓴 「월영도」는 우리 술사(術士)들 사이에서 「비전중의 비전(秘典中 秘典)」으로 알려져 왔으나, 누구 한사람 떳떳하게 밝히고 나오지 못했었다. 「월영도」를 한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자들도 어째서인지 후학들에게 전법시키는 일이 없었고, 설사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 「정통성」 여부는 의심 될 수 밖에 없었다. 확실히 알면 정정당당 한 법이다. 좋은것과 나쁜것, 맞는것과 안맞는것, 진액과 거품을 가려내서 천하의 검증을 받아야 했었다.

이번에 박영창 교수와 내가 음지에서 곰팡이가 필대로 핀 「월영도」를 양지로 끌어내서 그 맹독(猛毒)을 없애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서로 요해(了解)한 자료를 합치시켜 일제시대 판 「월영도」 원전에 대조하여 이를 펴내기로 했다.

보라! 「월영도」는 이제 더이상 비전이 아니다. 몇천만원씩 갖다 바치고 배우는 술법도 아닐 것이다. 떳떳치 못한 방술을 익혀 혹세무민하는 사례들은 바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오로지 오행철학(五行哲學)에 진지한 학구자들만이 지금까지 월영도가 지닌 허구성을 발견하고 사계(斯界)의 온당한 방향성을 제시해 나갈수 있게 될 것이다. 다행히 이 「월영도」를 진부한 학습서에서 탈피해 몇 차원 높은 단계의 활용서로서의 CD화 작업까지 완료한데 대해 박영창 교수와 나는 이 시대의 하늘이 준 소명완수로 이해하게 되었다.

-고복자 효사-

■ 내방자의 생년월일시만 치면 아래 내용의 해당부분이 화면에 뜹니다.
■ 출생 연월일시가 양력이든 음력이든 「음력」과 「양력」 표시 중 어는 것을 클릭한 후 입력하면 됩니다.
■ 본 「월영도」 활용 CD판매 대상은 월영도의 「진정성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 각 대학 · 대학원, 오행철학 교수 및 재학생 • 각 사찰 스님(종단 승적자) • 역학 상담 오행가(소속 단체의 수료증 · 인증서 소지자) • 신명제자(소속단체가입확인자)

■ 구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입가격 : 1백 9만원(1,090,000원) · 육임학회원 790,000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0-951487 육임나라
- 접수마감 : 2005년 7월 30일 까지
- 배본일시 : 2005년 8월 2일까지 한진택배로 도착시킴
- 정 가 : **1백 30만원(1,300,000원)** (위 선입금 기간이 경과하면 정가 판매 합니다)
- 신청전화 : **02)993-8680** (주소 성명 전화번호 기재가 필요합니다)
- 입금통보 : **02)996-3335** (입금후 입금자 성명만 통보하십시오)

■ 「월령도」 활용 CD 구입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혜택을 드립니다.

① 내방자 본인 성씨 아는법 ② 내방자 모친 성씨 아는법
③ 내방자 배우자 성씨 아는법 **www.taotemple.net**

- 강의 장소 : 육임학당 「효사숙」 서울 강북구청 왼쪽 첫 옆건물 4층 (지하철 4호선 수유역 8번출구)

오는 8월 10일(水요일) 오후3시부터 3시간 동안 위 ①~③까지 서비스 강의를 순차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날 참석하시는 분들은 각 CD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제시해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月 影 圖 解

一. 知 姓 法

1. 본인 성씨 판단
2. 모친 성씨 판단
3. 남편 성씨 판단
4. 처 성씨 판단
5. 도움받을 길성씨 판단
6. 피해 받는 흉성씨 판단
7. 애인 성씨 판단

二. 肉 親 法

1. 부모판단
• 부선망 여부 • 모선망 여부
• 모친 多 여부 • 부친 多 여부
• 유복자 여부
• 부모 무덕 초년 고생 여부
• 양자 여부 • 타향살이 여부
• 계모 여부 • 부모 재혼 여부
• 부모 질병 액운 여부
• 부모 직업 여부
• 부모 사망시기 여부

2. 형제판단
가. 형제자매 숫자 여부
• 독신 • 형제 • 두남매
• 세남매 • 사남매 • 오남매
• 육남매 • 칠남매
나. 이복형제 여부
다. 형제화목 여부
라. 형제무덕 여부
마. 형제 질병 액운 시기 여부
바. 형제 사망시기 여부

3. 부부화합 판단
가. 남자
• 부부화합 • 부부불화
• 처재난 • 처손재
• 처첩유무 • 국제결혼
• 처액 • 상처시기(年)
• 처불량 • 현모양처
• 처질병 • 해로
• 사별 • 이별
• 후처대길 • 二妾 유무
• 본처무자 후처유자
• 처바람 • 처도망
• 연애결혼 • 만혼 • 처 음란
나. 여자
• 奸夫 有 • 중년과부
• 노처녀 • 여장부
• 청상과부 • 남자조심
• 사업성공 • 해로
• 노년과부 • 무자식
• 二夫 • 치성득자
• 창녀 • 다복녀
• 병자 • 구설
• 남편 多 • 사별
• 독수공방 • 여사장
• 기생 • 무당
• 喪夫 • 초혼실패
• 남편우매 • 겁탈
• 이민 • 처녀동정
• 喪夫시기(年) • 남편바람
• 연애시기(年) • 밤강간
다. 배우자 직업여부
라. 배우자 질병 액운시기 여부

4. 자녀 판단
가. 자녀유무 여부
• 무자식 • 늦자식
• 양자 • 1자 • 2자 • 3자
• 이형제 • 생이별 • 사별
나.장자 장녀 여부
• 첫 아들 • 첫 딸 • 서자
다.이복자녀 여부
라. 자녀 효성 불효 여부
마. 자녀복
• 아들성공 • 자녀 시험운
• 자녀학당 • 자녀 낭비
• 패륜아 • 극자 • 비방아
바. 자녀 질병 액운 사망시기 여부
사. 자녀직업여부

三. 疾 病 法

1. 수술 유무 여부
2. 건강 여부
3. 불구 여부

4. 질병부위 여부
• 치아병 • 해소병
• 수술 • 폐병 • 어깨
• 중병 • 안경 • 귀신병
• 신경통 • 의처증 • 광증
• 암 • 족상 • 비후
• 소아마비 • 교통사고
• 간암 • 낙태 • 당뇨
• 관절염 • 연주창 • 목병
• 자궁병 • 다리병 • 허리병
• 마귀살 • 성병 • 위암
• 천연두 • 안질

5. 발병시기 여부
6. 사고, 사망시기 여부
7. 수명 여부
가. 단명 나. 복수

四. 貧 富 法

1. 부자 등급 판단
가. 거부 나. 부자
다. 상업치부 라. 타향득세
마. 일시부귀 바. 선빈후부
사. 중년후득재 아. 노년성공
자. 중년말부

2. 빈자 등급 판단
가. 조업탕진
나. 거지 다. 빈자 라. 말년 망

3. 자수성가 판단
4. 부자되는 시기 판단
5. 망하는 시기 판단

五. 職 業 法

1. 월급자 판단
2. 사무직 판단
3. 노무직 판단
4. 특수직 판단
5. 직업변동 시기 판단
6. 실업자 되는시기 판단

六. 性 格 法

1. 유순 2. 태강
3. 능수능란 4. 고지식
5. 간사 6. 편협
7. 진실 8. 음험
9. 활달 10. 허욕
11. 열화 12. 불량
13. 강유겸비 14. 춘풍
15. 인색 16. 탐욕
17. 호주 18. 호색
19. 방탕 20. 청빈
21. 가해 22. 실언

七. 流 年 法

1. 吉年지적판단
• 갑을 吉年 • 병정 吉年
• 무기 吉年 • 경신 吉年
• 甲년 吉 • 乙년 吉
• 丙년 吉 • 丁년 吉
• 戊년 吉 • 己년 吉
• 庚년 吉 • 辛년 吉
• 壬년 吉 • 癸년 吉

2. 吉月지적판단
• 寅月 吉 • 卯月 吉
• 辰月 吉 • 巳月 吉
• 午月 吉 • 未月 吉
• 申月 吉 • 酉月 吉
• 戌月 吉 • 亥月 吉
• 子月 吉 • 丑月 吉

3. 1년 運 지적 판단
• 배우자 이별 • 자손공직진출
• 처자 액난 • 괴이사
• 중년 喪夫 • 동업패망
• 회갑 吉運 • 가족상성
• 부부질병 • 아들병 • 우환

4. 흉운 지적 판단
• 칼 조심 • 물불 조심
• 뱀 조심 • 관재 구속
• 도난 • 손재 • 구설
• 수술 • 요절 • 실직
• 이사손해 • 화재
• 여난 성병 • 집터살
• 효복상복 • 타국살이
• 원생금지 • 동업손해
• 여자손해 • 인간패
• 喪妻 • 身厄 • 문서
• 가액 • 실물수
• 근친조심 • 동업금지
• 관재 • 형처 • 낙상
• 객사 • 산소이장권유
• 개명권유 • 이사권유

5. 재물 득실 판단
6. 애인 배우자 만남 이별 판단
7. 직업 성공 판단
8. 시험 성패 판단
9. 육친 가족 상황 판단

八. 風 水 法

1. 득이 되는 지관(地官) 성씨 판단
2. 吉한 산소 가택 좌향 판단
3. 凶한 산소 가택 좌향 판단
4. 吉 방위 이사 판단

九. 秘 方 法

1. 칠성기도 적합자 판단
2. 산신기도 적합자 판단
3. 용왕기도 적합자 판단
4. 관음기도 적합자 판단
5. 지장기도 적합자 판단
6. 신장기도 적합자 판단
7. 厄을 물리칠 인연 성씨 판단
8. 아들 낳는 비방 판단
9. 첩 떼는 비방 판단
10. 질병 퇴치 비방 판단
11. 소원성취 비방 판단
12. 송사 비방 판단
13. 방액 비방 판단
14. 비방 안하면 망하는 판단

十. 본 CD 구입자 서비스 講義 受講 으로 아는 비법

1. 성씨 확실하게 아는 활용법
2. 모친 성씨 아는법
3. 배우자 성씨 아는법

역학도서출판 · 운세컨텐츠개발전문

육 임 나 라 주 식 회 사

일주문



한국청소년학회 3대 이사장에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 현성 스님은 최근 국제 청소년센터에서 열린 2005 (사)한국청소년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대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제3회 여름 시조대축제 개최

김천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은 8월 13, 14일 만덕전 등에서 나래시조시인협회(회장 오민필)와 함께 제3회 여름 시조대축제를 개최한다.(054)436-6174



보현불교대 수계법회

한국불교 금강선원 종재 활안 스님은 7월 22일 오후 7시 대전 보현불교대학 금강계단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한다.(042)624-6555



바다사랑 청소년가요제

부산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은 7월 22일 오후 5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제6회 바다사랑 청소년가요제를 개최한다.(051)808-7111



태고종 총무원 기획국장에

성남 성보사 주지 휴암 스님는 최근 태고종 총무원 기획국장에 임명됐다. 스님은 대승종 교무부장, 교육원장을 역임했다.



동국대박물관장에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정우택 교수는 6월 23일자로 신임 동국대 박물관장에 임명됐다. 정 관장의 임기는 2007년 2월까지.

"불교학, 교리 중심에서 벗어나야"

첫 방한 도날드 로페즈 교수 서울대서 '서구 불교학 연구' 강연

"불교학자들은 불교학 전통의 역사를 인식하고, 연구 주제 선택과 연구에 영향을 주는 전제들이 항상 있음을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버스웰 교수(미국 UCLA) 등과 함께 서구 불교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도날드 로페즈 교수(미국 미시간대 · 사진)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7월 15일 고려대에서 열린 국제한국학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로페즈 교수는 하루 앞선 14일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에서 '서구 불교학 연구: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서 로페즈 교수는 서구에서 불교가 학문으로 성립 ·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불교학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불교학의 발전 방향. 로페즈 교수는 "2차대전 이후 엘리트적 학문 전통에 치중해 아비달마, 중관, 논리학적 전통이 주로 연구됐으며, 칸트 · 비트겐슈타인과 불교가 비교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데리다와 비교되기도 하고 있다"고 근래의 연구흐름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불교학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로페즈 교수는 "기존 연구가 대개 교리나 철학 중심의 고전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계를 지적하며 "19~20세기 불교와 근대성의 만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불교공부 하는 까닭은?

-대학생이던 70년대, 서구문명에 대한 회의와 함께 불교가 융성했다. 나 역시 불교에 흥미를 느끼며 심취했다. 처음에는 깨닫고 싶다는 생각에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불교학을 공부하는 학자에 머물고 말았다.

▲뷰르노프 등 유럽 불교의 초창기 학자와 저술을 평한다면?

-지금 뷰르노프의 <인도불교사>를 번역하고 있다. 그 저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에는 그가 살았던 집을 방문했는데, 88가지 문헌을 비교하며 책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를 오리엔탈리스트로 비판하는 견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참여불교에 대한 관심이 서구에서는 어느 정도인가?

-참여불교보다는 윤리학이 학계 주된 흐름이다. 30여 년 전에 중관이 유행했다면 요즘은 불교의 사회사적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불자인가? 불자라면 서양적 가치관과 충돌이 크지 않은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만약 아니라고 말하면, 다만 직업으로서 불교학을 공부하는 것으로 오해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불교 전통이 결여된 서구에 살고 있는 내가 과연 불자다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1978년 달라이라마를 만나 보살서원을 하며, 하루 6번씩 기도하고 명상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실천이 쉽지 않았다. 1984년 다시 달라이라마를 만났을 때 실천이 어렵다고 말했더니, 그는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는 "석탄이 붉은 빛을 내비치는 정도로만 유지하면, 언젠가 인연을 만나 활활 타오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것이 큰 위안이 됐다. 달리 생각하면 불자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불교를 연구하고 집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스리랑카 조계종 마을 사무총장에 지철 스님



7월 12일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마을 건립법인인 '한 · 스국제불교우호교류센터' 추진위원 및 스리랑카 주재 사무총장에 임명된 지철 스님(사진)은 복지마을 부지 매입과 건립에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캄보디아에서 진행하는 고아원 및 교육시설 건립 사업에 참여했던 지철 스님은 "복지마을 건립 사업이 전 종도들의 의지를 모아 추진되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철스님은 조만간 현지로 출발한다. **유철주 기자**

제20회 불이상 시상식



제20회 불이상 시상식이 7월 5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렸다. 최연식 교수(목포대)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각각 연구분야와 실천분야에서 불이상 수상자로 선정돼 이날 상을 받았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불이상은 상금을 1000만원으로 늘렸고 수상 연령은 30대 후반 등 소장학자에 포커스를 맞췄다.

대구 화원교도소 재소자 수계법회



대구 화원교도소 재소자들 대상 수계법회가 7월 12일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계사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동화사 사서실장 재원, 사회국장 대법, 포교국장 일진 스님 등 교정위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지성 스님은 "무명에 가리어 인생고해를 헤매게 됐지만 이제 부처님 법 안에서 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농림부장관 해인사 템플스테이



이탈리아 농림부 조반니 알레만노 장관 등은 7월 11, 12일 해인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일행은 11일 삼선암에서 진행된 좌선법회에 참석하고, 12일 참선주제 수련회, 새벽숲길 걷기, 인경 체험 등을 했다. 만능스포츠맨인 알레만노 장관은 팔만대장경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수국사 토진 스님 주지 진산식



서울 수국사 주지 토진 스님의 취임법회가 7월 13일 봉행됐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종단 중진스님들과 국회의원 이미경, 최재성, 이계진 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토진 스님은 "도심 수행사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경 · 절로 신심 다졌죠"

롯데호텔 장경작 신임사장 신행 '화제'



장경작 롯데호텔 사장(사진)의 취임 전 2년여 간 치열한 구도행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02년까지 웨스틴조선호텔을 국내 최고의 비즈니스호텔로 성장시키는 동안 장 사장은 <금강경> <천수경> <법화경>을 사경하고, 무릎이 까질 정도로 절 수행을 이어왔다. 사경한 경전을 쌓으면 천장에 닿을 정도다. 35년간 앞만 보고 달려왔던 자신을 돌아보고 미련을 털어냈다.

2002년 웨스틴조선호텔을 퇴임한 이후에는 절 수행을 해왔다. 그런 그에게 올 2월에는 롯데호텔 경영이라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 장 사장은 "사경과 절을 하면서 하심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웠다"며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을 갖고 노력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9월 북관대첩비 반환, 민족 기상 되살려

한 · 일불교복지협 회장 초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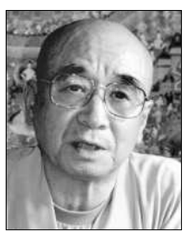
"9월경 가능할 북관대첩비 반환은 민족의 혼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떠나 전국민적 차원에서 북관대첩비를 맞아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 동분서주해 온 초산 스님(한일불교복지협회 회장 · 사진)은 '북관대첩비' 반환이 단순한 문화재의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제에 의해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는 것은 민족의 기상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때 정문부 장군이 왜군을 물리친 것을 기념해 1707년 함북 길주군 임명 고을에 세운 것으로, 러일전쟁 때 일제가 이를 약탈,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해 왔다.

북관대첩비 반환운동에 뛰어든 것은 지난 2000년 4월. 일한불교복지협회 회장 가키누마 센신 스님이 초산 스님에게 북관대첩비의 존재를 알려주면서부터다.

"센신 스님이 자꾸 저에게 만나자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만났더니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북관대첩비를 한국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스님은 이후 열차례 이상 일본을 드나들며 대첩비 반환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올해 3월 28일에는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도 대첩비 반환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7월 8일에는 북한 당국이 조선불교도연맹과 함께 반환 작업을 해달라는 뜻을 전해오기도 했다. 스님은 우선 7월말 일본을 방문해 반환을 위한 실무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초산 스님은 "일본에는 북관대첩비 말고도 수 만점에 이르는 한국문화재들이 있다"며 "선조들의 얼과 혼이 담겨있는 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치권과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심마니 토종 오가피



심봤다! 제2의 산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의서에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등 자사 직영 현풍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02)447-9114



불자 세상보기

송 일 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고유가시대 '고대책' 없나?

국내 원유(原油) 수입량의 80%를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배럴당 55달러를 넘어서자 정부와 산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고유가는 실물 경제 전반에 비용을 상승시키고, 무역수지와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게 된다. 수출의존도가 큰 국내기업들은 따라서 당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가가 10% 오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내외에 해당하는 실질구매력이 위축되고 경상수지도 20억 달러 정도 줄어든다고 예상했다. 반면 소비자 물가는 0.1%포인트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원유가격이 5달러 오르면 경제성장률은 0.19%포인트 둔화되고, 소비자물가 지수는 0.68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유가로 인해 상반기 성장률마저 낮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목욕탕과 찜질방 주유소 등에 대한 강제 휴무제를 실시하고 할인점 등에 야간 영업 제한 등 강제 에너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소비억제정책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강제 에너지 정책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소비심리만 위축시킬 뿐이라며 반대의 사를 밝히고 있다. 정부의 강제 에너지 정책이 고유가를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일 수는 없다. 할인매장 영업제한은 오히려 경기(景氣)회복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수요억제 정책 보다는 유가에 포함되는 세금조정 등을 통해 서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에너지 가격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고유가는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고, 유가 상승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중동을 비롯한 산유국들의 공급 불안과 중국 등의 수요 증가가 고유가를 촉발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석유자원의 고갈 위기와 관련이 있다.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개선과 대체 에너지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체에너지개발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절약시설 지원도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자면 정부가 앞장서고 산업계와 국민이 적극 호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원자력발전소 사업은 원전 반대운동에 발목 잡히고,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하나 건설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끌고 있는 상태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근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 확대는 세계적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원전 건립을 위한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키고 있다. 원전건립이 금지됐던 독일에서 조차 차기 선거결과에 따라 이 규제를 풀 수 있다고 밝히는 실정이다. 원자력은 가격경쟁력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업과 국가경쟁력과도 이어지게 된다. 우리도 대체에너지 차원에서 원전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아울러 정부는 당장 해외로부터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자원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미국 석유회사 유노칼의 인수를 놓고 중국과 미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게 대표적인 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 못지않게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이 고유가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임을 모두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 신도회의 '위상'

1955년 결성되어 광복 이후의 혼란한 불교를 바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전국신도회로부터 따지면 조계종 신도운동의 역사는 올해로 50년이 된다. 그만한 역사라면 이제 우리의 신도운동이 본 궤도에 올라 왕성한 활동으로 재가신도의 위상과 역할을 드높이고 있어야 할 터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간에 정권 · 종권과의 유착 등 일탈로 말미암은 침체기가 길었기에, 이제 중앙신도회로 거듭 나서 새롭게 신도운동의 틀을 잡아나가고 있는 중이라 하겠다. 우리의 신도운동은 그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한층 더 큰 서원아래 불퇴전의 정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명암이 엇갈리는 신도운동의 흐름 속에는 우리 신도운동의 방향에 대한 몇 가지의 제시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가 신도운동은 출가자의 부속물이 아닌 또 하나의 주체로서의 위상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신행과 조직이라는 두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다. 우선 재가조직이 출가승단을 진정으로 외호하기 위해서도 종권과 연결되지 않은 자주적 위상이 필요하다. 출가인이 하나의 승단에 소속되는 것처럼 신도들도 단일한 신도회의 조직에 소속돼야 하고, 그것이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도의 의무와 역할, 그리고 권리가 분명하게 규정돼야만 한다. 신도 개인으로서의 의식과 사명을 지니게 하고, 신도 조직이 바른 위상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기초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다음으로 신행의 차원에서도 재가자를 위한 학습과 수행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출가자에 해당하는 수행과 신행을 그대로 재가자에 요구하는 것은 재가자들을 좌절하게 하고 불교의 주체가 되기를 포기하게 한다. 신도를 위한 학습과 수행의 과정을 새롭게 개발하여 신도들이 진정한 불교의 주체로서, 사부대중의 일원으로 바로 서게 하는 일이 신도 운동의 근본이 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물론 출가 승단이 중심이 되어있는 현실 구조 속에서 이러한 이상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신도운동의 중심 중앙신도회와 종단이 함께 힘을 합하여 이 길로 올바로 나아가는 오늘이 있어야 미래의 건강한 사부대중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 ■성태용(건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귀거래사

청산은 나를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나옹 스님)

어느 교수님과 통화를 했다.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유달리 쾌활한 목소리가 그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는 듯 했다. 업무 이야기를 마무리 할 때 쯤 그는 말했다.

"드디어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름부터는 시골에 가서 살려고 합니다. 고향 쪽에 땅을 조금 확보 했는데 거기 가서 자연과 더불어 사람 사는 맛을 누리며 살아 볼 생각입니다. 거기 가면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 교수님의 밝은 기분은 이미 어느 산골마을의 푸르름을 닮아 있었다. 귀거래사를 지어 부르며 즐거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교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부러울 뿐이라는 말로 축하를 대신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참 재미있는 일 아닌가. 돌아갈 곳이 있어서 즐겁다는 것의 반대쪽을 들여다보라. 우리는 어디론가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도피의 욕망이든 동물적 회귀본능이든 요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론가 돌아가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다. 그 꿈은 삶의 희망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된다. 여기에서 혼탁해 지려는 나를 청정법신으로 고쳐보려는 노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돌아갈 아름다운 곳도 주어지지 않을 테니 말이다. ■임연태(편집 · 취재부장)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하화중생'은 경전에만 있나?

장애인에게는 수계를 해 줄 수 없다? 조계종 게시판에 7월 10일 올라온 '장애인에게 수계를 해 줄 수 없다'를 읽었다. 아직도 산 속에서 중생들의 고단한 삶을 외면하고, 호화로운 삶에 파묻혀 장애인이나 난치병자, 노인 등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일부 스님들이 있다. 선도에 앞장서야 될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은 사회, 복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요원하다.

몇 십 년 동안 기독교계가 독점해온 사회 복지 문화를 스님들이 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기독교와 비교 할 수 없이 적다. 연말 2~3개월 TV를 장식하는 기독교의 자선활동, 복지시설, 요양원 등이 화면을 도배하는 모습을 보면 불교는 일년을 합해도 반의 반도 못 미치는 한심한 실정이다.

부처님시대 계율과 중국에서의 계율과 우리나라의 계율이 다른 줄 알고 있다. 하화중생에는 장애인은 제외되는 것인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을. 절에도 옛날에는 없던 냉난방기가 있어 덥고 추운 것을 모르고, 고급자가용이 있어 호텔에 고급음식을 먹으러 자주 갈 수 있으면서 왜 장애인은 수계를 해 줄 수 없나.

자신들의 계율에 갇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직도 그 모양이니 언제나 하화중생을 할 것인가?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없듯이, 장애 없는 집도 없을 것인데, 절에 시주하는 사람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다.

이제부터라도 불교계 전체가 직접 환자나 장애인 가정을 찾아가 손발을 잡아주고 쌀이나 음식 등을 주면서 위로의 말과 수계를 해 주신다면 한국 사람들은 불교를 다시 볼 것이다. 사자신중충(붓다뉴스)

한국불교 포교부재서 깨어나라

종교의 생명은 신도가 지키는 것이고 그 신도는 포교에 의하여 넓혀지는 것임을 초등학생정도의 상식만 갖고 있어도 불을 보듯 훤한 것이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시자마자 가장 시급히 선언하신 것이 전도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한국불교는 포교부재 기획부재의 기나긴 꿈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의 포교방법을 차제에 벤치마킹해서라도 그 꿈에서 빨리 깨어나야 그나마도 불교가 이 땅에서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총무원 · 교육원 · 포교원 등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통상적 서열에서도 포교원이 가장 뒤에 있다. '전법 사명'을 생각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서무부서인 총무원, 승려 자체교육기관인 교육원이 불교 미래와 백년대계를 걸머져야 할 포교원보다도 위에 두다니 말이 되는가?

포교원의 위상이 이 정도니 포교가 제대로 될리 없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00% 확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 부처님 법이 이 땅에서 살아 날 수 있다. 도원(붓다뉴스)

지하철 휴식처 법안정사의 홍보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에서 내리면 법안정사가 마련한 휴식처가 있다. 나무색으로 꾸며진 벤치와 기둥, 초록 잎사귀들은 자연을 옮겨놓은 것 같아 푸근한 느낌을 준다.

요즘 지하철에서는 사찰 홍보광고를 종종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법안정사가 제공하는 쉼터는 그 어떤 광고보다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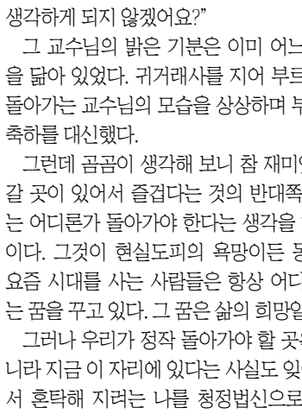
그 자리에 앉아 쉬는 이도 그냥 지나가는 이도 보는 것만으로도 불교의 한 자락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불교에서는 많이 내놔야 한다.

앞으로 사찰들이 법안정사처럼 시민들과 주변 주민들을 배려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불교 포교는 물론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소남(서울시 양천구 목동)

'현대'만평 심 민 섭



일곱 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원통 지음 | 신국판 | 394쪽 | 값 9,600원

이 책이 던지는 여덟 가지 질문

1 아함경에서 설하는 **인수 팔만 사천 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소승경전의 **무상성과 대승경전의 항상성은 어떠한 관계**인가?
3 12연기법의 **무명과 대승불교의 광명사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은 **중생이 부처되는 교설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5 화엄경의 세계는 **실세계**인가? 아니면 **상상의 세계**인가?
6 주역에서 설하는 **선천 · 후천의 개벽사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은 무엇인가?
7 **극락세계**는 진정코 **서방세계**에 있는가?
8 최근에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여덟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미륵불은 한 사람이 성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6불과 당신 스스로를 포함하여 현세 7불의 본말을 밝혔듯이, 미륵이 오실 때도 7불의 처음과 끝을 밝힌다고 하셨는 까닭에 미륵불은 6명의 도통을 이어서 7번째로 완성하심을 스스로 밝히게 되어 있다. 이제 일곱 분의 도통 연원과 의의를 밝히며 비로소 드러나는 진眞 대승불교의 일불승 사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문의 : 해조음 053) 624-5586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Btn 불교TV

2005년 7월 11일!
24시간 방송

불교TV가 7월 11일 부터 24시간 방송을 실시합니다.

이번 24시간 방송을 통해 불교TV는 불교문화의 중심이자
영상포교를 선도하는 방송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더욱 알차고 폭넓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불교TV에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주신
불자여러분께 보답하고 21세기 글로벌시대 발맞추기 위한
24시간 방송은 또 다른 대작불사로 부처님의 정법을
온누리에 펼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시청바랍니다.

▶ 재가불자를 위한 자비수관
화 01:00, 07:45, 14:40, 20:30

▶ 지운스님의 대승기신론
수 01:00, 07:45, 14:40, 20:30
금 07:45 / 일 12:50

▶ 왜 지금 붓다와 노자인가
수 09:20 / 목 02:50
토 13:00, 22:10 / 일 09:20

▶ 자광스님의 원각경 산림법회
수 08:20, 13:00, 19:30
일 15:15

▶ 개국 10주년 법회
화 00:00, 08:20, 13:00, 19:30
수 05:50 / 일 00:35, 20:35

▶ 또 다른 수행 사경
목 09:20, 15:10, 22:10
일 20:00

▶ 조선불교탄압사
월 ~ 토 07:00

▶ 강영숙 원장의 전통예절특강
화 09:20. 15:10, 22:10 / 금 02:30
토 01:00 / 일 10:40



Tel. 02.3270.3300 Fax. 02.3270.3350 www.btn.co.kr

함께 나가요 햇빛 가득한 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외출을 돕는 '부름의 전화' 대장 김정희씨.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장애인들의 '부름'에 행동으로 답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다.

'부름의 전화' 대표

김정희

향기 도반의


민통선 안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한 15㎞걷기 극기훈련 현장. 앞쪽 깃발 든 사람이 김정희 대장.

중증장애인들의 외출 도우미 18년

"아직도 하늘은 파랗구나. 20년 전과 꼭 같이…"

십수 년 전 전신마비 장애 때문에 20년간 골방에 누워 있었던 한 중증 장애인. 그는 20년 만에 쬔 햇볕을 움켜쥐곤 이렇게 말했다.

맛도 있고 냄새도 있고 만지면 두둥실 떠오를 것 같은 형상도 있는 볕. 그는 볕의 시선 사이로 문득문득 보이는 하늘빛을 확인하며 마냥 눈물을 쏟아냈다. 그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음에, 내가 그것을 다시금 마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눈물을 끊임없이 쏟아냈다.

흐르는 구름과 살랑이는 바람마저도 '과거' 속에 묻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현재에 살도록 할 수는 없을까. 장애인의 파란 눈물을 목격한 김정희(68 · 부름의 전화 대장)씨는 '외출이 중증장애인 재활의 시작'이라는 일념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시작했다.

"10~20년, 많게는 40년까지 골방에 갇혀 세상 빛을 보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밖을 나서려는 장애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전화로 자원봉사자를 연결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지요. 그들의 '부름'에 행동으로 답하는 '부름의 전화' 말입니다."

부름의 전화를 창설할 1987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장애인 재가(在家) 복지라는 개념은 전무한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시설을 찾을 수 없는 이들은 집에 틀어박혀 몸과 마음의 병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 지금처럼 엘리베이터가 흔한 것도 아니었고, 휠체어를 탄 채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김 대장은 이러한 현실에 맞서 시설 밖 장애인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계획은 거창했지만 준비된 것은 마음 하나밖에 없었다. 70년대부터 보육원과 양로원을 돕는 봉사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한 그였지만, 장애인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시각 장애인이 길을 걷다 발을 헛디뎌 개천에 빠져 죽은 것을 목격한 것이 계기라면 계기일까. 그 약한 영혼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소리없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본 그는,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평생 길을 찾게 됐다.

그렇게 살아오기를 20여 년. 쥐고 있던 지갑은 밑빠진 독처럼 가벼워졌고 그 성성하던 머리는 하루가 다르게 세어갔다. 그러나 그의 아름다운 외출에 동참하는 이들은 나날이 늘어갔다. 불교방송의 장애인 포교 프로그램인 '그리운 등불하나'를 7년 동안 진행한 덕도 봤다. 장애인을 팔아 돈을 모금한다는 오해가 싫어서 그 흔한 지로용지 하나 발급하지 않았건만, '부름의 전화'에 동참하는 자원봉사자의 수는 4천 명을 훌쩍 넘겼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지금도 '부름의 전화'를 찾는 봉사자와 장애인의 수는 여전하다. 왜일까.

"약을 대신 타다주고, 서류를 대신 발급해 주는 식의 도움은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봉사자들은 그들을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그늘 때문에 스스로 묻어버린 그들의 능력에 새롭게 빛을 주는 것이죠."

보행이 어려운 이들의 다리가 되어 주는 것만이 도움이 아니다. 김 대장은 근육의 움직임이 살아있는 다리를 감지하고 그 약동하는 근육의 핏줄이 된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나도 걸어보겠다'는 발심이다.

김 대장은 나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것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놓지 않도록 한다. 혈관 한 곳에 고여 있었던 피가 철철 흘러 온 몸을 덥히는 것은 단순히 시간 문제라는 믿음, 그것이 '부름의 전화'가 장애인들에게 전한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

그러나 귀한 선물에 대한 보답이 그리 달지는 않았다. "봉사자들의 삶이 아름답고 거룩하기만 할 것 같습니까? 9번 잘하다가도 1번의 실수가 있으면 금세 싫은 소리를 듣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으면서도 어느 병원에 가는 것인지 궁금해 하면 언짢아하며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연중무휴로 이뤄지는 파송활동 이외에 장애극복 훈련을 별도로 실시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김 대장은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을 이끌고 매달 농촌을 찾아 장애인을 위한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땅콩을 캐고 고구마 감자를 심는 등의 농사일을 통해 장애인들은 성취를 맛본다. 항상 갈등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원봉사자들의 삶을 다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안마 침술 등으로 사회 환원 기회도 제공
"능력 일깨워 주는게 진정한 도움이죠"
보육원 양로원 봉사 등 '나눔의 삶' 외길

장애인들의 사회 환원 문제도 김 대장에겐 넘길 수 없는 과제였다. 그는 농한기에 농촌 마을회관을 찾아 장애인들이 안마와 침술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침술 현장에서 자신들에게 '장애인'이 아닌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붙는 것을 보고 대단한 자긍심을 느껴요. 봉사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귀한 성취가 아닐까요."

결혼도 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내달린 50년. 그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리도 열심히 달려왔을까. "산이 거기 있으니까 갈 뿐이죠." 그렇다면 단체도 후원회원들의 후원금에 의지해서 가까스로 꾸리는데 개인의 생활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일까. "스님들이 먹을거리 입을거리 걱정하는 것 봤나요? 걸망지고 길을 나서면 그 어디에선가 심신을 추스릴 곳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 그가 이번 달 말에는 민통선 안에 들어가 장애인들과 함께 15km걷기 극기훈련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벌써 5회째 진행되는 행사다. 무더운 날 뙤약볕 아래에서 진행되는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를 넘은 도전'이 될 것이란다. 극복할 무엇이 있어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 생(生)이라며 환하게 웃는 그에게 오늘도 전화가 따르릉 걸려온다. "이비인후과를 같이 갈 외출 도우미가 필요하시다구요?"

글=강신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모 래 만 다 라 특 별 전

달라이라마 칠순기념 및 세계평화기원 모래만다라 특별전

1차 전시 – 법련사 불일미술관 (서울 종로구 사간동 121-1)

주최: 달라이라마 동북아사무소, 현대불교신문사

날짜	프로그램명
7월 15일 오후 2시	1. 달라이라마 동북아 사무소 개소식 기념 및 전시회 오프닝 2. 규토 스님 특별예불의식 (국내 최초 시연) 3. 기념 리셉션
7월 17일 오후 2시	1. 현장(전남 보성 대원사 주지) 스님 특별법문 2. 규토 스님 특별예불의식
7월 19일 오전/오후 (2회)	김규현 거사 (한국티베트문화연구소장) 슬라이드 강연
7월 21일 오후 2시	1. 회향식 (전시기간 중 만들었던 만다라를 모두 강물에 흘려보내는 의식, 空) 2. 회향 리셉션
상설 합동전시	희운 스님 연꽃그림전

2차 전시 – 봉은사 (서울 강남 삼성동 73)

주최: 달라이라마 동북아사무소, 현대불교신문사, 봉은사

날짜	프로그램명
7월 25일	전시회 오프닝, 규토 특별예불의식
7월 29일	회향식 (만다라 회향의식) 규토 특별예불의식

행사기간 상설 합동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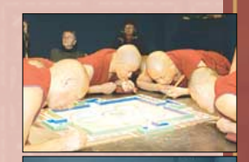
희운 스님 연꽃 그림전
일시 7월 15일(금요일) ~ 7월 21일(목요일)
장소 법련사 불일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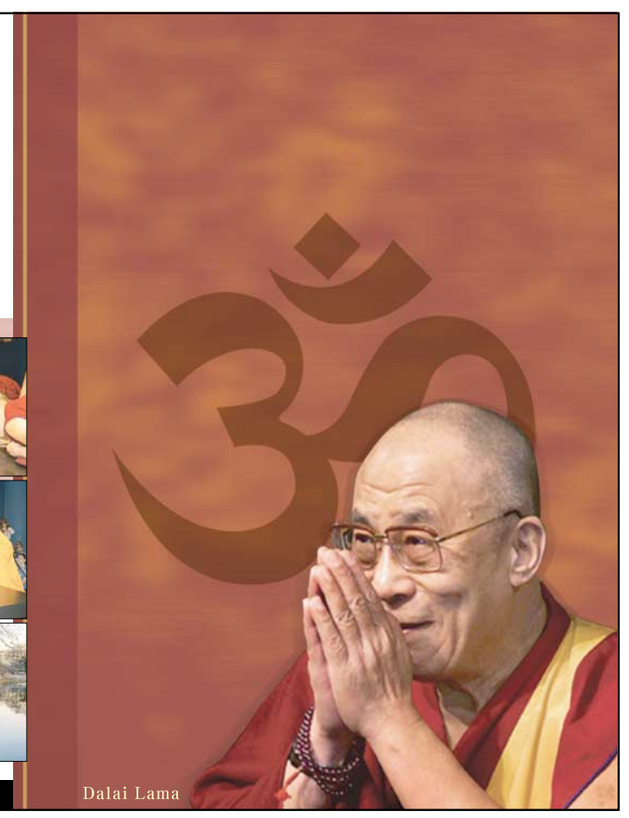
희운 스님 약력
1992 동양화가 석당 우희춘 선생님 사사
1999 채색화 한일교류전
2000 채색화 초대전
세종문화회관 국제서화작가 초대전(예술상 수상)
창석회 정기전시회 등 다수 전시

특별강연

다정 김규현 거사 티베트 슬라이드 강연
일시 7월 18일(월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2회
장소 법련사 불일미술관

다정 김규현 거사 약력
현 티베트문화연구소장.
성균관대학교와 해인불교 전문강원을 나와
경중앙미술대학에서 수인목판화(水印木版畵)를 수학.
라싸(拉薩)의 티베트대학에서 만다라와 탕카를 연구.
저서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 〈티베트 역사산책〉 등





Dalai Lama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Tel(02)2004-8200 Fax(02)732-8883 홈페이지 http://hompy.buddhapia.com/homepy/gyutomonks

나의 수행법

이미옥 (上)

학창시절, '우리는 누구나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으며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이 말이 좋아 언젠가는 불교를 공부해 보리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마음뿐이었다. 바쁜 일상에 묻혀 세월을 보내고만 있었다.



그러다가 불혹을 넘긴 어느 날, 우연히 아는 분을 따라 의왕시에 있는 정림사에 가게 됐다. 정림사는 해인사 백련암 분원으로 유난히 절을 많이 하고 능엄주와 아비라 기도로 수행하는 절이었다. 당시 운동부족으로 소화불량에 시달리던 난, 절을 하면 운동이 될 것 같았다.

불교 서적을 읽는 것도 좋았지만, 정림사 주지 일행 스님과 1주일에 한 번씩 운서주굉 스님이 쓰신 <죽창수필>을 가지고 공부

3천배 끝내고 '왜 절을 해야하나' 갈등
성철 스님이 일러준 아비라 기도 시작

한 것이 불교 전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리고 스님께 기도 일과를 받아 매일 절과 능엄주 독송을 했다. 그런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불교공부 하는 건 재미있는데, 절을 하고 있으면 이 절을 왜 해야 하지? 이 시간에 다른 걸 하면 훨씬 유용할 텐데'라는 생각이 끊이질 않았다.

게다가 정림사는 3천배나 아비라 기도를 온전히 해야 법명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수행이 엄격했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다. '이왕 시작했으니 법명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아비라 기도를 열심히 했다.

절에 다닌 지 6개월 만에 3천배를 했다. 그러나 3천배를 한 후 갈등은 더 심해졌다. 그 전엔 '3천배를 하고 나면 무엇이 달라질까?'라는 기대가 절하는 동기와 목적이 돼주었는데 정작 3천배를 하고 나니 갈등이 더 심해졌다. '왜 절을 해야 하나?'

그러던 중, 아비라 기도를 하게 됐다. 아비라 기도란 중국 당대(唐代)의 총림 수행법을 성철 스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스님은 한국전쟁 후 고통과 불행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과 악업은 과거 생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지어온 업장의 과보'라고 하시며 업장을 참회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보도록 '예불대참회(108배)'와 새로 음역한 '능엄주'를 하게 하면서 아비라 기도를 하도록 일러주셨다고 한다.

아비라 기도 순서는 먼저 예불참회문에 맞춰 108배를 하고, 두 손을 합장한 자세에서 무릎을 바닥에 붙여 세우고 허리를 바르고 꼿꼿하게 세우는 자세인 장궤합장을 하고 '옴 아비라 훔 캄 스바하'라는 비로자나 법신진언을 30분간 한다. 그리고 대불정능엄신주와 능엄주 회향게를 독송한다. 이것을 소위 아비라 기도의 '1회'라고 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것을 3박 4일 동안 합숙하며 24회를 하게 된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아비라 기도를 대략 3개월 주기로 1년에 네 번 하라고 하신 것이다.

선배 보살들로부터 아비라 기도가 가장 힘든 기도라 들어 왔지만, 난 그 전에 2회씩 이틀간 동참해 본 적이 있었는데 별로 힘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정도 갖고 힘들다고 한 것이라면 난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들었기에 아비라 기도 시작하는 날, 제일 앞줄에 자리 잡고서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아비라 기도는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법신진언으로 가꿨다. 스님은 "기도로 자신을 초월하라"고 말했지만 처음 해본 아비라 기도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겉돌기만 했다. (계속) ■ 주부



'수행법 연구' 어떤 내용 담겨있나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10가지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수행법 연구>가 최근 조계종 불학연구소(소장 화랑)에서 발간됐다(본지 534호 8면 보도). 그동안 명확한 교학적 근거 없이 지도법사에 따라 들쑥날쑥하던 제수행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행법 연구> 발간의 가치는 크다. 권위 있는 불교계 수행전문가들이 저술해 종단 차원에서 엮은 <수행법연구>를 살펴보자.

수행의 원리와 경전 근거 제시

#수행체계연구의 필요성

2002년 결성된 수행체계 실무연구위원회는 간화선을 비롯한 조계종단의 체계적인 수행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력으로 수행법 지침서 발간 작업에 착수했다. 기복불교의 습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90년대 초부터 불교교양대학과 종단개혁의 힘으로 한국불교는 교학적 밑바탕을 뛰어넘어 실제 수행을 통한 깨달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편찬위는 간화선과 제수행법의 유기적 관계를 밝히고 보다 체계적 지침을 필요로 하는 실수행자들의 요구에 맞춰 종단차원의 통일된 수행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이 실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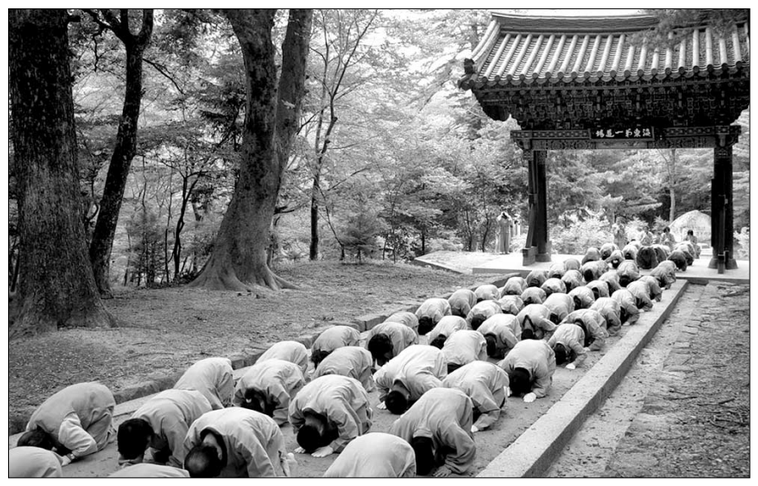
<수행법 연구>에는 △염불 △주력 △절 △간경 △사경 △사불 △계율 · 참회 △대승불교의 지관 수행법 △위빠사나 △티베트불교 수행법에 이르기 까지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과 티베트불교수행법처럼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불자들의 신행활동과 긴밀한 연관을 가진 수행법 등도 함께 실렸다.

불자들의 수행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 만큼 어떤 수행법으로 어떻게 수행하고 공부하며, 교화해야할지 혼란스러워 하는 이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부 스님들에 의해 유행하고는 있지만 경전적 근거가 미약했던 부분을 원전에 맞게 꼼꼼히 설명했으며, 일부 경전 상에만 나타나있고 실체가 없는 수행법은 담당 연구위원이 새롭게 연구해 대안을 제시한 것도 눈길을 끈다.

대중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수행법들을 중심으로 책의 내용을 살펴본다.

▲**염불**(중앙승가대 교수 태원 스님) 원시불교의 염불수행과 <정토경>의 염불수행법 등에서 역사적 · 경전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칭명염불, 관상염불, 오종염불, 사종염불 등 다양한 종류의 염불이 있다. 특히 염불수행자의 마음자세는 바른 신심, 굳은 서원, 지계염불, 정심염불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염불 수행에서 주의해야할 유의점으로 장소를 가리지 않되, 장소에 따라 염불소리를 달리할 것, 6방 부처님의 방향에 맞게 그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염불할 것, 목탁이나 요령의 박자를 맞출 것, 잡념 없이 바른 마음과 몸가짐으로 염불의 본원력을 믿고 열심히 염 할 것 등을 강조했다. 이러한 염불수행의 공덕으로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효과가 빠르며, 현생에 많은 공덕을 얻고, 철저히 하심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행의 원리와 경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알고해야' 수행이 깊어진다는 의미다. 사진은 해인사 수련회에 동참한 재가자들의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모습. 현대불교자료사진

대표적인 10가지 수행법 체계적 정리
경전 바탕으로 이론 보완 · 實修 쉽게

▲**주력**(심재관 강릉대 강사) 주력은 특정한 문장이나 음절의 형태로 표현되는 언어의 초월적인 힘을 전제로 하는 수행법이다. 천수다라니와 <천수경> 능엄주와 <수릉엄경> 육자진언과 <육자대명왕경> 등의 경전적 근거도 분명하다.

실제 진언수행을 시작하는 수행자가 먼저 부딪치는 문제는 진언(다라니)을 외우는 것. 무수한 독송으로 다라니를 외울 수도 있겠지만 속독에서 암기의 단계로 넘어갈 때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읽어나갈 것을 권한다. 이렇게 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능엄주 암기도 집중의 정도에 따라 수 주 만에 가능할 수 있다.

일단 외우는 단계를 지나면 호흡과 생각, 소리 등을 고려해 수행에 임해야 한다. 주력수행은 어떤 수행보다도 짧은 시간에 강한 체험을 얻을 수 있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수행 중에 나타나는 경계를 만나기 쉬워 어른 스님들의 지도가 필수적이다.

▲**절**(심준보 백화도량 상임법사) "합장하고 무릎을 꿇어 않아 머리를 숙여 발 아래로 절하는 것이 최고의 공양<대정장(大正藏)>"이라고 했을 정도로 불교에서 절은 최고의 예(禮)면서 대표적 수행법이다.

절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심해야한다. 밝은 마음과 표정이 필수다. 흔히 절을 하다보면 방석이 움직이는데 이럴 때 방석을 발로 밀어서 바로 잡으려 하면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다. 방석은 반드시 손으로 제자리에 놓고 여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집에서 혼자서 또는 2~3명이 절을 할 경우에도 주변을 정돈하고 향을 피워 마음을 다지고 삼귀의, 입정, 절수행, 사홍서원 순서로 간단한 의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책에서는 절 할 때의 호흡법, 수 헤아리는 법, 참회하는 법, 심신을 관하는 법, 화두 드는 법 등을 사진과 함께 실었다.

▲**간경**(동국대 객원교수 정각 스님 · 고명섭 조계종 포교원 과장) 간경은 경전을 읽음으로서 삼업(몸 · 입 · 뜻)을 청정히 하고 삼매를 성취하며 왕생을 얻는 수행이다. 그러나 의미도 모른 채 단순히 입으로만 수 천, 수 만 번 독송한다고 공덕이 쌓이는 것은 아니다. 경전의 의미를 간(看)하여 내 것으로 삼아 자유자재할 수 있어야 바른 수행이 된다.

간경 수행의 기본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해 경전의 내용이 내 마음 속에 그대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또 내 마음의 평화와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우고 내 앞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독송해야 한다. 이밖에도 독송할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가부좌 또는 장궤합장한 자세 무릎 꿇은 자세로 단전에 힘을 주어 힘찬 목소리로 읽어야한다. 규칙적인 호흡과 리듬을 지키면 간경삼매에 몰입되는 경지를 경험할 수 있다.

▲**사경**(김경호 사경연구회장) 사경은 개인적 수행을 넘어 문자를 이용해 불교 교리를 전파하는 가장 큰 힘이 됐다. 사경수행의 기초는 '조식(調食)' '조수(調睡)' '조신(調身)' '조식(調息)' '조심(調心)'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사경수행을 위해서는 위에 부담을 주는 자극적 음식을 삼가해야한다. 음식에 따라 몸과 마음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안정된 수면은 수행의 집중도를 높여준다. 자신의 수행과 더불어 부처님 법신불을 조성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상의 몸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필수다. 모든 수행법이 그렇듯 안정된 호흡역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처음과 끝까지 순일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조복받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수행에 임해야 한다.

다른 수행법에 비해 기능적 요소가 많아 재료를 선택하고 배접, 보관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지도가 필수적이다.

▲**위빠사나**(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 · 임승택 경북대 교수 · 김재성 경전연구소장) 최근 남방불교의 관법명상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위빠사나 수행은 마하시 수행법과 고엔카 수행법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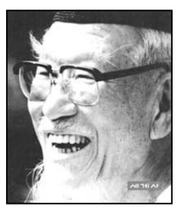
마하시 위빠사나는 선정수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대상을 관찰하는 순수 위빠사나다. 입문자가 마음집중의 단계를 거치면 좌선 행선 일상행동의 관찰 같은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간다.

반면 고엔카 수행법은 사마타(마음집중)을 먼저 닦은 후 위빠사나로 들어가는 수행법이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사마타 수행, 감각을 관찰 위빠사나 수행, 자관(慈觀)으로 자애의 마음을 회향하는 수행으로 계정혜 삼학 수행체계를 따른다. 실제 수행법은 10일 코스로 제공된다.

한국에서 위빠사나는 아직 수행지도자가 부족하고 수행법이 마하시 위빠사나로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 안내



참선은 인생관을 바로 깨닫게 하는 최상승 법이요 철학적인 법이요 과학적인 법이다. 현대인들이 물질 문명에 현혹이 되어 날뛰고 있지마는 물질 문명으로서는 거룩한 인생을 깨달을 수 없다는 길 알아야 합니다. 사람 몸 한번 받는 인연은 허공에서 겨자씨가 떨어져서 바늘 끝에 꽂히기 보다 어려운 인연인데 人生이 자기 인생을 느끼지 못하면 어찌 自信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21세기의 宇宙의 主人公은 인생이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宇宙의 조물주는 인생이라야 됩니다. 地球村의 주인공인 인생을 창조하는 大道는 오직 參禪입니다. 대중은 어리석은 迷惑에서 벗어나서 生死에 자유인이 되기를 발원하여 大發心하여 금번 보림사 보림선원 칠일 용맹정진에 동참하여 칠일정진으로 見性悟道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용맹정진 기간중에는 백봉 김기추거사님의 최상승 선법문을 교재로 하고 법납 60년 수행하고 제방 선지식과 탁마를 하신 보림사 묵산스님께서 직접 지도하십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5년 7월 27일(수) 오후 8시부터
2004년 8월 2일(화) 오전 7시까지
■ 장 소 :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1번지) 02)914-6187
■ 회 비 : 일반 8만원
■ 연락처 및 문의처 : 017)332-4096 / 02)914-6187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세면도구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돈암역에서 하차 143, 162, 1012, 1013번 정릉 청수장행 버스 승차, 산장아파트 앞 하차
(돈암역에서 약 20분 소요)

조계종 보 림 사 회주 묵 산 합장

간(肝)이 염간 방간 간염 지간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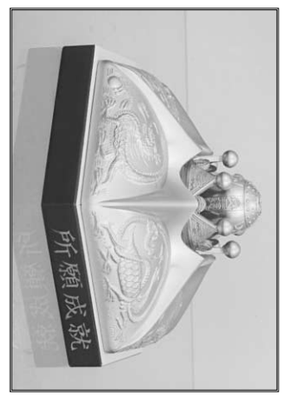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옮겨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 051)865-9933
氣당어리 복덩어리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本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샨티대학원대학교 김병채 교수(왼쪽)가 명상전문가 및 학생들과 함께 야외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호원대학교는 (사)한국요가문화협회와 함께 요가전공 과정을 꾸리고 있다. 사진은 정강주협회장(오른쪽)과 학생들의 수업 현장.

명상·요가 관련학과 설립 붐

대중적 인기 끌며 전문화·체계화 필요성 제기
호원대, 4년제 대학 최초 요가학과 내년 신설
샨티대학원대학교, 종교 초월 영성상담학과 눈길

요가나 명상 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규 대학·대학원 과정에서 관련 전공 커리큘럼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작년 한 해 건강지킴의 수단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린 심신수련문화를 전문화·체계화 하고자하는 시도다.

현재 정규 대학 및 대학원에서 요가 전공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략 3군데.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의 요가학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의 요가치료학 전공, 춘해대학교 요가학과 등이 그것이다. 이들 학과 운영이 최근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요가 관련 전공과정을 추가로 신설하려는 학교가 늘고 있다.

또한 명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명상대학원도 올 가을 강좌를 시작한다. 이들 움직임을 조명해 본다.

#요가전공

호원대학교(063-450-7114)는 요가전공 과정을 본격적으로 개설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호원대는 올해 초 산업체 위탁교육 과정에 요가전공 과정을 마련했다. 산업체위탁교육이란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편입학 기회를 제공해 4년제 대학교 졸업생과 동일한 자격의 정규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호원대측은 스포츠경호학부 내에 요가전공과정을 설립하고 (사)한국요가문화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요가전문인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원정혜 박사, 정강주 한국요가문화협회장 등을 교수로 초빙한 것이 특징.

특히 2006년부터는 건강복지대학에 요가학과를 신설, 4년제 대학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요가전공 과정을 운영하기로 해 요가수행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동방대학원대학교(02-745-2140)는 이번 가을학기부터 요가명상학 전공을 개설, 요가전문가 양성을 꾀하기로 했다. 특히 요가철학의 거장 정태혁 박사 등을 초빙해 요가철학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불교중론학연구, 불교유식학연구, 청정도론연구 등의 전공선택 과정과 더불어 요가수트라, 요가우파니샤드, 하타요가경전, 요가생리학, 요가심리학 등의 과목 등이 마련돼 있다.

#명상전공

경남 창원에서는 올 가을 샨티대학원대학교(055-299-6379)가 첫 수업을 시작한다.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한국 라마나 마하리쉬 센터) 부설인 샨티대학원대학교는 대안학교 형식의 순수 영성대학원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종교를 초월한' 명상 대학원이다.

창원대학교 교수이자 한국 마하리쉬 센터 한국 지부장인 김병채 교수가 이끄는 대학원 과정에는 베단타학과, 요가학과, 초월·영성상담학과 등이 준비돼 있다.

특히 베단타학과의 경우 인도의 고대 경전과 베단타(인도의 6파 철학 중 가장 유력한 학파) 성자들의 가르침을 주로 다룰 예정이며, 교수에 따라 불교 이론과의 접목도 기대되고 있다. 요가학과에서는 요가경전에 제시된 수행법을 습득하는 것을 중심으로, 초월영성상담학과는 칼라에너지·차크라·만다라·에니어그램 등을 상담에 적용하는 이론과 제반 기법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샨티대학원대학교측은 "현재 정식 인가를 받기 위해 모든 시설요건을 보완하고 있는 중"이라며 "정식학위는 정식인가 후 입학생에 한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동서심리상담연구소에서는 참나상담대학원 과정을 마련, 초월 영성상담전공 과정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교육부에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대학원이지만, 상담분야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상담대안대학원이라 눈길을 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에니어그램 연수

명상상담연구원(원장 인경스님)은 7월 20~22일, 8월 3~5일 서울 목우선원에서 명상상담 에니어그램 연수를 실시한다. 성격에 대한 이해,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치유할 수 있는 명상상담기법 학습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임승택 교수(경북대)의 고집멸도 강의, 박희석 교수(원광대)의 심리극 이론과 실제에 대한 강연 등도 예정돼 있다. (02)2236-5306

한국요가硏 지도자대학

한국요가연합회(회장 신석규)는 단체에 소속된 요가원장 회원을 대상으로 재교육 강좌 '지도자대학'을 진행한다. 한 달에 한번 1박 2일 과정은 8월 27일 개강, 13개월 동안 이어진다.

인도철학, 요가철학, 요가생리학, 하타요가를 포함한 요가이론 강의와 함께 요가 교수법, 요가원 경영 관리와 마케팅 등의 요가지도와 관련한 실질적인 강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형록 교수(춘해대 요가과), 무수바룰(원광디지털대학 요가강사) 등 요가전문가 10여명이 강사로 나선다. (02)3676-7071

쿤달리니 수련생 모집

한국요가연수원(원장 이태영)은 요가나 관련 학문을 2년 이상 수학한 이들을 대상으로 쿤달리니 요가를 지도받을 수련생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6개월이며, 수업은 9월 1일부터 토·일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각반 40명 정원 선착순 마감. (02)888-5087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26> 절집의 또다른 보배 '동자승'

흔히들 '동진출가자'로 불리는 스님네들 가운데 중노릇 반듯하게 하는 이들을 보면 정말로 '승보(僧寶)'라는 말이 어울린다. 진짜 '인간문화재 승려부문'이라도 만들어 국가적으로도 보존할만한 무형문화재 그 자체라는 느낌이 든다. 절집의 풍습과 역사를 온몸으로 어른들에게 배우고 체현해내며 염불 간경 좌선 불사 등에서부터 시시콜콜한 것까지 어느 것 하나 기울어짐 없이 여법하게 소화해낸다.

하지만 이제 세월이 갈수록 이런 인재들은 보기드물어질 것이다. 한 집안에 아들 혹은 딸 하나씩밖에 낳지 않으니 어느 가문인들 선뜻 독자(獨子)를 절집에 내놓겠는가. 티베트에서는 싹수 있는 '놈'을 '린포체'라고 하여 어릴 때부터 지도자로 특별히 키운다고 한다. 이런 인재들이 세계불교화의 주축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선어록에 나오는 꼬마 사미승 내지 동자승은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언제든지 천진불(天眞佛)로 진입할 수 있는 천재들이기도 하다. 구지 선사와 똑같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는 흉내를 내던 동자승도 마찬가지다.

구지 선사의 암자에 선사를 시봉하는 한 동자승이 있었다.

동자승은 항상 납자들이 구지 선사에게 와서 묻고 대답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보았다. 그런데 스승은 누가오든지 늘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법문만 하는 것이었다. 서당개 삼년에 풍월을 읊는다고 이 동자승도 손가락을 세우는 선법(禪法)을 배우게 되었다. 드디어 스승이 출타하여 자리를 비울 때는 찾아온 납자를 자기가 손가락 법문으로 제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것을 지켜보던 어떤 납자가 구지 선사에게 말했다.

"선사시여! 저 동자승은 참으로 희유(稀有)합니다. 그도 불법을 알아서 누구나가 동자승에게 물으면 화상처럼 손가락만 세웁니다." 구지 선사가 이 말을 듣고 난 뒤 어느 날 가만히 칼 한 자루를 소매에 넣고는 동자를 불렀다.

"가까이 오너라. 듣건대 너도 불법을 안다는데 사실이냐?"

"네! 그렇습니다. 스승님."

"어떤 것이 불법인고?"

이에 동자승은 자랑스럽게 스승이 평소 하던 대로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손가락을 세우자마자 선사는 칼로 그 손가락을 끊어버렸다. 동자는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갔다. 이에 선사가 애틋한 목소리로 동자를 부르니 도망가다 말고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돌렸다.

"어떤 것이 불법인고?" 동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을 세웠다. 그러나 손가락이 보이지 않자 이에 크게 깨쳤다.



엄지손 세우고 구지 선사 흉내내던 동자승
스승에게 손가락 잘리고 그 자리서 깨쳐

이제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무렵이나 돼야 동자승을 구경할 수 있는 시절이 되었다. 그것도 이벤트의 하나인지라 단기출가 형식으로 데리고 있다가 행사를 마치고나면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해마다 이런 동자승 행사를 하는 사찰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범불교집안의 '성골' 내지는 '진골' 출신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 이후에도 서로 묶어주고 또 기수별로 이들을 위한 정기적 모임을 만들고 출가의 인연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이제 모두가 독자인 가정이 대세이다보니 누가 출가하여 이 불법문중을 지켜갈지 그것도 걱정이다. 앉아서 출가자를 기다리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다. 그래도 현재 출가자들중에는 장남과 독자가 생각보다 많은걸 보면 그것도 아이러니다. 수행생활이 주는 매력은 집안걱정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반증일까?

그런데도 종단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어른들께서 '실버타운 촌장'이나 하실 말씀인 출가연령한계 40세 조항도 없애야 한다고 한다니 한편으론 종단백년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번복하는 것 같아 참으로 우려스럽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 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가락동 · 로데오거리 · 문정역 200M · 문정1동 동사무소 · 대한미륵창운회 유불선천기도장 · 성남방향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53)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무지역무득, 이무소득고(無智亦無得, 以無所得故)

돈교는 불교에 물든 사람을 위한 해독제

돈교의 설파 이후, 우리는 아득해집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고,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깨우친 바는 다만, 그동안 우리가 문제를 잘못 설정했다는 것, 그래서 잘못된 해결책을 더듬으며 고전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을 일깨워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그것보다 소중한 가르침이 다시 없습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해결책은 문제를 바로 파악하고,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두 관문

우리가 문제를 잘못 설정했다는 것이 대체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하나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밖에 있다'는 통념입니다. 외적 조건이 달라지면 나는 불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 내가 행복해지려면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는 강박이 그 하나입니다.

불교는 이 무의식적 전제를 뒤집는다는 점에서 혁명적입니다.

불교는 행복의 주관적 차원에 주목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심(唯心)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의 유심(唯心)의 철학을 다시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이미 다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 행복을 가로막는 방해물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 지점을 이해하는 것이 첫번째 관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전적으로 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 우리는 바깥을 돌아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 문제를 다들 밖에 설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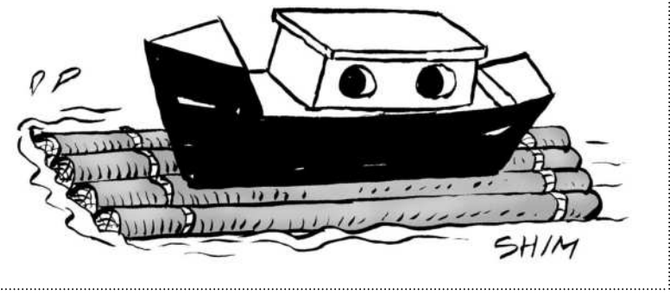
2) 이 지점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두번째 관문에 봉착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내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리 내부의 본래 행복을 되찾을 것이냐"하는 방법(道)에 관한 것입니다. 첫번째가 불교에 입문하기 전의 문제라면, 두번째는 입문 이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예측과는 달리 매우 다양합니다. 그것을 "부처님의 약상자에는 수많은 약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불교의 역사는 그 길에 이르기 위한 수많은 실험과 논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그것은 이르고자 하는 목표에 가까이 그를 데려다 줄 것입니다. 각자의 근기에 따라, 개인적 기질과 문화적 풍토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기 불교가 있고, 발전된 불교가 있습니다. 소승이 있고, 대승이 있으며, 중국의 선과 티베트의 불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전통불교와 더불어 현대에 들어와서 유럽과 미주 등지에 새로운 불교 운동이 실험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들 다양한 대소(大小), 돈점(頓漸)의 불교 가운데 어느 것이 어느 하나를 부정하거나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화엄의 웅대한 불교와 선의 활발발한 불교와 마찬가지로, 얕고 천근한 불교의 가르침 또한 귀하디 귀한 가르침입니다.

스스로를 부정하여 위대해진 불교

지금까지의 강의에서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이 가운데 대승과 선의 길입니다. 이 길의 특징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를테면 세속에 물든 사람을 위한 가르침이라기보다, 불교에 물든(?) 사람을 위한 처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조차, 아니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불교의 근본정신에 위배될 가능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그 점을 오랜 경험에 의해 분명히, 어느 종교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치료하는 해독제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중관의 공(空)에서 시작하여, 화엄의 법계(法界), 그리고 선의 파천황(破天荒)으로 이어지는 공통의 정신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불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 법음(法音)을 알아듣지 못해서 탈이지, 불교에 들어선 사람, 불교를 깊이 믿는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 중독된 사람의 증상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불교가 귀하다고, 그 금가루를 눈에 넣는 어리석음이 그 하나입니다. 불교, 그 위대한 가르침은 궁극이 아니고 방편입니다. 그 뗏목은 <금강경>이 일러주듯이 강을 건너는 도구일 뿐, 짊어다니고 다녀야 할 신전이 아닙니다. 불교가 신전이 될 때, 그것은 또 다른 도그마가 되어, 나와 남을 구속하고 타락시킬 것입니다. 이 부자유와 예속은 불교가 무엇보다 타기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그 인습의 도그마를 깨뜨리지 않고는 진정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고구정녕 가르칩니다. 나는 이것이 불교를 다른 세계종교나 위대한 철학과 구분해주는 근본적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불교는 마침내 자신이 세운 종교의 푯대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파천황을 연출합니다. 그 우상타파의 정신이 단하로 하여금 목불을 태우게 했고, 임제로 하여금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이런 선언을 파괴적 부정적으로 읽어서는 천만 불가합니다. 불교는 이 자기부정의 정신으로하여 역사를 통해 불가사의한 포용력을 과시했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한 평화의 철학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불교도 교단의 편협성을 벗어나야 다른 종교와 대화도 하고, 세계의 불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

2) 아니, 이보다 더 심각한 증상이 있습니다. 불교에 중독된 사람들의 보다 심각한 증상은 불교가 모종의 힘과 권력을 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깨달음이란 아무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독특한 엽기적인 수련을 필요로 하며, 그 상승의 어느 순간, 섬광처럼 다가오는 모종의 경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는 보통사람들보다 더 '위대해지고', 더 '강한 힘'을 갖게 되리라"는 무의식적 기대로 일생을 이 일대사 타파에 걸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봅시다. 이 또한 위태롭고 무모한 욕심 아닙니까. 불교가 그렇게도 타파해야 한다는 욕망을 지금 수행자들은 불교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병을 해독하는 장치가 바로 돈교(頓敎)입니다. 돈교는 단도직입으로, "깨달음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돈교는 그것이 미리, 누구에게나 성취되어 있으므로 찾거나 얻을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며, 그 새삼스런 자각으로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평상심을 되찾는 것은 아무 기특(奇特)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거기서 무슨 권력을 얻을 일이 있겠으며, 무슨 남다른 권위를 행사할 것입니까. 불교에 물든 사람들은 여기서,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나가면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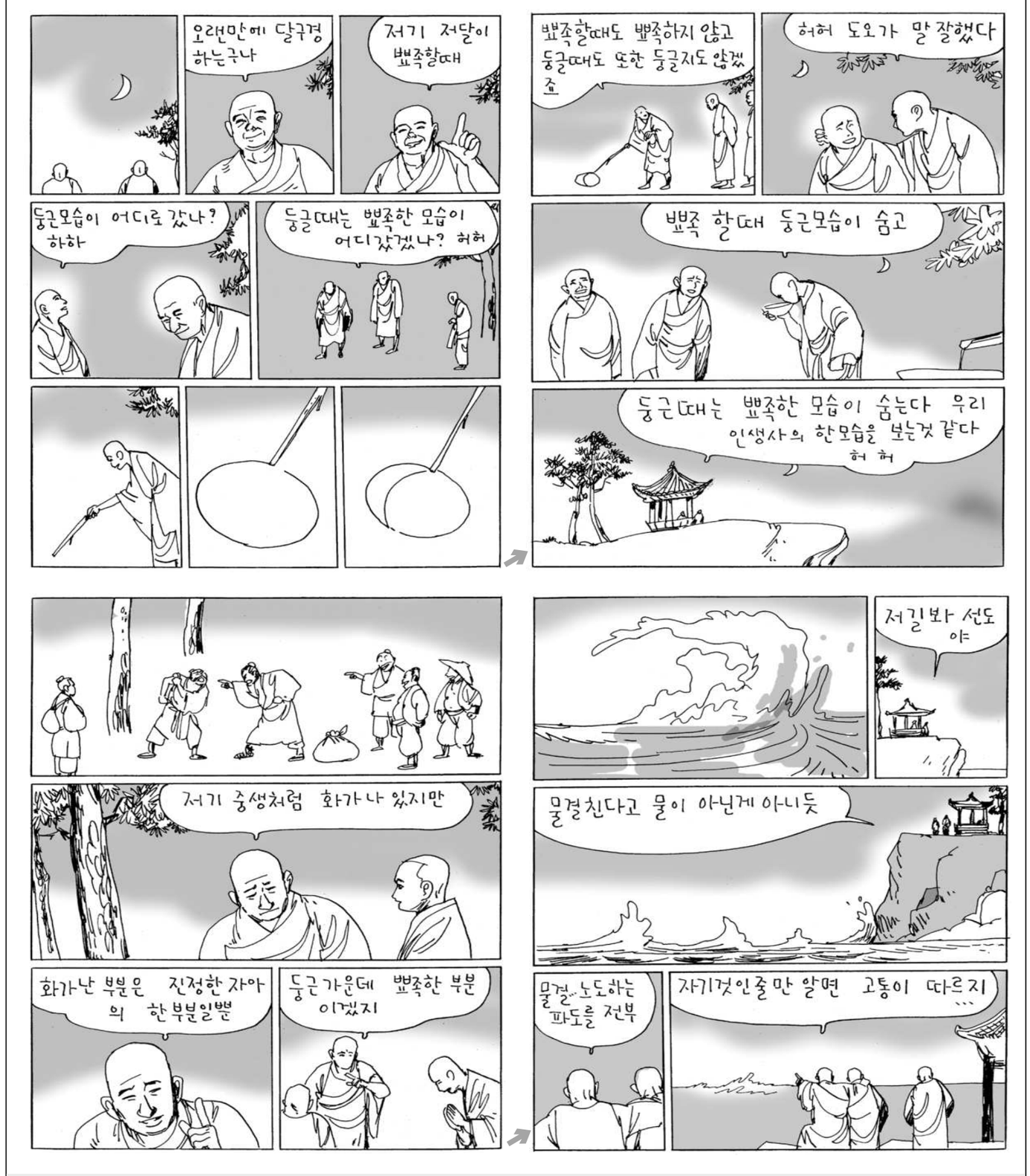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가 찾은 것은 다만 자신의 뒤뚱거리던 평상심일 뿐이었으나, 그러나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다시 있겠습니까. 그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되, 그는 진정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보물을 쓸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따라…

⑮ 선도선사의 '달'

조태호



석실선도(石室善道 ; ?~?): 당대 스님으로 석두희천(石頭希遷. 700~790)의 제자.

네티즌 교리문답

이심전심(以心傳心)이 궁금해요

문 흔히 연애할 때, 이심전심이 돼야 연애를 잘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통했다는 말일 텐데. 그런데 이 말이 불교용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연애초자)

답 1 : 부처님과 가섭존자의 삼처전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뜻이 통한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다고 할 때 "이심전심이지"라는 말을 씁니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서로 뜻이 통할 때도 "이심전심이야"라고 합니다. 흔한 말로 '척하면 알았을 때' 도 '이심전심' 이라고 하지요. 문자가 아닌 마음으로 전한다 해서 이심전심(以心傳心)은 불립문자(不立文字) 언어도단(言語道斷), 그리고 직지인심(直指人心)이 수반된다. 교외별전(敎外別傳)이라고도 합니다.(불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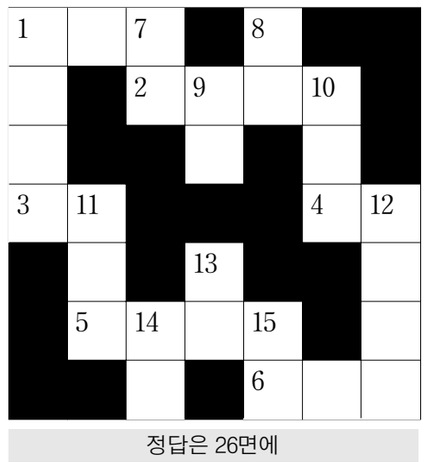
답 2 : 연애초자님, 그럼 무엇을 글도 없이 말도 없이 타인의 마음속에 전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기록이 부처님과 가섭존자 사이에 있었던 염화시중(拈花示衆)의 미소를 비롯한 삼처전심(三處傳心)입니다.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던 부처님께서 아무 말 없이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했는데 가섭존자만이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빙그레 웃어 보였지요. 두 번째 이심전심은 부처님께서 죽림정사 다자탑에서 설법하시던 중 남루한 차림으로 찾아와 대중들이 경멸하는 가섭존자에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당신이 앉아 있던 자리의 반을 가섭에게 내어 주십니다. 마음으로 아는 사람은 가섭과 부처님이 분별되지 않음을 본 것이죠. '다자탑전 반분좌(多子塔前 半分座)' 의 이심전심입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찾아온 가섭에게 관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인 일입니다. '사라쌍수하 곽시쌍부(娑羅雙樹下槨示雙趺)' 라고 합니다. 굳이 말이 필요 없는 사이, 상대의 의중을 헤아려 공감할 수 있을 때 이심전심으로 마음의 화합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연애고수)

답 3 : 요즈음 우리 사회에 이 마음(心)을 일컫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을 일컫는 '노심(盧心)' 등이 그 대표라고 하겠지요. 눈치 빠른 정치인들은 그 '노심' 을 파악하느라 정말로 헤아려야 할 민심(民心)은 안중에도 없다보니 정치며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민심과 '이심전심' 이 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민심)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가로 1. 한국어는 '우랄 ○○○' 어족 2. 일정한 절차에 따라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화된 헌법 3. 조선 여형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MBC 드라마의 제목 4.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는 스님 5. '슬퍼도 슬픔을 표현하지 않다'는 사자성어 6. 경도 영도에서 180도까지 이르는 지구의 서쪽 부분.

정답은 26면에

세로 1. 오사마 빈 라덴이 조직한 테러조직 7.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작용 8. 헌법을 고침 9. 지혜를 관장하는 '○○보살' 10. 의학을 기초로 하여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 관계를 연구하고 해석하며 감정하는 학문. 11.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 12. 싸움에 이긴 여세를 타고 계속 몰아침 13. 불상에 감차(甘茶)나 향수를 뿌리는 일 14. 남에게 금전을 꾸어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금전 15. 요직에 있는 사람에 직속하여 그의 기밀 사무 따위를 맡아보는 사람.

파격 · 자유분방 승려화가 '팔대산인'의 삶과 예술



팔대산인
저우스펀 지음/서은숙 옮김
창해 펴냄/1만9천원

중국 문인화 꽃피운 최대 거장
명나라 왕족으로 살다가 패망 후
저잣거리로 내몰린 불운한 삶
선기 어린 그림으로 승화

명말 청초를 산 미치광이 승려화가. 본명은 주탑, 호는 '팔대산인(八大山人, 1625~1705)'이다. 하지만 그의 진면목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 오히려 중국내에서는 더 그렇다. 중국 모대학의 학력경시대회 문제중에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 있었다고 한다. "팔대산인은 한 사람인가, 아니면 여덟사람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대다수 학생이 답을 몰랐다고 한다. 그렇지만 중국 고대회화를 전공한 미국의 어느 전문가에게 중국 화가중 누구 그림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더니 주저없이 "팔대산인의 그림입니다"라고 답했다는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분명 그는 역대 중국 최고의 작가중 하나다.





타이뻬이 고궁박물원에 보관돼 있는 '새'(위)와 '묵죽 회첩'. '묵죽'은 굵은 붓으로 힘차게 찍어 대나무의 곧은 기운을 표현했다.

팔대산인은 광기의 화가라는 점에서 네덜란드의 위대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와 종종 비교된다. 그러나 광기의 이유까지 같지는 않다. 고흐의 광기는 생명을 불태운 결과이자 생존에 대한 깊은 체험에서 비롯된 필연이었다.

하지만 팔대산인은 명나라 왕족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나라가 망하는 거대한 변란으로 인해 미치기에 이르렀고, 결국 선(禪)과 그림은 그에게 일종의 도피처였다.

중국 문인화의 거두로 평가받는 팔대산인은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정작 남긴 글이 너무 적어 그의 삶은 대부분 '수수께끼'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인 화가 저우스펀이 지은 <팔대산인>은 비록 소설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불운한 시대의 한 고독한 천재화가였던 팔대산인에 대해 궁금했던 이들에게 반가운 책이 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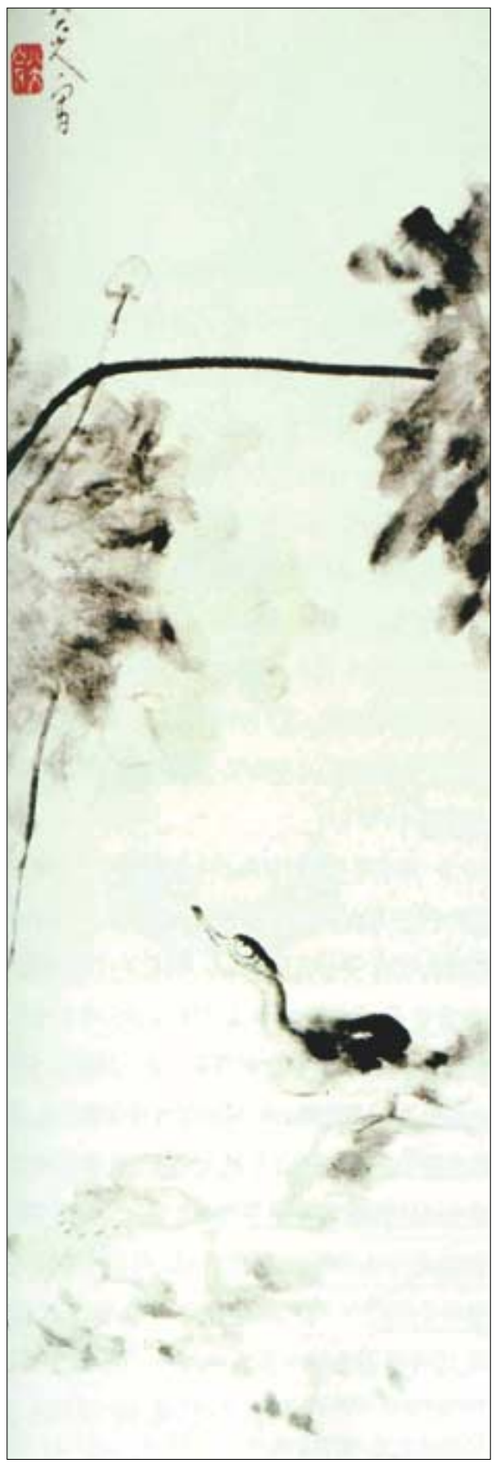
지은이는 팔대산인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 결과에다 작가로서의 상상력을 버무려 물 흐르듯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간다. 찬란한 왕족이 패망 후 도망쳐 나와 저잣거리에서 놀림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미치광이 화가로 세상을 붓칠해 가는 생애를 박진감 있게 그렸다.

국내 독자들에겐 약간 생소할지 모르는 팔대산인은 명나라 말 4대 승려화가중의 하나로 꼽힌다. 또한 중국 문인화의 거두로 칭송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팔대산인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파초, 괴석, 연꽃, 기러기 등 식물과 동물은 물론 사람의 특징을 정확히 잡아내 간략하게 그리는 '발묵화조화' 기법의 중국 시조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가 개척한 예술론은 현대 중국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줬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런 점들이 바로 전세계 수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그의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승려였던 그의 그림에서는 선기가 묻어나는 동시에 성남, 슬픔, 찡그림 등 인간의 다양한 표정이 들어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함축적이고 때론 모호한 그의 말년 그림은 항상 그림밖에도 무한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인상을 준다.

'하늘을 노려보는 새' '기이한 형상의 바위' '마르고 시든 연꽃' '눈을 부릅뜬 물고기' '두눈이 새까만 고양이' 등은 그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없게 만든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좋아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

그는 술은 두 되를 못 마실 주량이었지만 술 마시길 좋아했다. 또한 취하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울기를 자주했으며, 취중이지만 단박에 그림을 그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주사(?)도 부렸다. 하지만 세도가가 그림을 그려달라며 비단 한 필을 가져오면 그 비단으로 버선을 만들겠다며 거절했다. 이 모습은 조선시대 화가인 오원 장승업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수묵담채로 그린 '거상유어도'. 여백의 미가 강해 선기가 느껴진다.

이 책이 한 인간의 삶과 작품세계를 다뤘음에도 전기가 아닌 소설로 쓰여진 것은 별로 남아있지 않은 빈약한 자료에 있다. 그러다보니 그에 대한 '전설'과 '소문'이 끊이질 않아 진실이 많이 가려진 것이 사실이다. 지은이는 바로 그의 그림과 비평의 글들을 발취하고 사료에 근거해 팔대산인을 소설로 복원해 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책 곳곳에 그의 그림들이 다양하게 실려 있으나 이야기의 전개와 관련된 그림들은 정작 빠져 있어 글을 읽는 맥이 끊겨 버린다는 점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춤 테라피
가브리엘 로스 지음 | 박선영 옮김
랜덤하우스 중앙 펴냄 | 1만5천원

춤을 이용한 대체 치료, '춤 테라피'이다. 춤은 원시사회에서부터 인류와 함께 해왔다. 특히 우리 민족은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고 <삼국지위지동이전>에 나와 있을 정도로 춤과 연관이 많다. 그 춤은 희노애락과 같은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춤(율동)으로 표출해 마음의 정화나 무아지경을 느끼는 문화가 전승됐다.

최근 출간된 <춤 테라피>는 기본적으로 몸의 메커니즘과 우주와 몸의 관계, 사회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는 심리적 자아와 참 자아의 관계, 감정의 물결이라 할 수 있는 몸짓과 정신의 관계, 춤을 통한 사회와의 소통과 치료 효과를 설명했다. 춤치료에서의 춤은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추는 춤도 아니다. 오로지 치료 목적이 크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춤 치료는 다섯 가지의 리듬을 바탕으로 자신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움직임과 춤으로 통합하고 본래의 자기(Self)를 만나는 과정이다. 지은이는 우주와 개인의 몸에 흐르는 파동을 다섯가지 리듬으로 파악한다. 흐름(flowing)은 자신을 발견하

춤추며 몸과 영혼을 하나로

는 여성성의 리듬, 스타카토(staccato)는 자신을 정의하는 남성성의 리듬, 혼돈(chaos)은 여성성과 남성성이 통합된 흐름, 영혼의 노래(lyrical)는 무아경과 자아실현의 리듬, 침묵의 춤(stillness)은 평온을 찾는 새로운 시작이다.

지은이가 춤을 마음의 치유와 연결시킨 것은 개인사에서 비롯됐다. 발레리나의 꿈을 키우며 영적 충만감에 싸여 경건한 수행자처럼 살고 싶었던 지은이는 대학때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낙태를 경험하고 죄의식에 빠진다. 이후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춤에 매진했지만 무릎이 상해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로부터 그는 원래 하나였던 몸과 영혼이 사회의 도그마와 가치관에 의해 분리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육체를 학대하는 무용 대신 몸과 영혼이 일치를 느끼는 무아지경의 상태를 추구한다.

지은이 가브리엘 로스는 무대감독이자 춤 치료 연구자이며 음반기획자로, 이 책은 그가 자신의 경험과 작업을 통해 체계화한 다섯 가지의 리듬이 어떤 원형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리듬이 삶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리듬과 함께 춤을 추면서 무엇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나는 내 몸을 싫어해, 나는 원래 몸이 둔해, 리듬감각이 없어, 춤출만큼 기분이 좋질 않아, 나는 춤출 공간이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춤을 추라고, 그러면 몸과 영혼이 일치되는 명상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권유하는 책이다. 음악치료, 미술치료, 동작치료, 영화치료 등 최근 유행의 한 흐름이기도 하다.

그런점에서 이 책은 춤을 단지 예술가만 즐기는 무대예술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레크리에이션과 치료 도구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든다.

■최윤희(인천시립무용단원)









삶의 진면목 마음에 있으니…



성윤갑 관세청장
유식학 해설서 출간

지난 6월 취임한 성윤갑(50 · 사진) 관세청장. 1975년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30년간 줄곧 관세청에서 근무해 내부승진으로 청장의 자리에 오른 '전문 관세 행정인'이다. 그러나 '청렴'을 제1의 덕목으로 꼽는 성 청장이 불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성 청장의 불교 인연은 이종사촌 동생인 前 천태종 총무부장 덕수 스님(정선 달성사 주지)의 출가에서부터 시작됐다. 고등학생이던 사촌 동생이 출가하는 모습을 보고 '불교란 과연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된 성 청장은 이후 불교 교리를 꾸준히 공부해 1994년 <금강경> 해설서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려야지 왜 메고 가나>를 펴냈고, '화엄교학에 나타난 유식사상연구' 등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최근에는 유식학 해설서 <행복한 삶을 위한 유식삼십송>을 출간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유식 30송
성윤갑 지음
불교시대사
1만2천원

5세기 인도 불교학자 반수반두(婆修槃頭)가 지은 <유식삼십송>은 마음의 구조와 기능, 작용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 등 유식사상의 정수를 30개의 시송(詩頌)으로 체계화한 책이다. 불교의 인식이론을 이해하는 필독서로 꼽히는 <유식삼십송>은 우리가 본래 타고날 때부터 있어왔던 참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나'와 '나 이외의 것'에 대한 두 가지 집착을 여의어야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참 성품을 드러낼 수 있음을 설하고 있다. 유식사상에 대한 이론적인 정리뿐 아니라 실천 수행적인 면을 강조해 마음을 올바로 알고 마음을 바르게 쓰기 위한 수행의 단계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유식삼십송>은 단지 불교의 한 부분으로서의 유식사상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틀 지워진 교리나 사상을 초월해 인간 삶에 대한 성찰과 마음현상을 파헤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종교정신이 무엇인지를, 종교를 믿지 않는 생활인이라면 '삶의 진면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유식삼십송>의 원문을 해석한 현장 스님의 번역본을 저본으로 삼았으며, 전문적인 고증이나 사료 연구보다는 일반인들이 유식사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유식삼십송>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결국 '한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성 청장은 "이 책은 주체자로서 마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주체마저도 벗어 던지는 대자유와 해탈로 나아가는 깨달음의 지도"라고 강조한다.

여수령 기자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쾌선(箕城快善)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러워 조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향(극락정토)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법보시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숭고한 신심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빛이 엮은 깨달음의 순간



깨우침의 빛
관조 스님 글/사진 | 솔 | 2만5천원

계절별 풍경 사진 85장
'법구경' 등 경전 구절과 조화
자연서 얻은 깨달음의 경지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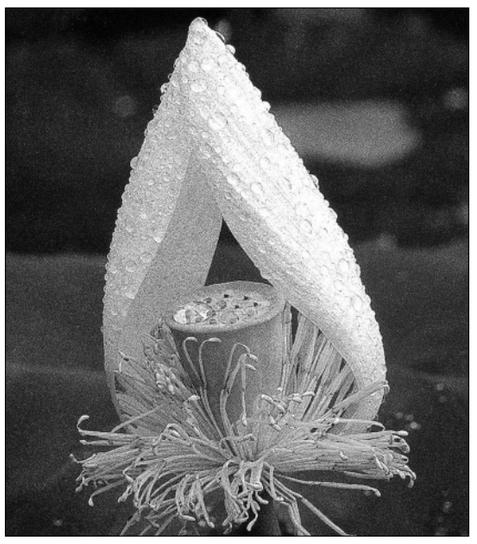
합장하듯 두 꽃잎을 모아 쥐고 있는 연꽃. 이슬방울 머금은 연꽃을 보며 관조 스님은 수행자의 발원을 떠올린다. "저는 당신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도를 닦는 수행자들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저는 부처님 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을 받겠습니다."

처마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빗물, 법당으로 오르는 계단에 흩날리는 꽃잎, 벚꽃이 내려 앉은 장독대, 자욱한 안개 속에 서 있는 탑….

30여 년 간 우리나라의 사찰과 자연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 온 관조 스님이 쉽게 스쳐가기 쉬운 순간들을 찍은 명상 사진집 <깨우침의 빛>을 펴냈다. '풀잎마다 부처님 모습'이라는 부제에서 보듯, 스님은 자신의 법명처럼 대상을 깊이 관조(觀照)함으로써 '나뭇잎 하나, 돌멩이 하나에도 부처 아닌 것이 없다'는 가르침을 전한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부처이고, 부처 아닌 것은 인간인 이 산승(山僧) 밖에 없습니다. 오래 전에 집을 나선 산승이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 이러한 화두를 풀어내기 위해 택한 방편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공간의 그 어느 것이나 다 부처의 법신이라는 말씀과 숨결을 사진에 담으려 했습니다."

때문에 스님의 사진에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풍경을 넘어 '풍경 안쪽의 풍경'을 읽을 수 있다. 이번 사진집도 자연의 풍경에 <법구경> <벽암록> <선가귀감> <숫타니파타> 등에서 발췌한 글을 더해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의 경지를 담아내고 있다.



사진을 수행과 포교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관조 스님은 꽃잎을 모아 쥔 연꽃에서 합장한 수행자의 모습을 떠올린다.

대나무 통을 따라 흘러가는 약수를 보고는 '참된 영원은 끝없이 흐르는 가운데 있다'는 가르침을, 한 장의 낙엽에서는 '어리석은 이는 죽음과 늙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다. 지혜로운 이는 이것의 참모습을 잘 알고 슬퍼하지 않는다'는 글을 실어 참된 진리와 깨달음이 무엇인지 반추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모두 85장의 사진을 계절별로 나누어 실었다.

"글을 몰랐던 육조 혜능 스님을 단박에 깨우치게 한 말씀은 '응무소주 이기생심(應無所住 以生其心,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이라는 <금강경>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좋은 사진 한 장은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을 잡아채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말입니다."

목탁 대신 카메라를 들고 전국의 산과 절을 찍어온 관조 스님. 1977년부터 30여 년간 10여 차례의 전시회를 개최했고 <승가>(1980) <열반>(1984) <한줄기 빛>(1998) <사찰꽃 살문>(2003) 등 15권의 작품집을 낸 관조 스님에게 사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수행의 길이자 포교의 한 방편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나를 찾는 암자여행
정찬주 지음
마음향기
1만2천원

쉬어가고 싶은 그곳, 암자

<암자로 가는 길>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등의 책을 펴낸 '암자 전문가' 정찬주씨가 10여 년간의 '암자기행'을 회향하는 책 <나를 찾는 암자여행>을 펴냈다. 기존의 책들이 암자 소개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책에서는 풍부한 사진을 통해 사색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 쌍봉사 근처에 '이불재'라는 집을 짓고 농사와 집필에 전념하고 있는 지은이는 책에서 소비적인 여행 대신 암자 기행을 통해 나를 한 번 돌아볼 것을 권한다.

"여행의 길손들이 암자를 찾는 것은 우리 문화나 역사의 흔적을 보고자 하는 바람도 있겠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우리는, 혹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숨어 있다. 암자란 불교만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쉬어가고 싶은 '보통명사'인 것이다."

지은이는 계곡의 물소리가 시원한 포항 서운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주말 산행하기 적당한 경기도 자재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일출을 볼 수 있는 장안읍 척판암, 장엄한 일몰이 인상적인 영광 해불암 등 계절과 테마에 맞는 암자 40여 곳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암자의 특징과 풍광을 잘 살린 사진들이 책 읽는 맛을 더해준다. 암자 기행의 뒷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나를 찾는 암자여행 커뮤니티(http://smalltemple.cyworld.com)'를 참조하면 된다.

부모님 은혜 어떻게 갚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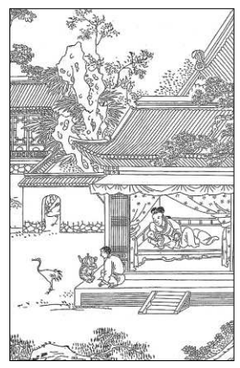


부모은중경
월운 스님 옮김 | 지영사 | 8천원

"어머니가 그대 낳던 날 오장(五臟)은 온통 찢기었나니 몸도 마음도 까무러치고 흘러내린 피가 도살장 같았다. 그러고도 아기 건강하단 말 듣고 기뻐함이 평시(平時)의 곱이나 된다."(<부모은중경> 中)

지나고 나서야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부모님 은혜다. 뒤늦게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고자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곁에 계시지 않는 슬픔을 일컫는 '풍수지탄(風樹之嘆)'은 이 세상 모든 자녀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일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이를 갚는 방법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부모의 깊은 은혜를 묻는 제자들에게 '뱃속에 품고 지켜주신 은혜' '낳으실 때 고생하신 은혜' '젖을 먹여 길러 주신 은혜' '자식들을 위해 궂을 일을 하신 은혜' 등 10가지 은혜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효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수원 영주사판 <부모은중경> 목판화 일부.

"부모를 위해 <부모은중경>을 읽고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삼보께 공양하고, 재계(齋戒)를 지키고, 보시하고 복을 닦으라. 만일 능히 이와 같이 하면 효순한 아들딸이라 하겠지만 이러한 행을 닦지 않으면 지옥의 식구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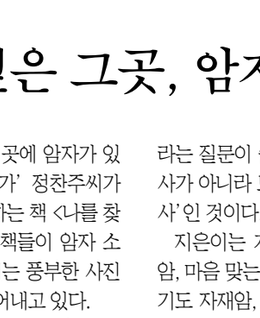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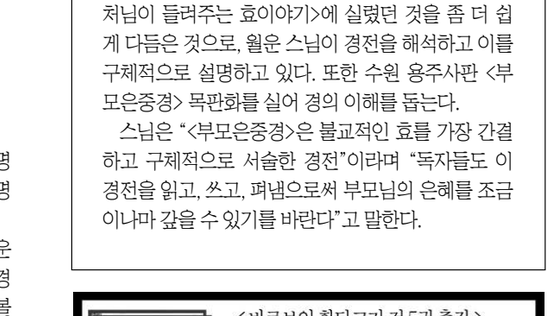
<부모은중경>은 부처님이 부모의 은혜와 그 은혜를 갚는 방법을 일러준 '효 지침서'로, 이를 월운 스님(동국대 역경원장)이 현대인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옮겼다. 지난 2001년 발간된 <부처님이 들려주는 효이야기>에 실렸던 것을 좀 더 쉽게 다듬은 것으로, 월운 스님이 경전을 해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수원 용주사판 <부모은중경> 목판화를 실어 경의 이해를 돕는다.

스님은 "<부모은중경>은 불교적인 효를 가장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전"이라며 "독자들도 이 경전을 읽고, 쓰고, 펴냄으로써 부모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파헤치다!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와 과학도 밝히지 못하는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놓은 환단고기.
전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문재현 선사님께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바로보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른보임

동방대학원대학교
문 화 교 육 원
200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모집 과정
서화예술 분야: 한문서예 1/2/3/4, 한글서예 • 사군자, 수묵화 • 문인화, 채색화 • 현대채묵화
역경명리 • 풍수 분야: 사주와 심리학1/2 • 기문둔갑, 실전사주명리학 초급/중급/연구, 풍수지리학 형기론/이기론, 복서육효학 • 육임학 초급/중급, 정통점성술 • 자미두수
자연치유 분야: 한방과 사주학 입문/연구, 비전한방론 • 실전치유기공, 실전스포츠마사지 • 요 가, 실전교정요법(학), 청소년 상담•오행식이요법
불교예술 분야: 불교기초교리, 대승불교 교리와 불교 문화예술, 사찰기초의식 • 범패실기, 불교무용 • 진도북춤, 불화단청 실기
외국어 분야: 중국어 회화 1/2, 일본어 회화, 한자교육 지도사
♣ 특별과정 ♣: • 명리학 최고 전문가 과정, • 실전사주명리학 특별속성, • 불교 교직자 특별과정, • 민화전체 전문인 과정
모집 안내
▷ 접수 및 등록기간: 2005.6.27~8.26
▷ 수강대상: 일반성인 남 · 여 / 학력 제한 없음
▷ 개 강: 2005년 8월 29일 월요일 (총 16주)
▷ 제출서류: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 사진(3cm×4cm) 2매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www.dongbang.ac.kr
136-8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92-1 Tel. 02-745-2142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운(大吉運)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건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과정의 아름다움 '만다라'



7월 15일 법련사에서 열린 '모래만다라'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한 내빈들.



규토사원 스님들이 모래 만다라 제작에 앞서 특별 예불의 식을 진행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 동북아사무소 한국지부 개소 기념展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서 7월 21일 까지

20여점의 탕카가 내걸린 전시실 한 가운데 놓인 동그란 탁자. 그 위에는 흡사 복잡한 설계도면을 연상케 하는 만다라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 5명의 티베트 스님들은 하얀 마스크를 두르고 정교한 문양 사이로 색색의 모래알을 뿌린다. '착퍼(Chakpur)'라는 긴 깔대기 끝을 사각사각 부빌 때마다 고운 색을 입은 모래알이 소리도 없이 도면 위에 내려앉는다. 생각지 못한 움직임에 모래알이 날아갈세라 숨도 잡념도 모두 죽이고 오직 착터 끝 모래알에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스님들.

달라이 라마 동북아사무소 한국지부 개소를 기념해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02-733-5322)에서 15일부터 21일까지 조성되고 있는 '모래 만다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연등축제 등의 행사를 통해 소규모 모래 만다라 조성 시연을 선보인 것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티베트 전통 사원의 스님들에 의해 무려 7일 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형 만다라 제작을 공개한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티베트 스님들의 수행의 방편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모래 만다라 제작.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 어떤 과정에 의해 진행될까?

초펠 스님은 15일 열린 모래 만다라 개막전에서 "만다라는 사바세계에서 접할 수 없는 '불보살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달라이 라마는 만다라를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믿기도 한다. 그래서 만다라 조성은 단순히 예술작업에 그치지 않는다. 티베트 스님들은 만다라의 도상은 불법을 깊이 이해하고 체화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의 형상을 이루는 작업은 깨달음을 얻는 수행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만다라 의식에 앞서 염불과 기도, 그리고 명상이 우선된다. 만다라 그리는 곳을 성화(聖化)하기 위한 예식의 일부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도 다람살라 내 규토 사원의 티베트 스님들이 직접 예불을 진행한 이후 만다라 제작 작업을 시작했다. 의식 후에는 여러 도구를 이용해 만다라의 정교한 문양을 연필로 그려 넣었다. 제작에 앞선 의식, 그리고 밑그림 작업이 모두 만다라 조성 과정의 일부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특별전에서는 이 과정이 전시 개막에 하루 앞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15일 전시장에 다시 나타난 티베트 스님들은 미리 작업한 밑그림 위에 색색의 모래를 채우기 시작했다. 전통 만다라에서는 황금과 산호, 진주 등 적 · 청 · 황 · 녹 · 백의 다섯 가지 귀한 재료를 썼지만, 요즘은 옥석가루에 색을 입혀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얇고 꺼끌꺼끌한 착퍼의 표면을 쇠막대기로 부비면 그 진동에 의해 깔대기 속의 모래가 조금씩 밖으로 나온다.

색을 채우는 작업은 21일까지 6일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그 작업이 궁극 목표가 아니다. 스님들은 완성된 만다라를 봉헌하는 예식을 진행한 후에, 그 모래를 모두 허물어 버린다. 만다라를 완성한다는 것은 형상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은 없다. 아름다움 역시 마찬가지다. 만다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

마지막 의식은 그 모래들을 강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만다라 제작 과정을 통해 불보살의 세계에 닿은 모래를 항아리에 담아 강으로 흘려보낸다. 그 모래가 세상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전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에다. 21일 까지 법련사에서 제작되는 만다라와, 25~29일 봉은사(02-511-6070)에서 조성되는 만다라 모두 강으로, 바다로 전해질 것이다. 불국토 실현의 소망은 그렇게 이어진다.

글=강신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관세음보살의 화신, 깨달음 얻는 수행 과정
황금 산호 등 오색 사용, 불보살의 세계 표현
허문 후 강물에 흘려 보내 부처님 가피 전해

7월 15일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린 모래 만다라 특별전에서 만다라 조성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티베트 스님.



지난 7월 14일 열린 영화 '살타'의 제작 발표회. 왼쪽에서 두번째가 감독이자 주연을 맡은 장연수 감독.

예술 · 종교 합일 이룬 영화 기대하세요

불교 영화 '살타(殺打)' 제작

불교적 소재를 다룬 영화 '살타(殺打)'가 제작될 예정이여서 불자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장연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다음 달 8월초에 크랭크인돼 올 12월 개봉예정이다. 특히 '파이란' '시월애' 등의 촬영을 진행했던 김영철씨가 촬영감독을 맡아 더욱 시선을 끈다. '살타'란 제목은 보리살타(菩提薩陀)에서 남자주인공인 록 가수 무진(장연수 분)은 무진보살, 시각장애인 여자주인공 수련(장신비 분)은 수련화보살에서 착안했다. 영화 '살타'는 무진과 수련의 비극적 사랑과 주인공들의 전생과 현생의 인연관계를 끊고 무진이 자신의 몸을 등신불로 산화해 불교에 귀의 한다는 내용.

감독 · 주연에 장연수씨 문경 · 금산사 등서 촬영

감독과 주연을 맡은 장연수 감독은 "불교의 본질을 꿰뚫는 영화를 만들어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감응을 줄 수 있는 불교적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고 기획취지를 밝혔다. 독실한 불자인 장 감독은 <천수경> <금강경> 등을 요일별로 1시간씩 봉독하는 신행생활을 하고 있으며 주인공 무진의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해 내기 위해 지난 3월 서울 돈암동 적조사에서 1만 배 기도정진을 하기도 했다.

영화의 주 촬영지는 경북 문경의 '초록원'이며 김제 금산사와 완주 송광사, 구례 화엄사 그리고 일본 오사카에서도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제작비 30억원이 투입되는 영화 '살타'는 무진의 전생 이야기인 임진왜란 당시의 스펙터클한 전쟁신도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제작사측은 밝혔다.

한편 제작을 맡은 '필름 시네라리아'는 7월 14일 대학로 S.H 클럽에서 제작발표회를 가졌다. 노병철 기자

소원성취



신비한 영험 부엉이 길상도

구암 합장

불초 소승은 영흥도 토굴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는 승려로써 부처님 법과는 십만팔천리나 어긋나는 행위인 줄 알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바 소승이 도움이 되고자 부엉이(길상도)를 소개드립니다.
소승은 법화경을 토굴에서 10년 동안을 수행 주력한 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승이 원력을 세운 달마도도 첫번째 방송에 소개된 바 많은 분들의 호응이 컸었고 지금 부엉이(길상도)를 처음 소개하려 합니다. 부엉이 길상도의 원력은 늘 노심초사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며 집을 갖고자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 자식 걱정 하시는 분, 시험을 앞둔 취업과 학업성취 등의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길상도이므로 벽에 걸어 놓으면 3년안에 원하시는 일들이 나날이 번창하여 성공 하실것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주소, 나이, 생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FAX로 보내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달마도도 한점 무료 보시합니다.

TEL : 032)886-3586 H·P : 011-9458-6616
FAX : 032)886-3587
계좌번호 : 우체국 201103-02-149423 예금주 김금수

서래달마원 원장 석구암 합장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거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청미래 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山寺 기청량 조청 1.2kg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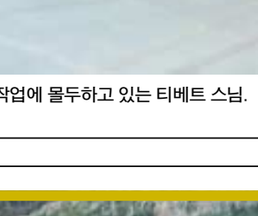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372-5721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세계최대 부처님 열반상

국운융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상 발바닥에 옴자가 1만 6천여자가 새겨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상 몸속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불이 2만여불로 인등 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곰팡이제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98년도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친견했을때 자연적으로 3과로 증과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성지순례 오십시오. 모든 불자님들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 부처님 진신사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계향산 미암사
전화 041)832-1188, 832-1189 / 팩스 041)832-1187

제3회 대성사 산사 음악회
종교화합의 밤 선남선녀 함께하는 음악회
(천주교 옥천성당 가족과함께)

● 일시 : 2005년 9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 장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297-4

공연
불 교
1. 보현스님 (부처님마을주지 .유명가수)
2. 지효스님 법고시연
3. 가수 최은혜 노래교실(대전 유명 노래강사)
4. 팝오케스트라
5. 법민스님 승무시연
6. 불교연합합창단

천주교
1. 옥천성당 합창단.청년 합창단
2. 이노주사(찬양사도)
3. 김영수신부 그룹사운드
4. 테힐라 섹스폰 중창단

● 전화 : 대 성 사 043)732-5560 혜철 스님
옥천성당 043)731-9981 요셉 신부님
●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대전. 충북지사
● 후원 : 옥천군 옥천경찰서 옥천교육청 옥천문화원 옥천농협 옥천영동축협 청주불교방송국 현대불교신문사 옥천신문 한빛일보 동양일보 충북일보 충북불교총연합회 옥천불교사암연합회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31>



결에 있는 사람이 스승이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해인가 여름에 홍수가 나서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있었는데 항상 말썽을 부리는 육군비구들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마구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자연히 소지품들이 물에 휩쓸려 둥둥 떠다니게 되었고, 그들이 거침없이 다니는 바람에 초목들과 곤충들이 마구 짓밟혔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들은 부처님의 제자이고 출가한 스님이면서 어찌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겉으로는 바른 법을 안다고 자부하면서 법도도 없이 돌아다니니 어찌 바른 법을 지키는 수행자라 할 수 있는가. 신자들이 보시한 물건들이 물에 휩쓸려 가고, 곤충들을 밟아 죽이고 있지 않은가. 외도들도 우기 석 달 동안은 안거를 하는데 이들은 어찌 그런 법도 없단 말인가. 벌레와 새들도 둥지와 굴이 있어 머물거늘 어찌 이들은 그런 법도 없단 말인가."

사람들의 비난이 부처님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부처님은 육군비구들을 꾸짖고 난 뒤에 아오는 대로 밥 먹는 곳을 소제하고 자리를 펴고 물그릇을 갖추고 발 씻는 그릇과 밥 담을 그릇을 갖추어 놓기로 합시다. 대중은 제각기 밥을 가지고 와서 밥 먹는 곳에 놓고서 많이 얻었거든 미리 덜어두고 알맞으면 그대로 먹으며, 밥을 다 먹었거든 잠자코 방으로 돌아가기로 합시다. 이런 일들은 말이 필요 없으니 걸식에서 돌아와 밥을 먹는 동안,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치우는 동안에도 절대로 서로 말을 건네지 말기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들이 음식 때문에 피로하지 않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규칙을 마련해 놓고 규칙에 따라서 안거하며 자자를 마쳤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니 얼마나 조용하게 자기 수행에 매진할 수 있었을까요? 가급적 다른 이를 참견하지 않고 묵묵히 하루 한 끼만 먹고 석 달 간 오직 자신의 수행만을 위해 땀을 쏟고난 비구스님들은 안거를 마친 뒤 부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부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의외로 부처님은 근심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어리석은 사람은 멋대로 그런 행동들이 즐겁다고 여기겠지만 그것은 괴로움이다. 멋대로 근심 없이 지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퍽 근심스러운 시간이었다. 너희들이 함께 머물고

안거기간 수행에 전념코자 묵언한 제자들에게
"도반과 대화하며 가르치고 일깨워라" 꾸짖어

이렇게 새로운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계절의 구분 없이 돌아다니지 말라. 비구들은 여름 석 달 동안 안거해야 한다." (사분율)

안거는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당시 이미 널리 행해지고 있던 행사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석 달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사는 덕분에 비구들은 수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코살라국에서 안거를 시작한 비구스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거하는 동안 음식 때문에 괴롭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가급적 정진하는 데에 온 정신을 쏟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안거 기간 동안에는 탁발하러 나가는 것도 번거롭고 음식을 얻어서 돌아온 뒤에 음식을 먹고 치우는 동안에 행여 불필요한 말이라도 하게 되어 수행에 방해가 될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렇게 규칙을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안거 동안에는 서로 말하거나 예배하거나 문안하는 일은 하지 맙시다. 가장 먼저 마을에 들어가서 걸식한 이는 돌지낸 모습들을 돌아보아라. 마치 원수지간 같지 않더냐? 싸우려고 덤벼드는 흰 염소와 조금도 다를 바 없구나. 내가 그토록 무수한 방편으로 비구들에게 서로 가르치고 서로 말을 듣고 차례로 깨우쳐 주라 이르지 않았더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한 짓은 법답지 못한 짓이다." (사분율)

안거에 임하는 수행자들의 결심은 뜨겁습니다. 장마철의 눅진한 습기마저도 일거에 말려버릴 만큼 뜨거운 열기가 흘러넘칩니다.

화두를 향해 고요히 몰입해 들어가는 시간은 개인이 자기 참존재와 만나는 시간입니다만 부처님은 치열하게 수행하는 그 시간조차도 끊임없이 도반과 대화를 나누며 일깨워주고 가르쳐 주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나라가 오래도록 번영하려면 한결같이 화합해 자주 회의를 갖고 토론을 해야 하는 것처럼, 출가자들이 자주 성의껏 모이고 많은 이들이 출석하여 끊임없이 토론하고 결정을 내려야 승가의 생명력이 길어진다고 하신 <대반열반경>의 가르침은 사판(事判)의 현장뿐만 아니라 이판(理判)의 법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말과 먹는것을 최대한 줄이고 항상 부지런해야 수행을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종안 스님.

중생심으로 보면 모두 '헛 것'



지상 백고좌

종안 스님

(곡성 태안사 원각선원 선덕)

종안(宗眼 · 82)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동리산 태안사는 예부터 선지식들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다. 섬진강과 보성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태안사는 신라 구산선문의 하나인 동리산파의 중심사찰이다. 개산조 혜철 스님의 부도인 '적인선사조륜청정탑(寂忍禪師照輪淸淨塔 · 보물 제273호)'도 유명하지만 2003년 열반한 청화 스님의 자취도 아직 생생하다.

초여름 땡볕을 피해 일주문을 지나치려는데 벌떼가 주련 아래로 맴돌고 있었다. 일주문 기둥 속에 벌집이 들어선 모양이다. 꿀을 찾는 벌 떼처럼 불도를 깨치려 모여 들었을 동리산파의 옛 수좌들이 이랬을까. <화엄경> 십지품에는 천인(天人)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간청하면서 "목마른 이 감로수를 그리워하듯/ 굶주린 이 좋은 음식 생각하듯/ 벌 떼가 단 꿀을 찾듯이/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감로법문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묘사한 구절이 떠올랐다. 천년이 지난 오늘도 태안사 선방에는 철마다 자성을 밝히고 확철대오하기를 간절히 서원하는 납자들이 앉다눠 방부를 들인다.

닥나무 껍질로 신 삼아 신고…

태안사의 부속암자인 가은암은 대웅전을 지나 작은 개울을 건너 대숲사이에 숨어 있어 유심히 보지 않으면 찾기 어려운, 그야말로 토굴이었다.

요 며칠 비가 온 뒤여서 개울물 소리는 속세의 번뇌까지 모두 쓸어버릴 것처럼 시원했다. 10여 년 전 청화 스님이 지었다는 이 암자는 슬레이트 지붕에 3칸짜리 누옥으로 전기만 간신히 들어오는 낡은 토굴이다. 1칸짜리 작은 선방과 스님의 처소가 전부였지만 몇 해 전부터 혼자 힘으로 조금씩 규모를 늘려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가지런한 마당이며 채마밭이 단정한 수행자의 토굴이라는 느낌 그대로였다. 동안거는 대중선방에서 수행하지만 하안거는 이곳에서 난다고 했다. 하루 8시간을 정진하는 젊은 수좌들에 비해 무섭도록 정진하는 종안 스님 수행근기가 대중생활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종안 스님은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꼿꼿한 허리에 자애로운 음성으로 기자를 반겼다. 장마가 계속되던 차에 모처럼 해가 났던 이날, 스님의 처소에는 습기를 없애려 군불을 땠다며 마루에서 손님을 맞았다. 어른 세 명이 엉덩이를 붙이고 앉기에도 비좁은 마루였다.

"나야 뭐, 늘 그냥 그대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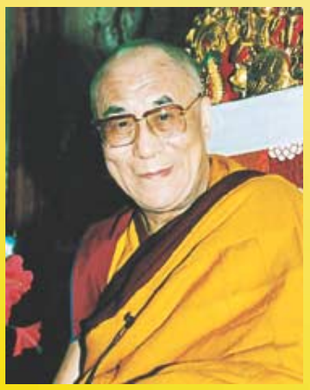
무심도인(無心道人) 종안 스님은 안부를 묻는 기자에게 자연그대로 더불어 살려 노력하는 것 말고 별다를 것이 없다며 '허허' 하고 웃었다. 82세라는 세수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한 종안 스님은 이번 하안거도 여지없이 방부를 들이고 새벽 2시부터 하루 12시간 이상을 참선에 매진하고 있다.

그만큼 스님은 사중과 선방수좌들의 사표로 귀감이 되고 있었다.

종안 스님은 누구와도 말을 잘 하지 않는 분이다. 이번 철을 같이 나기 위해 스스로 자청했다는 시자 스님(법명을 물었지만 그조차 대답하기를 사양했다)과의 대화도 극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겸연쩍게 기자와 시선을 맞추며 "말이 필요 없어서"라고 웃으신다. 기자에게는 그나마 "찾아온 손님을 그냥 내칠 수 없어 맞았을 뿐"이라고.

시자스님이 내온 시원한 감식초차를 입안에 머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한국 불자들을 위해
티벳 불교의 원전인 입보리행론(깨달음에 드는길)을
5일동안이나 설법합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5년 12월 12일 - 12월 16일 (5일간)
■ 장소 : 인도 티벳 망명정부가 위치한 다람살라
■ 주관 : 여수 석천사 石泉寺 (진옥스님 061-662-1607)

한국 불자들을 위한 달라이라마의 특별법문
Dalai Lama's Dharma Teaching

달라이라마께서 <입보리행론>을 통해 인도의 위대한 불교 스승인 '샨티데바'의 생생한 법음을
들려 줄 것이며 불교 수행의 핵심을 일깨워 줄 것 입니다.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은 보리심을 일깨워 보살행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수행 지침서로서 우리
의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비견 할 만한 경전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이 법문을 통해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복돋아 줄 것이며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행사일정

A팀 기간 : 12월 3일~12월 18일 16일간
(불교성지순례와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샬리-
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설법)-찬디가르-델리-인천

B팀 기간 : 12월 9일~12월 18일 10일간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다람살라-찬디가르-델리-인천

C팀 기간 : 12월 10일~12월 19일 10일간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다람살라-찬디가르-델리-인천

참가신청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실크로드 문화탐방 14일
• 출발일 : 8월 21일 출발 - 9월 3일 도착
• 일 정 : 인천-파키스탄 라호르 도착-라왈핀디-
탁실라-페샤와르-스와트(마애불)-
카라코람하이웨이를 따라 칠라스-길기트-
훈자(세계 최장수 마을)-탁스쿠르칸-카슈카르-
쿠차(키질석굴)-투루판-우루무치-인천

티벳 불교의 원전을 통해 달라이라마의 살아 있는
법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통역은 달라이라마의
제자이며 18년간 공부한 청전스님과 티벳 대학에
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맡아 진행합니
다. 입보리행론은 청전스님이 번역한 교재를 제공
합니다.

※ 본 행사는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금었다. 선반위에 얌전히 올려놓은 짚신 한 켤레가 눈에 띄었다. 질긴 닥나무 껍질과 무명천, 짚을 섞어 엮은 짚신이었다.

스님은 "예전 도인들은 손수 짚신을 삼아 신었지"라면서 짚신 한 짝을 집어 들었다. 여름에는 이렇게 손수 만든 짚신을 신는다고 했다. 언뜻 보기에도 단단한 매듭에 깔끔한 마무리는 수십 년 다져온 솜씨다. 종안 스님은 짚신의 내력을 '육바라밀 짚신' 법문으로 천천히 들려 주셨다.

"신총이 좌우에 3가닥씩 매듭진 짚신의 울은 육바라밀의 상징이여, 짚신 주둥이는 보시, 가운데는 지혜, 밑바닥은 정진, 짚신 굽은 선정, 무명천으로 둘러 묶은 신총은 지계, 돌기총은 인욕이지"

보살이 되고자 하는 수행자들의 여섯 가지 덕목이 신 한 켤레에 모두 담겨 있다니 스님의 혜안에 그저 마음이 숙연해질 따름이다. 널리 자비를 베푸는 '보시', 청정함을 지키는 '지계', 탐욕을 끊고 참는 '인욕', 게으르지 않는 '정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선정', 사악한 마음을 버리고 참 혜안을 구하는 '지혜'까지 대승불교의 실천행인 육바라밀은 스님의 오랜 수행역정을 대변하고 있다.



종안 스님은 두타행때 삿갓을 쓴다.



세수 82세인 지금도 하루 12시간 이상 참선하는 종안 스님.

80년대 중반 진정한 깨달음을 위해서는 고행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무작정 길을 나섰다. 삿갓에 석장을 짚고 목적지도 없이 세상을 주유했다. '두타행(頭陀行)' 때도 스님의 발에는 '육바라밀 짚신'이 있었다. 자신만의 안목으로 12두타를 정하고 고행의 길을 나선 것이다.

12 두타행으로 새롭게 눈 떠

"첫 번째 묵언해야 해, 두 번째는 장좌를 하지, 세 번째는 1종식(一種食 하루 한끼만 먹는 것)을 하되 추녀 바깥에서만 먹어야 해. 아침 한때를 얻어먹는데 밥을 달라는 말을 못하니깐 죽비를 쳐요, 죽비소리에 주인이 나오면 바리때를 내밉니다. 네 번째가 7개식입니다. 7집에서 얻어 한 때를 먹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완전히 인적이 끊어지고 어두워지면 봉분 앞에서 무상관(無常觀 · 온갖 것의 무상함을 관하는 선정법), 여섯 번째는 목적지 없이 하루 종일 걷습니다. 일곱 번째는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따지지를 않고 발길 닫는 데로 가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깊은 모자(삿갓)를 쓰고 하늘을 안 보고, 아홉 번째는 단벌로만 다녀요, 열 번째는 한번 밟은 길은 다시 돌아가지 않고, 열하나는 손수 만든 짚신을 신고, 열두 번째는 모든 두타를 머릿속으로 외우면서 걷는 겁니다. 이게 다 내 생각으로 한거지, 조사 스님 흉내 내고 한 건 아닙니다."

덕유산 은신암 토굴에서 남원을 지나 곡성에 이르렀을 무렵 두타행을 멈췄다. 20년도 더 된 얘기다. "모든 게 새롭더라고. 공부는 아주 최고로 잘됐어요. 그 뒤로 공부도 꾸준했어. 지금은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직 그런 걸 하는 이는 못 봤어요."

종안 스님은 불혹의 나이에 출가했다.

늦은 발심이었지만 <초발심자경문>의 '마음에 애착이 떠나면 그 사람을 중이라 하고, 세속에 미련이 없으면 그것을 출가라 한다(離心中愛 是名沙門 不變世俗 是名出家)'라는 구절처럼 애착도 미련도 없으니 늘 무심하고 무상하다. 그렇게 40여년을 자연속에서 살았다.

게으름은 수행자에게 가장 큰 병

태안사 주지 종효 스님은 "종안 스님이야말로 40여년을 결제도 해제도 없이 수행에만 매진한 선지식"이라며 한없는 존경을 표한다. 종안 스님은 세상 사람들이 상(像)으로만 살기 때문에 참 잘사는 법을 모른다고 했다. 중생심이 앞서 헛것만 본다는 것이다. 그러니 늘 근본을 치료해야 하는데 현상만을 놓고 다투고 있다고 했다. 매일 길게는 17시간, 짧게는 12시간을 정진하지만 하루 공양은 한 끼뿐이다. 1종식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스님의 청규다.

"뭘 먹든 이 몸뚱이가 유지될 만큼만 먹으면 되지 더 바랄게 없어요. 절에선 조석 예불만 빠지지 않으면 먹는 거 입는 건 걱정 않으니 먹는 것에 집착 할 일 없습니다."

실제로 종안 스님은 출가 후 누더기처럼 기운 장삼 한 벌과 염주 삿갓 석장 손수 만든 신 외에는 자기 것이라고는 가져본 것이 없다. 그렇게 참선에만 매달렸다니 예사 근기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종안 스님이 정진하는 가은암 선방 안에는 좌복 두개만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손때 묻은 죽비하나 낡을 대로 낡은 벽시계 헐어 빠진 누더기 장삼 한 벌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방문을 열면 눈이 시리도록 푸른 언덕과 대숲이 펼쳐지고, 도랑 물소리, 대숲의 사각거리는 잎사귀 소리까지 천지의 모든 것이 방안 가득 들어온다.

요즘은 재가자들도 참선 공부 많이 하는데 이들에게 참선 잘하는 법 가르쳐 달랬더니 "내가 뭘 아는 게 있어야지"하고 시침을 떼신다. 그러면서 스스로 발심해서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이었다. "정진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사람의 도는 없는 데서 밝아집니다(人道無明). 생사 없는 실상은 마음비우는 공부를 통해서 자성을 비워내는 겁니다."



수행자의 짚신에는 육바라밀의 의미가 담겨 있다.

늘 묵언을 강조해온 스님은 이날 몇 마디 하시지도 않았지만 기자와 마주 앉은 것만으로도 말씀이 많았다며 스스로를 책망했다.

수행의 근본은 이타행

"기자를 만나 이러고 있으니 나도 공부를 잘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껄이니까요. 말없는 게 최고 잘하는 거여. 최고 정진 잘하는 게 말이 없이 묵언하는 거여. 내가 제대로 수행이 됐다면 중생들이 그냥 따릅니다. 그게 중생제도죠.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수행이 제대로 되면 말하지 않아도 깨친 이에게서 풍기는 기운이 틀립니다. 부처님도 사실은 아무 말씀 안하셨어요. 이런 저런 경전들은 후대에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종안 스님은 자신의 깨달음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수행의 근본임을 강조했다.

"이 공부도 선근이 있어야 해요. 선근이 없으면 제아무리 불법이 좋아도 힘든 것이 이 공부라. 불법은 인과법이기 때문에 거저 해주는 것은 없어요. 스님이나 속인이나 그저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수행자에게는 게으른 것이 제일 큰 병통이라. 부지런한 것도 그냥 부지런한 것은 소용이 없고, 남을 이롭게 부지런히 행동하고 마음 닦는 것이 최고지요."

글=조용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무소유 · 하루 한끼 공양으로 무위자연의 삶 실천

종안 스님은 종안 스님은 1924년 충남 조치원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한학을 공부했던 스님은 유가와 도가의 경전을 읽었지만 경계를 깨닫고 생사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혹의 나이에 불문에 귀의했다. 공주 갑사로 출가해 1970년 화엄사 도광 스님을 은사로 득도, 지리산 덕유산 백운산 등지의 토굴과 화엄사 해인사 월명사 수도암 봉암사 등 여러 선원에서 생사를 건 정진에 몰두했다.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보여 온 스님이 몇해 전 멧새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진이 신문에 나와 세인의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곡성 태안사 원각선원 선덕(禪德)으로 현재 가은암 토굴에서 정진하고 계시다.



로담 스님의
스님이야기
현문 스님 (下)

강원생활이란 단순히 강사스님의 강의를 듣고 몇 권의 책을 보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반들간의 관계, 선 후배간의 질서, 어른에 대한 공경심, 일상적 의례인 습의, 철학적 사상을 총망라해 배우고 익히는 곳이기에 그렇다. 그것뿐이 아니다. 출가수행자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이다. 건강관리가 잘 돼야 수행도 잘 하는 법이다. 건강관리법, 즉 운동을 배우는 곳도 강원이다. 나는 강원에서 운동을 익혔다. 축구와 배구 탁구 평행봉 역기에서 곤봉 스케이트까지. 해인강원의 축구는 유명하다. 지역은 물론 대구나 부산 조기축구회에서까지 친선게임을 하자고 했고 육사생도들과도 게임이 이루어졌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은



그림 · 문병성

물론, 지고 이기는 승패에 관계없이 선 후배와 도반사이를 서로 끈끈한 끈으로 이어주었다. 공부와 운동이 즐겁고 재미있으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건강이 따라주어야 했다.

내가 당시 45kg였다. 이 몸무게로 따라붙으려 했으니 무리였다. 코피를 일년간 흘렸다. 처음에는 코피가 쏟아져 멈추지를 않더니 일년이 다 될 즈음에는 얇은 여름 장삼이 콧등만 스쳐도 코피가 터졌다. 늘 어지러웠고 간병실에 누워 있어야 했다. 연일 코피를 쏟고있는 나를 본 재무스님은 집에 돌아가 건강해지면 다시 오라고 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서글펐다. 부모 형제 멀리하고 부처님 법 배우러 온 사람을, 부처님 법 배우다 아프다고 집으로 돌려보내면 부모인들 이해하겠는가? 그러니 코피 흘리는 것도 숨겨야 했다.

비로암 토굴에서 공부하시던 은사스님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다. 나를 보더니 '미련한 곰'이란다. 가야의원에 데리고 가셨다. 거기서 원인을 모르겠다고 해 다시 야로병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무슨 치료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후로 나는 지금까지 코피를 쏟은 일이 없다. 현문 스님은 나를 다시 강원에 데려다 놓고 털모자를 씌워 주시면서 "공부하다 죽어라!"고 하셨다. 수행자가 들어야할 말 같아 정말 기뻤다.

나는 이일이 있은 뒤로는 후배들이 아프다고 하면, "사람은 언젠가 죽어야 되는 것이니 공부하다 죽어라" 한다. 육신의 쇠락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며 보람된 일이냐고…

크든 작든, 귀중하든 사소하든 모든 것에는 시절인연이 있는 법이다. 그 인연이 속시원하게 눈에 보이거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원인에 따른 조건 변화이기 때문에 인연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익었다가도 성글어지고 성글다가도 익어지며, 처음이 있듯 인연의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인 듯 하다가도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느낀다.

1995년 내가 서울 봉은사 포교실장 소임을 보고 있을 때다. 은사스님께서 부르시더니 성북동 대원각을 절로 만들려고 하니 일을 봐 주어야 되겠다고 하셨다. 대원각을 법정 스님께 기증하려 한다는 이야기는 십년 전부터 떠돌았지만, 내가 이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당시 대원

"큰일 욕심 내지말고 공부하다가 죽어라"

각은 음식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법정 스님은 조건부 기증은 거부를 하고 계셨고, 그 사이 많은 스님들이 다녀갔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모 교회에서 백지수표를 제시했다는 말도 있었다.

더욱이 소유자인 김영한 보살의 건강이 나빠 오늘 이러는가 싶으면 또 한없이 기다려야 했다. 당시 김보살은 불자가 아니었다. 백석 시인을 사랑한 분으로 <내 사랑 백석>이란 책을 냈다. 은사스님은 그분을 자주 찾아뵈었다.

나는 그 때 지인들이 뭐하느냐고 물으면 '성북동 비둘기' 잡으러 다닌다고 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렀지만 결국 해내었다. 송광사 중앙분원, 창건주 김영한, 사명 대법사로 사설 사암 등록을 하고 재산 기증 절차를 마쳤다.

보도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은사스님에게 물으니, 스님께서는 법정스님이나 김영한 보살이 드러내 보이는 것을 싫어하니 그만 두라 하시면서 "누가 살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되든 큰일은 욕심내지 말고 불국토가 되는데까지만 하자"고 하셨다.

이년 후, 김영한 보살은 법정 스님께 '길상화'라는 법명을 받았고 절 이름도 '길상사'로 바뀌었다.

나는, "누가 살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되든, 큰일은 욕심내지 말고 불국토가 되는데까지만 하자" 이 말씀을 욕심 줄이는 수행의 좌표로 삼고 있다. ■가평 아가타 보원사 주지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달마 관음 지장

뒷면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달마카드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연꽃 처결이
※ 50개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6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Wellbl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연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캡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캡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그럼에서만 보다 실제로 보니 너무 신기해요" 여름방학을 맞아 곤충의 생태를 직접 눈으로 익히다 보면 아이들은 어느새 자연에 한걸음 다다가 있을 것이다. 사진제공= 한택식물원

숲에 가면 곤충이 와글와글



여름방학맞이 생태프로그램 다채

신나는 여름방학. 아이들을 컴퓨터 게임이나 공부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확실하게 해방시켜 줄 방법이 없을까? 방학을 앞둔 이맘때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 그러나 즐겁고 유익한 시간 만들기는 의외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원할만한 테마를 잡고 정보를 수집하다보면 의외로 손쉽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숲과 곤충'을 테마로 잡아 보는 것은 어떨까?

바깥 활동을 통해 적당히 여름햇살에 그을리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아이들을 풀밭으로 초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자. 지금까지 곤충도감이나 자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만 접했던 곤충들을 눈앞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프로그램을 골라잡기만 하면 다가온다.

능동 서울대공원에서는 '숲속여행'을 통해 아이들의 생태 감각을 길러줄 계획이다. 여름의 숲에서 살아 숨쉬는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곤충들을 대하다보면 아이들은 어느새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또 **용인 한택식물원**에서는 '식물'과 '곤충'이라는 주제를 접목시켜 9월 30일까지 프로그램을 진행, 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을 제공한다. 부모들에게는 어린 시절 들판에서 봤던 곤충들과 재회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남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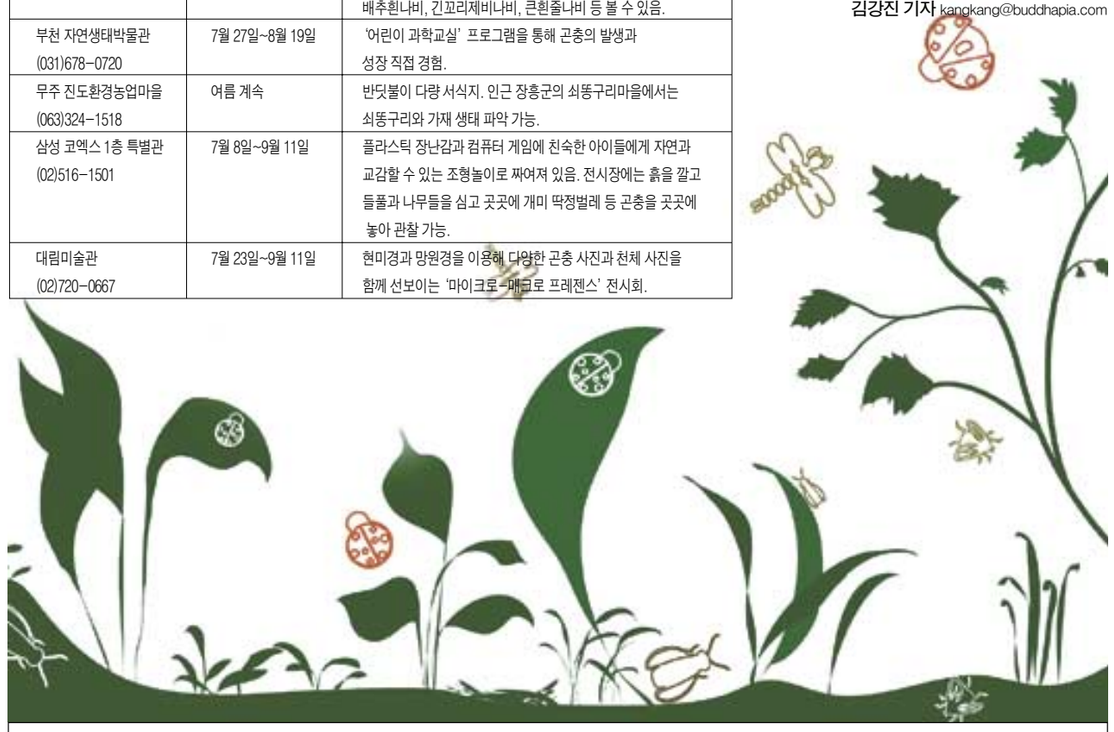
햇볕이 두렵고, 조금 조용한 곳에서 오랫동안 곤충을 관찰하고 싶다면 미술관 전시회를 추천한다. 이제 자연에서는 더 이상 보기가 힘든 희귀한 곤충들은 **코엑스 전시관**에서, 너무 작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곤충은 **대림미술관**에서 현미경으로 마주 대할 수 있다.

아이에게 흥미를 주면서도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기회, 이번 방학에 만들어보자. 여건이 안돼 굳이 나들이를 하지 못한다면 풀밭이 있는 가까운 공원에서 곤충도감을 하나 집어 들고 아이들과 함께 곤충 이름을 찾아보는 것도 여름 방학의 재미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주최	일시	행사 내용
서울 능동어린이대공원 (02)450-9306	7월 20일~8월 말	'숲속여행'에서 곤충을 비롯한 숲속 생태계를 파악할 수 있음. 이밖에도 '여름방학 동물원 대탐험' '한여름 밤의 곤충 대탐험' '농촌 체험 교실' 과 '동물체험교실' 등도 마련.
용인 한택식물원 (031)333-3558	7월 15일~9월 30일	'식물원, 곤충과 만나다' 곤충전시회, 가족 곤충탐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제주 별천지미술관 (064)748-9553	7월 16일~8월 말	어린이 체험박람회에 마련된 생태관, 체험관을 통해 곤충은 물론 파충류 설치류 등 관찰가능.
미동산수목원 (043)220-5581~5	수시	충북도산림환경연구소가 조성한 수목원으로 특히 애완곤충생태원에서 장수풍뎅이, 호랑나비, 배추흰나비, 긴꼬리제비나비, 큰흰줄나비 등 볼 수 있음.
부천 자연생태박물관 (031)678-0720	7월 27일~8월 19일	'어린이 과학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곤충의 발생과 성장 직접 경험.
무주 진도환경농업마을 (063)324-1518	여름 계속	반딧불이 다량 서식지. 인근 장흥군의 쇠똥구리마을에서는 쇠똥구리와 가재 생태 파악 가능.
삼성 코엑스 1층 특별관 (02)516-1501	7월 8일~9월 11일	플라스틱 장난감과 컴퓨터 게임에 친숙한 아이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조형놀이로 짜여져 있음. 전시장에는 흙을 깔고 들풀과 나무들을 심고 곳곳에 개미 딱정벌레 등 곤충을 곳곳에 놓아 관찰 가능.
대림미술관 (02)720-0667	7월 23일~9월 11일	현미경과 망원경을 이용해 다양한 곤충 사진과 천체 사진을 함께 선보이는 '마이크로-매크로 프레젠스' 전시회.



이영화 어때요?

이순신은 조선시대 오렌지족?

천군 감독: 민준기 출연: 박중훈, 김승우 상영시간: 110분 등급: 15세 이상

'조선시대의 오렌지족(?) 청년 이순신을 민족의 영웅으로 만들라'. 영화 '천군'은 기존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는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를 거부한다. 그렇다고 이순신 장군의 영웅담은 더더욱 아니다. 바로 '천군'의 매력은 이순신 장군도 무과시험에 낙방 후 방탕한 나날을 보냈을 것이다는 영화적 상상의 나래와 '인간' 이순신을 그려냈다는 것.

DMZ에서 대치중이던 남북한 군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시공을 초월해 조선시대로 떨어진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족의 성웅이 되기 전 한 때 좀 놀았던(?) 청년 이순신을 만난다.

그 와중에 이순신이 아끼던 마을 소녀가 여진족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사건을 계기로 숨겨져 있던 이순신의 영웅적인 면모가 서서히 드러난다.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현대식 군인과 조총과 칼을 든 왜군과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이순신은 승승장구하는데….



SF 역사극 '천군'이 주는 메시지를 메이저리그 전설의 홈런왕 베이브 루스가 주는 교훈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베이브 루스는 통산 714개의 홈런을 날렸지만 야구역사상 가장 많이 삼진아웃 당한 선수이기도 하다. 영웅의 이면 아니 꼭 영웅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게시판

구로 청소년수련관으로 오세요 서울 구로청소년수련관(관장 설웅)은 방학 특별 프로그램으로 를 준비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02)838-1318



독거노인 홈스테이 봉사 성남 한솔종합복지관(관장 성화)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뜻깊은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캠페인, 독거노인 홈스테이 등의 봉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사진).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매주 월 · 수 · 금요일. (031)716-4215

광주불교문화대학 신입생 모집 광주불교교육원 부설 광주불교문화대학 · 대학원(원장 영조)은 불교학개론, 경전강독 불교상담학 등의 교과목에 관심 있는 2005년도 하반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062)228-9098

일산불교병원 자원봉사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원장 이석현)은 6개월 이상 주 1회 3시간씩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수시모집이며, 일정기간 기초교육을 통해 병원 안내업무 및 환자지원, 각 부서 업무, 전문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1577-7000

호스피스 교육 서울 수효사(주지 무구)는 제2기 호스피스 교육을 한다.

신청은 7월 27일까지. (02)313-5124

20면 상식 퍼즐 정답

알	타	이		개		
카		성	문	헌	법	
에			수		의	
다	모				학	승
	성		관			승
	애	이	불	비		장
		자		서	반	구

전시

설화의 상징, 꽃글씨의 조형미

삼척시립박물관 '한국의 문자도'



'한국의 문자도'에 전시된 안동지역 문자도.▶

삼척시립박물관은 개관 5주년을 맞아 '한국의 문자도' 특별전을 8월 30일까지 연다.

문자도는 자획(字劃) 속에 글자의 의미와 관련 있는 상징물을 그려 넣어 서체를 구성한 그림. 주로 고사(古事)나 설화(說話) 등의 내용에서 대표하는 상징물이 담겨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교훈적이고 길상적인 뜻을 담고 있는 문자도 25점이 선보인다.

김태수 학예연구사는 "'꽃글씨'라고도 불려지는 문자도는 한자문화권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조형예술"이라며 "한자의 의미와 예술작품의 조형성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33)575-0768

공연

마당놀이와 퍼포먼스의 만남

과천시민회관 '김세레나와 산사퍼포먼스'



'김세레나와 산사퍼포먼스'에서 공연을 펼칠 풍물패 '이명' 팀의 연주 모습.

김세레나와 풍물패 등이 사찰을 돌며 웃음과 재미를 선사한다.

불자 공연기획자 임경종 감독은 사물놀이, 민요와 춤, 풍물놀이, 가수와 코미디언 퍼포먼스 등이 한 자리에서 펼쳐지는 '김세레나와 산사퍼포먼스' 무대를 기획했다. 가수 김세레나, 코미디언 김인수 · 권철우 등을 비롯해 신세대 가무악 '개벽'과 풍물패 '이명' 등이 참가해 여름 저녁 산사에 모인 불자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오는 7월 29일 오후 4시 · 7시 30분 과천시민회관에서 그 첫 무대를 선보인 이후 전국 사찰 순회공연을 시작한다.

임경종 총감독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민요와 유행가요 등도 곳곳에 삽입돼 등장인물과 불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18)295-7778

강신재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18일 06:00 불교강좌
19일 06:25 오늘은 좋은 날
20일 11:05 아름다운 초대
21일 07:05 아침저널
22일 09:05 행복한 미소
23일 14:05 진시몬의 낭만라디오
24일 10:00 라디오 법회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18일 05:50 한국의 명찰
19일 11:20 특선다큐
20일 15:50 열린마당
21일 17:30 산중대담
22일 01:45 TV법회
23일 22:10 왜 붓다와 노자인가?
24일 20:00 또 다른 수행 '사경'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진시몬의 낭만라디오(7월 23일 14:05~15:00) 3040세대들의 입맛에 맞는 추억의 노래를 다시 들어 볼 수 있는 시간. 나른함이 밀려오는 오후 2시. 진시몬이 준비한 잔잔한 노래와 선율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불교텔레비전**: 엄앵란 장미화의 행복충전(7월 21일 21:10~22:10) 연예계의 입담꾼으로 통하는 엄앵란 장미화가 말하는 세상사는 이야기. 불자 연예인 등 각계 인사를 스튜디오에 초청해 삶의 지혜는 물론 생활 속 재밌는 해프닝도 소개한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무선 찻주전자

마하몰에서 차를 좋아하는 불자들을 위해 기존 무선주전자의 장점과 찻주전자로서의 특성을 고루 갖춘 무선 찻주전자를 출시했다.

기존 초고속 가열 무선주전자의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차를 별도의 차 우리는 기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차 거름망을 주전자에 달아 간편하게 잎차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것. 1잔 분량의 물은 30초면 가열이 가능하다.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 용량 1.7ℓ. 가격 6만 7000원. (02)2004-8218~9

인생의 고비에서 만난 부처님 (하)

김효학 (전북 익산시 신룡동)



그림 · 문병성

대불련 가입후 봉사 · 신행 활동에 전념
군시절 입원, 기도의 소중함 알게 돼
'주경야독' 생활속 긍정적인 미래 확신

1996년 11월로 기억한다. 여느 때처럼 청년회 저녁법회를 마치고 우리는 강원도 월정사로 사찰순례를 떠나게 되었다. 밤에 떠나는 사찰순례였지만 그만의 독특한 멋이 있었다.

강원도라 그런지 그날따라 눈이 많이 왔다. 캄캄한 밤중에 도착하게 됐는데, 눈이 많이 쌓여서 차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손전등 불에 의지하고 한 시간 가량 걸어서 산을 오르게 되었다.

적멸보궁에 오르기 전에 우리는 작은 암자에서 잠시 수면을 취하고 새벽3시에 다시 적멸보궁으로 향했다. 한참 예불을 보는데 어찌나 졸음이 오던지 서서 예불을 모시면서도 나도 모르게 무릎이 저절로 굽혀지곤 했다. 그러나 그 졸음 가운데서도 산사의 멋은 내게 깊은 감동을 줬다.

눈 내리는 조용한 새벽에 부처님과 자연과 내가 하나가 돼서 드리는 기도.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평온했다.

지금도 감사히 여기는 것이지만 봉은사 청년회와의 만남은 부처님과 법우들과의 인연을 맺어준 잊을 수 없는 생의 사건이었다.

이후 뒤늦게 대학에 들어가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에 가입 했고, 그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 술 한잔에 삶과 인생을 풀어놓는 날도 적지 않은 탓에 우스개 소리로 '주(酒)불련'이라 부르기도 한 우리네 모임이었지만, 그래도 학생이란 순수함과 열정이 살아있는 수련과 포교의 공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대불련 시절 시각장애인들의 가을 단풍구경 행사에 참여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나는 행사에서 이들을 안내하는 일을 맡았었다. 그들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눈 아닌 것으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의 손을 잡아보면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한명씩 팔짱을 끼고 안내하기로 했다. 그런데 내가 안내를 맡은 시각장애인이 "단풍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가까운 계단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두 눈을 가진 나는 단풍이 아름답다는 사실은 고사하고 세상을 훤히 볼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할 줄 몰랐다. 또 이렇게 밝은 세상이 있음을 고마워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을 뿐이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탐하는 헛된 욕망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가슴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이 참된 눈을 가진 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군대에 있을 때에도 나는 항상 부처님과 함께 했었다. 신교대 때는 통일을 염원하는 108개로 만든 우리나라 지도의 촛불 하나에 불을 밝히는 기회를 갖게 됐고, 자대에 배치받아서도 주말마다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연등행사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심한 병을 앓게 됐다. 일병 때였는데 감기증상이 오래 지속되더니 몸이 부어오르고 숨이 가쁘더니 며칠이 지난 후에는 의식까지 흐려지게 돼서 군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다. 급성사구체신염이란 병명이었는데 당일 바로 입원을 하라는 것이었다. 한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는 나에겐 큰 충격이었다. 지금까지는 '군인' 하면 어디한곳 아프지도 않고 모두 건강하게 전역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말이다. 처음 알게 된 것이지만 군인들중 이렇게 많은 환자가 있는 줄을 몰랐다. 건강한 몸으로 전역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되었다.

어머니는 내가 군대에서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을 알지 못했었다. 많이 걱정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형제들에게만 알리고 어머니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치료와 더불어 기도라고 생각했다. 기도를 병행하며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전역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다행히 병원에는 호국사라는 절이 있어 하루에 한번씩 들러 기도를 했다. 한번 호되게 아프거나 입원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겸손을 배우게 되며 깨달음의 길을 닦을 기회도 얻는 것 같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입원한지 세달 만에 건강이 원상태로 회복되어 다시 자대로 복귀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의가사제대를 선택할 것인지 계속 병원에 머물러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었지만, 자대 복귀가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을 했다.

다시 자대로 복귀하여 건강하게 만기제대를 할 수 있게 된 것에는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대학시절 나는 4년 동안 마음속으로 조용히 스승으로 모시는 스님이 계셨다. 내가 졸업하던 해, 스님께서 7일기도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다.

나는 스님과 얘기를 나누고 3일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하루 세 번 1080배 기도. 처음은 겁이 났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첫날 아침기도 때에는 힘들기는 했지만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더 이상 무릎이 굽혀지질 않는 것이었다. 물론 의식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고통스럽다는 사실은 몸이 먼저 느끼고 있었다. 힘들어하는 나를 보시고는 스님께서도 동참하시곤 했는데 스님과 호흡을 맞춰 절을 하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스님과 나를 도반이라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도반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였다.

3일간의 기도를 무사히 마치고 회향을 하게 되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리라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았다.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극기의 행복이라고나 할까?

그때 회향 선물로 받은 108염주를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그 108염주는 지금도 내 수행의 도구로 여전히 내 마음을 이끌고 있다.

그 동안의 내 삶과 불교를 돌이켜 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고통과 시련에 빠져 있을 때마다 깨우치는 스승이었으며 또한 삶의 지침이었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지금 나는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수험생 신분으로 공부를 한다.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고등학교 이후에 나를 세운 불교가 나를 탄탄히 다잡고 있다. 내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 하면 그 정성만큼 긍정적인 미래가 찾아오게 될 것을 믿는다. 앞으로도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51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과일의 왕 두리안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하게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두개 6.5KG이상 55,000원
한박스 13KG이상 100,000원

Sale!

후식으로 보이산차 장미차 국화차 중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판매및 문의
향원다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 오며, 단, 10㎏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1Box(60포 - 20만원)~~ ~~● 2Box(120포 - 35만원)~~
1Box(60포 : 15만원) 2Box(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12663-6655 017-242-0808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여름휴가, 간편하게 차 준비하세요

올해 초부터 차를 즐겨 마시게 된 직장인 송현호씨(35). 여름휴가 기간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날 계획인 송씨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다. 여행지에서도 차를 마시고 싶은데, 다구를 모두 챙겨가자니 번거롭고 시중에 파는 녹차 음료로는 성에 차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송씨의 걱정을 해결해 준 것은 바로 휴대용 다기(茶器). 최근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휴대용 다기의 종류와 휴가철 간편하게 차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자연에서 차한잔의 여유 '좋~다'



자연을 벗삼아 마시는 차 한잔은 일상의 시름과 번잡함을 잊게 해준다. 휴대용 다기를 이용해 휴가지에서도 간단한 찻자리를 마련해보자. 사진=박재완 기자

다구 준비하기



잔과 다관으로 이뤄진 1인용 다기.

최근 차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다기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재료도 도자기에서부터 유리,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휴대용 다기들은 가지고 다니기도 편할 뿐 아니라 사용법이 간단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휴대용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1인용 다기다. 흔히 1인용 다기라고 하면 거름망이 들어 있는 잔 형태의 다기를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에는 뚜껑이 있는 1인용 다관과 찻잔으로 이뤄진 휴대용 다기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 일반 다관에 차를 우렸을 때와 맛이 거의 비슷하며, 잘 깨지지 않아 보관이 간편하다. 다관에 찻잎과 뜨거운 물을 넣고 우린 후 찻잔에 부어 마시면 된다. 찻잔을 다관에 엎었을 때 너무 크거나 작지 않고 흔들림이 적은 것으로 고르는 것이 좋다. 다구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5천원~2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

유리제품으로는 최근 차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휴대용 유리 다관이 인기다. 유리는 깨지기 쉬운 단점이 있지만 값이 저렴하고 다관에 차향이 배지 않아 다양한 차를 즐길 수 있다. 거름망에 찻잎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후 차가 우려지면 찻물을 빼내면 된다. 500㎖와 1000㎖ 두 종류가 있으며 값은 1만5천원~3만원 선. 도자기와 유리 다관은 야외에 가지고 갈 때 천 주머니에 넣거나 공기가 주입된 비닐에 싸야 파손을 막을 수 있다.

오랫동안 따뜻한 차를 마시길 원한다면 스테인리스 제품을 추천한다. 스테인리스 제품도 차를 우리는 다관(몸체)과 거름망,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손잡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파손 위험이 적다. 자동차 컵 홀더 등에도 꽂아 쓸 수 있어 실용적이며, 보관 케이스에 넣으면 보온성이 지속된다. 찻잎이나 티백을 다관에 넣고 거름망을 장착한 후 물을 부어 우리면 된다. 용량과 재질에 따라 2만원~4만원 선.

플라스틱 제품은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지만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플라스틱 특유의 냄새가 배어 차 맛이 변한다는 단점이 있다. 말차의 경우에는 바구니에 다완과 차선, 차선통, 차시가 담겨 있는 휴대용 세트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쉽게 부러지기 쉬운 차시가 접이식으로 만들어져 보관이 편리한 것이 특징이다.

이것도 꼭!

휴가지에 차를 가지고 갈 때는 습기와 냄새가 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시고 싶은 차를 한 번 우려마실 만큼 덜어 종류별로 포장해야 차의 향이 서로 섞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3~10g씩 소량 포장된 차도 판매하고 있다. 차는 주석이나 사기로 된 차호에 넣어야 습기로부터 안전하지만, 무겁고 번거로울 때는 밀폐 용기나 냄새가 나지 않는 비닐 팩 등에 넣어도 상관없다.

휴가지나 야외에서의 찻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다포와 다건이다. 유리나 도자기로 된 다구가 깨지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찻상을 따로 준비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다포를 깔아 찻자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휴대용 퇴수기를 준비한다면 일일이 찻물을 버리러 가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휴대용 말차도구 세트.

휴대용 다기,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등 재료 다양
유리 다관 야외 이용시 천으로 감싸 파손 막아야
습기·냄새 배지 않도록 밀폐용기 비닐팩에 보관



거름망이 있는 유리다관.



스테인리스 다관.

FDA "녹차 항암효과 없는 듯"

미국식품의약국(FDA)이 기존의 연구결과와 달리 '녹차에 항암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FDA는 최근 홈페이지(www.fda.gov)를 통해 "녹차의 항암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녹차가 유방암과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며 "극히 '미약하고 제한적인(weak and limited)' 보고서에서만 항암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FDA는 "현재의 근거로는 녹차를 검증된 건강식품으로 승인할 수 없으며, 다른 유형의 암 예방에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FDA의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이뤄진 녹차의 항암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동물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환경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조선시대 ⑫



고려시대부터 중국과의 사행(使行) 때 공물이나 회사품에 거의 빠짐없이 차가 들어있었고, 그 양도 적지 않았다. <통문관지(通文館誌)>에 의하면 사신들의 왕래에 상당량의 차가 공식적으로 오갔다.

또 중국에 들어간 우리 사행에 일정량의 차를 조참이나 하정 때 내렸는데, 이 시기에 오면 중국의 차인심도 각박해져 그 양이 줄었다. 임란 후 일본과 국교가 회복되면서 사신들이 오면 동래부에서 다례를 행했다. 왕실이나 공식적 의례에서는 차의 수요가 줄지 않았지만 전란 전에 비해 민간의 차 생활은 위축되었다.

명나라는 산차에 대한 다서들이 계속 쓰여졌다. 허차서의 <다소>를 정(酊)이라 이름붙이고 후에 거기서 송사(送使)했다.

④ 중국 사신이 오면 상사(上使)와 부사(副使)의 방에 대기하던 인원 중 찻일을 맡아 통역하던 다방소통사(茶房小通詞)를 두었다.

⑤ 20여개 항목에 걸쳐 산차에 관한 기록한 명대의 대표적 다서다.

⑥ 정용빈: 명대 차학자로 <다록> 4권을 찬수했다.

⑦ <삼재회도>: 오기(五圻)가 쓴 책으로 내용 중 차에 관한 기록이 있다.

⑧ 작자 미상으로 왕경미(王敬美)의 찻일에 관한 것이 실려있다.

⑨ 하수방(夏樹芳)이 쓴 것으로 96칙(則)의 목록에 따라 선인들의 다사(茶事)를 기록했다.

고려-중국과 사행때 공물·회사품으로 사용
명나라-허차서의 <다소>등 많은 다서 저술

비롯해 <다록> <죽창잡록> 등 수많은 다서가 나왔다. 국가에서 차의 정책을 관장하기 위해 관리를 파견하고 거래를 감독하는 기구를 두었다.

일본은 막부시대를 지나오며 선적(禪的)으로 순수한 다풍이 대명이나 막부에 의해 정치권력과 결부되어 우치다(宇治茶)가 크게 번창하고 서민들에게도 차가 널리 자리 잡았다.

① 유성룡(1542~1607): 사신으로 중국에 다녀오고 영의정에 올라 임란을 치룬 명상(名相)이다. 차인으로 다시도 몇 편 전한다.

② 동래부에 부사를 두고 왜사(倭使)들을 접하게 하고, 그들을 맞아 다례를 행했다.

③ 현소(玄蘇)가 여산의 암자에

⑩ 유정(喩政)이 찬집한 책으로 1권에 문류(文類), 2권에 시류(詩類)로 엮은 것이다.

⑪ <만보전서>는 명나라 장원이 <다록>을 실은 책으로 초의선사가 쓴 <다신전>은 이것을 옮긴 것이다.

⑫ 도정조실: 중근세 일본을 대표하는 호상(豪商)으로 대마도를 거점으로 외국과의 교육을 꾀한 차인임. 직전신장과 가까웠고 좋은 중국과 조선의 선재품에 다도구를 많이 취급하고 다회도 열었다.

신옥종담: 종실보다 조금 늦은 대마도 선두일족(船頭一族)으로, 상기(箱崎)의 다회에서 수길을 도와 구주(九州)를 평안케 했으며 <종담일기>를 남겼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 <상례초요(喪禮抄要)>에 점다(點茶)가 나옴 1605 사헌부의 다시(茶時) 1607 유성룡의 죽음 ① 다시가 여러 차례 열림 왕에게 약차 처방 1609 일본과 국교 회복 1610 <동의보감> 동래부(東萊府)에 외사 맞이 ② 1611 이정암(以酊菴) 송사 ③ 1613 다시(茶時) 1618 중국 가는 사신들의 상행위 금지 @ 다방 소통사 ④	1602 <다소(茶疎)>(허차서) ⑤ 1604 <다록(茶錄)>(정용빈) ⑥ 1607 <삼재회도(三才繪圖)> ⑦ @ <죽창잡록(竹窓雜錄)> ⑧ 1609 <다록>(풍시가) 1610 하란인(荷蘭人)이 아모이에서 차를 팔다 @ <다동(茶董)> ⑨ 1613 <다집(茶集)> ⑩ 1615 <만보전서> ⑪ 1518 흡차대신 러시아와 다엽 판매 약정	1603 강호막부(江戶幕府) @ 도정종실(嶋井宗室)과 신옥종담(神屋宗湛)의 활동 ⑫ 1613 우치채다사(宇治採茶使)를 보냄 1614 우치에서 산차를 올림
명대			
남북조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마음의 중심을 세워서 중도를 행하라!

진실만을 볼 수 있으려면…

문 얼마 전 TV를 통해 아이들을 사찰에서 학대하는 내용을 보고 제가 불자라는 것이 창피했고 그분이 무척 미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일간지를 통해서 본 내용은 그것이 타 종교 예방 센터와 기자가 몇 개월 동안 잠입 취재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상당 부분이 과장되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보이고 들리는 그 모든 것을 진정으로 내 근본에 돌려서 내놓지 못한 채 옳다 그르다는 분별만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제 모습이 한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마음의 중심을 세워서 진실만을 볼 수 있을까요? 보이고 들리는 어떤 것에도 흔들림없이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 그것은 세상의 물리를 다 파악 못하고 물리가 터지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들으면서 옳다 그르다 하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가 없이 그대로 여여하게 닥치는 대로 생활을 한다면 그처럼 그대로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또 모르고서 그대로 한다고 아무리 해봤자 걸립니다. 내면의 나와 뜰이 아니게 할 수 있는, 내면세계를 완전히 파악하고야 그 모든 것을, 외부의 모든 것을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옳다, 이런 걸 다 놔라 이랬잖아요. 마음의 도리를 배우는 데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는 것이 아예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왈가왈부 하지 말고, 이론으로나 학술로 따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큰스님들께서 공부하실 때 중간에 전부 책을 덮어 놓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부(父)와 자(子)가 상봉을 해서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하고 둘이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알아야 구경경지에 이르러서 부처님의 말씀을 다 응용할 수 있고 그것을 둘이 아니게 중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구나 하고 다 덮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꼭지가 덜 떨어져서 항상 사량으로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러다 보면 몸이 다 늙어서 사대가 무너지는데 언제 공부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중심을 잘 지켜서 중도를 행하라 이거죠. 중도로서 중심을 지킨다면 항상 회전이 되는데 가정에서 말다툼을 할 때도 지나치게 하니 싸움이 돼서 이혼도 하게 되는 거죠. 그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말입니다. '인생살이가 뭐 그렇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냥 이만한 건 다 잊어버리고 요만한 것 가지고는 그냥 툭탁거리고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그냥 파산이 돼 버리죠.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에!

그러니까 모두 마음 중심의 지조를 지키면서 항상 자생중생과 한마음으로서, 이 자체를 바로 거기에다가…. 불을 밝히세요. 밝아지는 것도 여러분이 지혜로운 마음으로서 굴림을 굴려야 밝아진다 이겁니다. 하여튼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요새도 가만히 보면 너무 지나친 데가 있더군요. 지나치다 지나치지 않다,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기에서 잘 포착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해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죠. 우리가 내 종교다 네 종교다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세워서, 중심이 즉 부처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주장자고 중심이 주인공이고, 그러기에 기둥 '주'를 썼습니다. 생각나기 이전의 그 마음 중심이 바로 기둥이다 이거죠. 당신의 기둥이다. 그러면 그 기둥은 전체적인 기둥이지 개별적인 기둥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기둥은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불을 켠다든가 라디오를 켠다든가 어떠한 뭘 끓인다든가 밥을 짓는다든가 또는 모터를 돌린다든가, 모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 주장자는 전체적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내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으로 당연한 자기의 중심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진짜 믿는다면 그것은 첨단의 언덕을 넘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하고 훌륭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의해서만이 여건을 이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모두 중심을 지켜서 중도로서 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욕과 패기와 광대한 자유를 갖게끔 정신계를 기릅시다.



그림 · 최주현

인간 세상도 약육강식이 아닌지

문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게 만물의 이치이고, 우리 인간 세상도 그것과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약자가 강자한테 눌릴 수 밖에 없는 것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지요?

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억겁 광년을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어 거쳐 오면서 쫓고 쫓기면서 잡아먹고 잡아먹히면서 인간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아먹지 않으면 안 되게끔 벌써 그렇게 정해졌던 거죠. 그래 가지곤 서로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꺼풀을 살짝 씌워 놨어요. 이 지금 인간으로 꺼풀을 살짝 씌워 놨거든요. 동물 마음이 지금 속에는 막 우글우글한데 사람으로 싹 씌워 놨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는 서로 사람들끼리 먹지는 않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잡아먹고 살아요. 마음으로는 잡아먹고 죽이고 살리고 쫓고 쫓기면서 살거든요. 이것도 전쟁입니다. 그러니 이 쫓고 쫓기는 세상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인간 세상까지 벗어나야만이 부처의 그 도리를 다 알 수 있고 또 중생들을 위해서 다 살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건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중생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꺼풀 씌워 놓은 그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중생들을 벗어나야 그 중생들을 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중생들하고 같이 그냥 복닥거리면 항아리 속에서 항아리 어떻게 굴릴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항아리를 벗어나야 내 몸뚱이 항아리를 굴릴 수 있다 이겁니다.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천차만별의 마음들을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다. 그래 내가 벗어나야, 이걸 굴릴 수 있어야, 즉 말하자면 천백억화신으로서의 그냥 응신으로서 탑구념을 통해서 그냥 들고 나면서 모두 사람들을 건지는 게 보살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 누가 보살이라고 이름을 안 지어 줘도 보살행을 하면 됐지, 보살이라고 이름을 안 불러 준다는 그런 것도 생각지 말아라 이겁니다. 무슨 보살이라고 누가 생각을 안 해 주면 어떻고 불러 주지 않으면 어때요? 나만이 즐겁게 웃으면서 응신이 돼서 건져 주면 됐고, 내 아픔과 똑같은데, 내가 올지 않고 정말 즐겁게 웃으면서 길을 걷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활하면서 그대로 생활이 실상이고 실상이 바로 참선이고 마음이 편안하면 좌선이니 그렇게 믿고 열심히 살아라 이겁니다 마음은 요동을 치는데 몸뚱이를 동여매 놓고, 선방에다 꿇어 앉혀 놓고 그래 가지곤 몸뚱이에 병이 들게 하고, 그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괴롭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히려 그러는 것은 중생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니까 자기의 몸뚱이를 괴롭히고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괴롭히고 그러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모두가 알면 좋을 텐데, 모두 글쎄 그냥 경전의 관념에 딱 착이 붙어 가지고 '아이고, 경전의 말씀만이 제일이지.' 이러지 말고 자기부터 보라 이겁니다, 자기부터. 자기부터 봐야 부처님 말씀도 그것도 훤하다 이거지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부처님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떻게 제도해야 되나요?

문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악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중생의 업보가 너무 커서 부처를 이룰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본래 죄인이고 중생인 나를 왜 다스려야 합니까? 본래 그렇게 지워져 있는 내 몸이라면 어떻게 제도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고라고도 하지 않았더라면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답 여러분의 마음내는 지배인은, 마음을 내면 속의 중생들이 전부, 의학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방편으로 헤아린다 해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생명들이, 의식들이, 모습들이 그렇게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따진다 해도 간단하게 줄잡아서 십일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숫자를 딱 맞춰서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십일억 중에 하나만, 그것 하나가 생각하는 것만이라도 그 한 생각에 수천수만이 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효가 모래알 같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리드해 가지고 나가려면 모든 게, 그게 만약에 그 중생들이 다 그 부처님을 모신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런 생명들 모습들 의식들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이 수없이, 자기가 악이든지 선이든지 쪼끄만 거든지 큰 거든지 다 지은 대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자세히 말하자면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져서 수많은 모습들이 한데 모일 때, 바로 어머니의 살을 빌리고 아버지의 뼈를 빌려서 몸 하나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받았는데 그 영혼이 자기가 과거에 산거를 짊어지고 거기에 삼합이 한데 합쳐집니다. 그럼으로써 인생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생이 나와서 수없이 속을 상하게도 하고, 안되게도 하고, 될 듯하면서도 안되게 만들고, 만약에 원수로 인연을 지은 업이 있다면 그냥 속을 썩여서 문드러지게 만들고 말입니다. 남이 속을 썩여서 자기가 그냥 못 견디게 만들고, 병고를 일으키고 온통 뭐, 그건 말도 할 수가 없는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거기에 속지 말고, 즉 말하자면 마음을 비우라 이 소리죠. 그건 왜? 거기서 일어나는 대로 거기에 속아서 말리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너희들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알아서 해라 이거에요. 거기다 놓아라 이 소립니다.

그걸 자세히 얘기하자면, 그 시스템을 지금 우리말로 말을 하자면 탑지기, 팩스, 무전 통신기, 망원경, 컴퓨터 이 다섯 가지가, 누진통은 레이다망으로 치구요, 그 오신통에서 벗어난 레이다망입니다.

마음의 도리를 배우는 데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가 아예 없어야

그렇다면 그 오신통 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느냐. 숙명통이라는 컴퓨터가 과거에 살던 자기 업대로 전부 인과가 돼서 거기에 입력이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깐 없단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잔뜩 짊어지고 있는데 입력을 해놓은 그것을 어떻게 지워 버릴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 작업을 어떤 것부터 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살아나가는 대로 나오는 거니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용도가 닥치더라도 모든 것은 거기다 다시 맡겨 놓으면 입력이 다시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과거에 입력된 것을 지금 현실에 또 입력을 한다면, 나온 걸 되놓는다면 과거에 입력된 건 다 무너지고 말아 버리는 겁니다. 오간지옥이라든가 업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영계성, 세균성 모든 업보, 화탕지옥이니 뭐니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 입력되는 것이 다시 그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평화스럽고, 몸이 건강해지니 좋고, 마음 편안하니 좋고, 가정에도 악한 일이 생기지 않으니 좋고, 우환 생기지 않으니 좋고, 화목하니 좋고, 애들 속 안 썩이니 좋고, 모두가 전력과 같고 광력과 같아서 두루 밝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수화풍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지수화풍으로서 대두돼서 나가기 때문에 재료가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오븐과 같아요. 오븐과 같은데 전기가 전력이 없다면 어떻게 오븐을 돌리겠습니까? 물건이 없다면 또 어떻게 해 먹겠습니까? 그게 다 골고루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주 알맞게 맞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부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신 따로 있고, 법신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은 갖추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깐 속 썩이지 말라 이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속 썩이지 말고 서로를 자유롭게 해 주면서 편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병이 안 생기거든요. 혈맥이 막히면 영락없어요. 암도 생기는 게 거기서 오는 거고, 여러분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냥 돈을 긁리고 악을 쓰고, 그 어떤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덤비는 사람이 병이 들고,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 병들고, 또 속 썩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펄펄 뛰고 화가 일어나고 그러는 사람이 그 암에 걸려요. 암이라는 것도 지금 알았지, 옛날에야 무슨 암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그랬겠어요? 그렇지만 암 잘 걸리죠, 백혈병 잘 걸리죠, 관절 잘 걸리죠, 풍 잘 걸리죠? 이건 뭐 혹이다 뭐다 하고 두뇌에 많이 잘 걸리죠, 눈 시력 나빠지죠?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셔서 종교는, 불교라는 것은 어디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근본과 우리 서로 말하는 이 말 자체가 '교'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 아닌 게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 기독교라 그러고 불교라 그러고 또 알라신교라 그러고 이렇게,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말입니다. 글쎄, 지구 안에 다 있지 지구 바깥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 몸 안에서 벗어나고, 지구 안에서 벗어나고, 우주 안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인간이라고, 불제자라고 자부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앉아서 이 세상을 모두 탐험해 가면서 앉아서 모든, 나무 한 그루의, 아니 다 죽어 가는 고목의 소리라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좀 고생이 되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얼마나 진화되면서 쫓고 쫓기면서 이렇게, 인간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짐승의 몸으로 한번 태어나 보세요. 그 습이 붙어 가지고 짐승의 무명을 벗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천 년 만에 한 번 벗거나 말거나 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도 이 인간 몸에서 벗어나야 인간을 굴리지요. 자기를 굴리지요. 그 많은 중생들이 자기 몸속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 많은 의식들을 다 한 마음으로 몰고 가려면, 그래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 속에다 놓을 줄 알아야 되죠. 하인을 부려도 똑똑히 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부처님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30면으로 계속

그 속에서 나온 것 그 속에다 놓을 줄 알아야

☞29면에서 계속

화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문 스님, 요새 제가 하고 있는 경험인데요, 거의 화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제가 가끔 생각할 때마다 화는 안 나지만 때론 제가 화를 내야 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화를 내야 되고 어디서부터 화를 안 내야 되는지 그 선을 못 긋겠습니다.

답 무조건 화내지 마시고 어떠한 거든지, 부부지간이나 부모자식지간에 어떤 게 걸린 게 있다 해도 모든 것을 자기중심에 맡겨 놓고 부드럽게 말을 하세요. 부드럽게 하세요. 애들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부모한테도 그렇고, 형제한테도 부드럽게 말을 해 줘요. 그러면 따뜻하게 고여서 당신을 또 따뜻하게 맞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깐 무조건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마음은 평등하게 가져야 합니다. 자기 주처를 믿고 모든 것을 거기 맡겨 놓고 거기서밖에 해결해 줄 수가 없다 하고 믿어라 이겁니다, 물러서지 말고. 모든 일체를 말입니다.

그러니깐 여러분이 용도에 따라서 자꾸자꾸 다가오는 생활 속에 경계들이 전부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재료예요. 그러니 어떤 게 닥쳐도,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솟아올라도 그걸 재료로만 알고 맡겨 놓는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죠. 거기서 물리가 터지고, 거기서 그릇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바로 홀연히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말입니다. 나타나면 둘 아닌 도리를 또 배우려고 점검을 받고 이러는 거지요. 그땐 길잡이도 필요하구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무조건 그런 걸 따지지 마시고, 요런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말을 해야 하고, 어디까지 놓아야 하는가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이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든지 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무조건 답답한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 안되게 하는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 자기가 이날까지 살림했지 누가 딴 사람이 해 줬나요? 네? 그러니깐 그 살림하는 게 전부 보고 듣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도 결정 내리고 이 날까지 살아왔죠? 그러니깐 그 결정 내린 그 장본인 자체에, 주처에다가 맡겨 놔라 이겁니다. 그러면 홀연히 자기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또 첫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모든 모습들이, 모든 의식들이 '야, 한마음으로서 자기와 똑같이 인정을 해 주는구나.' 이러고서 아주 좋아서, 흥겨워서 콧노래만 부르게 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거든요. 그러니 병이 들었던 것도 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믿어야죠. 근데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왜 못 믿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데. 지금 질문하게 한 것만도 감사하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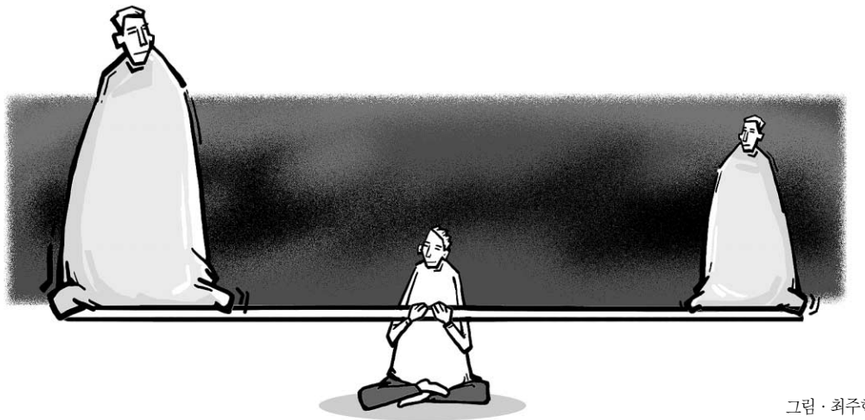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쫓고 쫓기며 이렇게 인간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균성에 대해서

문 스님께서 영계성, 인과성, 세균성, 업보성, 유전성 이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세균성은 원인 없이 그냥 경계가 오는 것 아닌지요. 세균성도 어떤 인연의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요?

답 마음이라는 것은 작으나 크나 똑같습니다. 내 집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 몸속에는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누적된 다섯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는 수없이 과거로 해서 미래로 해서 현재로 다시 들어오고, 또 돌아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똑같이 돌아오긴 하는데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천차만별의 마음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대로 모습을 쓰고 나오니까요. 이것을 기필코 우리가 해결하고 뛰어넘어야 되겠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성, 세균성, 영계성, 업보성, 유전성이 다섯 가지가 문제가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균성을 많이 맺어 놓은 사람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해쳤다거나 살생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된 인연들이 많죠. 세균성이라고 하는 것도 살생과 더불어 원한의 인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뱀 소굴에서 뱀들을 잡는다거나 이랬다면, 임신을 하지 않았어도 꼭 그것이 자식들한테로 대치가 되거든요. 그거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균성의 원리가 그러하니까 그렇게 세균성이 오는 거죠. 내 자식들을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네 자식 때문에 이렇게 좀 돼 봐라 하고 여지없이 유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것이 오는 이치는 없어요, 절대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속에서 악종의 인연을 많이 맺은 사람들은 지금 자식들로 인해서 속도 썩거니와 불구인도 나오고 별의별 일이 다 나오는데, 이 인과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테냐는 얘깁니다. 선종으로 인연을 많이 맺은 사람들은 선종을 낳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극진하고 말을 잘 듣고, 속 안 썩이고, 그냥 수순하게 살아 주는 그런 가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갖다 준 게 아니라 바로 내 속에 그렇게 주둔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그렇게 주둔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과성에 연결이 돼서, 고리가 고리를 물고 나오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도 고리가 고리를 물고 나오는 겁니다, 종자가 그 종자니까. 그러니까 선종이다, 악종이다 하는 인연을 자꾸 만든다면 아니 되죠, 그거는. 그래서 과거는 내 몸뚱이에 다 주둔해 있기 때문에,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다 이러는 겁니다. 내 몸뚱이 속에 다 주둔해 있기 때문에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성에 대해서도 내 몸뚱이 속에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뚱이가 지수화풍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라는 재료가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있으니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기저기 가서 빌지 말고 내 내면세계 그 깊은 마음속의 해결력을 믿어 보세요. 아픈 것도 내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 거기다가 맡겨 놓고 산다면 자기 내면이 그대로 의사가 됩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찰나에 관세음보살이 됐다가 칠성이 됐다가, 지장이 됐다가 지신이 됐다가 용신이 됐다가, 이렇게 한생각에 마음이 찰나찰나 화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바로 네 마음 한생각에 물리가 터지고 모든 것을 항복을 받아서 모두 내줘도 줄지 않고 들여놔도 두드러지지 않는 이런 세계를 파악한다면 삼천대천세계가 한 주먹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자유스럽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해서 내 몸속의 중생들을 제도해서 천백억화신으로 만드시고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 데 목적을 두십시오. 우주와도 직결이 돼 있고 세상과도 가설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은 즉시 무에서 유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99%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마음입니다. 돈이 드니 마음을 그렇게 못 씁니까, 피곤하니 마음을 그렇게 못 씁니까?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참선이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바로 자기 자리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바로 그것이 좌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하면 좌선이요 마음이 복잡하면 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관상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4시)
▶ 지선법사 직강◀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050-5844-0108(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韓·中 秘方針法

● **음양원리 침법 :** 우리 인체의 365혈을 단 7혈만 응용하는데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프던지 침 1-3개만 꽂으면 1분 이내로 효과를 볼 수 있고 간단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5시간만 강습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신비한 가정 의학이다.
● **사상체질 침법 :** 사상체질을 정확히 감정하는 법과 체질에 맞는 음식 궁합과 한약재를 처방하고 간단한 체질공식 침법으로 만병을 고친다.
● **평형 침법 :** 중국 인민 장교들에게만 비밀리에 전수 되어온 1침법으로 사병들을 치료하였던 것을 왕문원교수에 의해 세상에 밝혀진 침법.
● **전통활락법 :** 220V 전기를 직접 사람이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바로 최고의 기공력을 쓸 수 있다. 사기를 받지 않고 손기가 없다. 전립선염이 낮고 성능력이 회복된다. 마비된 신경이 살아난다. 독소가 배출되고 정상체중으로 회복된다. 디스크 수술 2번에도 사라지지 않던 통증이 사라진다.

황제내경 맥진법과 복진법으로 인체에 모든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불어 사암도인 침법을 1시간의 강의로 원리를 통달 할 수 있게 강의하여 드림)

■ 강의시간 : 8월 1일 오후 3시부터 4일까지(4일간)
주 말 반 : 8월 6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7일, 13, 14, 15일까지
■ 숙식제공 4일간 실무교육 : 보시금 1백50만원
(예약전화 외 사절 / 선착순 10명, 예약 선입금)
농협 457109-52-098389 홍점순
■ 찾아 오시는 길 : 공주시에서 청양가는길 13km 오셔서 공수원 4거리 하차(신풍면 쪽) 900m 좌측, 대나무 있는 곳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686번지 천제 불국사 의성 합장

041)855-7114, 016-663-2159

통증·근육통 완화

"관절 · 허리통증 · 어깨결림 각종통증"

적외선조사기(통증 완화) 탄생

1.먹고 2.바르고 3.찜질하고
123시스템으로 통증에서 해방



적외선조사기
통증, 근육통완화

1·2·3시스템으로 해결하세요



공동개발
(주)일신코리아
(주)고려생약

대리점모집 문의전화
080-521-6666

상쾌한 몸으로 상큼한 여름을

여름철 몸냄새 없애기

'액취증' 때문에 실연당한 권대영씨(30). 이제 권씨는 사람만나기가 두렵다. 몸 냄새는 정작 본인은 못 느끼지만 다른 사람에겐 '고문'일 수도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몸 냄새(암내, 발 냄새 등)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계절, 여름이 찾아 왔다. 바로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고약한 몸 냄새를 더 짙게 만들어 주위 사람들의 눈총을 사기 때문. 몸 냄새는 땀과 피부의 노폐물, 각종 바이러스 세균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난다. 몸 냄새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내분비계 질환인 만큼 정확한 진단과 시술은 필수'라고 조언한다. 불쾌한 각종 몸 냄새의 원인 및 퇴치법을 알아보자.



그림 · 박구원

땀 · 피부 노폐물 등 원인 진단후 시술 필요

건조 유지…생선 콩류 삼가야

액취증 일명 '암내'로 통하는 액취증은 땀샘의 지방산과 유기물 성분의 과다분비로 땀샘 주위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결합되면서 고약한 냄새를 유발한다.

액취증은 내분비계 질환으로 타인은 그 냄새를 감지할 수 있지만 본인은 자신의 몸 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이 특징. 가벼운 겨드랑이 냄새는 샤워를 자주 하면 없어진다.

살균제가 들어 있는 비누로 겨드랑이를 자주 씻고 파우더를 발라 건조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겨드랑이 털을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 털은 땀을 더 나게 할뿐더러 세균의 온상이 되므로 털을 뽑는 것이 냄새 제거에 좋다. 달걀이나 생선, 콩류 등 콜린(choline) 성분이 많은 음식은 몸 냄새를 강하게 하는 만큼 섭취를 자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야채와 과일 위주로 식단을 바꾸는 것도 좋다.

또 스트레스는 땀의 분비량을 늘리므로 운동이나 명상을 통해 바로바로 해소해주자. 냄새를 제거해주는 향수나 데오도란트 등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우리피부과 김철원 원장은 "냄새가 심할 경우 마취 후 3㎜크기로 겨드랑이를 절개한 뒤 금속관을 삽입해 아포크 땀샘을 제거하는 '리포셋 흡입술'을 받는 근본적인 치료가 효과적이다"고 조언한다. 한편 겨드랑이나 신발에 향수를 뿌리는 것은 금물. 여기에 향수를 뿌리면 향수와 땀 냄새가 섞여 이상야릇한 향이 날 수 있다. 향수는 휘발성분이여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하반신 발목 부위에 뿌리는 것이 좋다.

허브향이 진한 한약재 '곽향'과 쌀뜨물을 반반 섞어 지속적으로 겨드랑이 발라도 치료효과가 있다.

혀안까지 양치, '박하' 특효

입냄새 원인은 입안문제인 충치와 혀 그리고 장기 내 문제 때문에 나타난다. 액취증과 마찬가지로 입 냄새 또한 자각하기가 쉽지 않다. 자가 진단법으로 컵을 입에 바짝 대고 숨을 내쉰 뒤 냄새를 맡아 봄으로써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입 냄새 예방의 기본은 양치질이다. 혀 안쪽 부위는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좋은 장소이므로 혀를 골고루 닦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입안이 건조해도 세균이 증식돼 구취가 나게 된다. 섬유질이 많은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하는 것도 치아의 플라크나 설태를 닦아내고 혀의 타액선을 자극, 침의 분비를 촉진시켜 구취를 없애준다. 또 한방에서는 휘산작용이 강한 '박하'를 달여 냉장보관하고 계속적으로 가글만 해도 입냄새와 충치에 특효가 있다고 한다. 죽염으로 양치를 한 후 대나무잎과 복숭아나무 속껍질을 달인 물로 입을 헹궈도 풍치와 입냄새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설익은 복숭아를 따서 속씨를 찧어 거즈에 발라 하루에 한 번씩 혀에 낀 백태를 제거하는 것도 입냄새를 막는 방법이다.

한편 양치 후 1시간이 지나서 입 냄새가 심하게 날 경우 위장 · 신장 · 간장 질환이나 당뇨일 수 있으므로 정밀진단을 받아봐야 한다. 일명 '단내'라고 불리는 입 냄새와 아세톤 냄새가 장기간 난다면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한다. 또 신장이나 폐기능이 저하돼도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있다.

신발 습기 제거, 식초물 효과

발냄새 발에 땀이 나면서 각질층이 세균과 결합, 부패돼 냄새를 유발한다. 신발에 습기가 차서 악취가 날 수도 있다. 땀이 잘 흡수되는 면양말을 신고, 파우더 성분이 함유된 발 전용 로션을 발라주는 것도 좋다. 스킹크만큼이나 발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면 양말이나 스타킹 위에 뿌리는 휴대용 발 냄새 제거제를 상비할 것. 이것은 나쁜 냄새를 제거할 뿐 아니라 발과 다리의 피로를 푸는 데도 효과적이다.

또 신발에 숯이나 녹차 잎, 신문지를 넣어 두는 것도 발 냄새를 줄일 수 있는 생활의 지혜다.

발을 씻을 때 마지막 헹구는 물에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려 씻어도 냄새가 제거된다. 꽉 막힌 신발은 피하고 여성의 경우 여름철에는 스타킹을 신지 않는 것이 통풍에 도움이 돼 냄새를 줄여준다. 강력한 살균력이 있는 생강은 한방에서도 좋지 못한 맛을 고쳐주는 물질로 쓰여 왔다. 생강우린 물에 발을 씻어내면 살균은 물론 냄새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다. 또 레몬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구연산이 들어 있어 피로 회복이나 신체에 활력을 주고 발 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도 계속 냄새가 날 땐 발에 땀 분비 억제제를 바르거나 항 콜린성 약물을 먹는다.

아주 심할 경우엔 땀 분비에 관여하는 교감신경의 일부를 차단하는 '보톡스 주사'도 고려해 볼만하다. 효과가 6개월~1년 정도만 지속돼 다시 맞아야 하는 것이 흠이지만 효과가 확실하고 간단한 장점이 있다.

황기물 사용하면 두피 보호

머리냄새 아침에 머리를 감았는데도 저녁이면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두피의 피지가 공기 중에 산화되면서 나는 냄새다. 머리에 기름이 잘 끼는 사람, 탈모가 진행 중인 사람, 성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청소년일수록 냄새가 나기 쉽다. 최소 하루 한 번은 머리를 감고 두피 타입(건성 · 지성 · 민감성)에 맞는 샴푸를 사용한다. 오래된 향수는 머리를 감거나 세탁물을 헹굴 때 마지막 헹굼 물에 몇 방울 떨어뜨려 사용해도 좋은 냄새를 기대할 수 있다.

민간요법인 창포와 구기자 달인 물로 머리를 헹구면 냄새제거는 물론 윤기 나는 머릿결까지 얻을 수 있다. 특히 황기와 차조기잎을 섞어 끓인 물로 머리를 감으면 모발과 두피건강 그리고 냄새까지 없애줘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노병철 기자

도움말=우리피부과 김철원 원장, 김강한의원 김강 원장, LG생활건강 이성준 R&D팀장, 민치과 민종석 원장

김재일 교수의 티베트의학 산책 (24)



에너지 균형 깨지면 몸에 이상

티베트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세 기본에너지는 적정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양한 병증들이 나타나게 된다. 먼저 룽의 경우, 너무 넘치면 체중감소 변비 방기(放氣:헛배부르기) 불면증 어지럼증 권태감들이 나타나고 안색이 검어지고 항상 추워하며 시력이 약해진다. 반면에 룽이 부족하면 건망증 피로감 은둔(금단) 무지근한 전신통(全身痛)들이 생기게 된다. 룽이 균형을 잃으면 공(空)허한 부맥(浮脈)의 맥상이며 오줌은 색깔이 밝고 맑으며 거품이 크다. 한숨이 멎질 않고 안절부절 마음을 다잡지 못하며 신체적 균형을 잃게 되고 통증이 온몸을 휘젓고 다니며 사지의 경직과 수축이 온다. 귀울림증 안구통증 피부과민증이 생기며 혀가 밭고 맛이 떫으며 몸을 떨고 미열이 계속되며 조금만 움직여도 뼈마디에 통증이 온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하품만 쏟아지고 기지개를 켜고 싶은 맘뿐이며 짜증나고 등과 엉덩이 뼈마디에 통증이 오며 헛구역질을 하고 새벽과 해질녘에 입에서 거품 같은 가래가 나오게 된다. 관자놀이 첫째 다섯째 여섯째 추골과 흉골 같은 룽혈점을 압박하면 매우 민감하여 고통스러워하는데 특히 새벽과 초저녁에 더 괴로워한다.

룽 티빠 베겐 과하면 변비 · 설사 · 소화불량 등
일곱가지 체성분 부족시 피부 건조 체중 감소

티빠가 넘치면 피부 공막(눈의 흰자위막) 그리고 대소변의 색깔이 누렇게 변하고 허기와 갈증이 심해지며 고열과 설사가 있고 잠이 매우 적어진다. 티빠가 부족하면 체온이 떨어져 수족이 차가워지며 안색이 거무스름하게 변한다. 티빠의 균형이 깨지면 가늘고 꼬이듯 당기며 빠른 맥상을 보인다.

오줌은 색깔이 황적색 산호빛이며 냄새가 독하고 거품이 금방 사라지는 특징을 보인다. 두통 고혈압 시큼하고 쓴맛의 연황색 설태 밤낮이 뒤바뀐 수면장애가 생기고 눈의 흰자위가 누르스름하게 되며 간과 담낭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오고 가래의 맛이 짜고 시큼하게 변하다. 설사 발한이 있고 땀 냄새가 아주 지독하고 피부가 누렇게 되며 낮 시간과 한밤중 그리고 음식물이 소화 중에 있을 때 특히 증상이 더하다.

베겐이 과하면 소화불량 무너질 듯한 온몸의 나른함 점액과 타액의 과다분비 안면창백 팔다리 맥풀림 호흡곤란 쏟아지는 잠 나태와 감정둔마 등의 증상이 온다.

반면 베겐이 부족하면 흡수가 잘 안되어 기력이 없고 어지럼증 심계항진(두근거림)이 오고 관절이 늘어지게 된다. 베겐의 균형에 문제가 생기면 느리고 약한 맥상을 나타내고 오줌은 색깔이 희끄무레하고 냄새와 김이 나지 않는다. 맛감각이 없어지고 혀 잇몸 (눈)흰자위가 창백해지며 얼굴이 붓고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며 몸이 축 늘어지고 식욕을 잃으며 소화흡수가 잘 안되게 된다. 목에 항상 가래가 끓고 신장(콩팥)과 등에 통증이 있으며 수분잔류 기억상실 과체중 감정둔마 식후불쾌감이 생긴다. 동틀 무렵과 해질녘 그리고 습할 때 특히 증상이 심하다.

인체의 일곱 가지 구성성분도 각각의 성분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여러 병증을 수반한다. 필수영양소는 너무 많을 때 대사 속도가 떨어져 음식물의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부족할 때는 체중이 줄고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며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해지며 귀에서 고동치는 소리가 나고 온몸에 동통을 느끼게 된다. 혈액은 과하면 피부질환 종양 황달 잇몸질환 고혈압 안구충혈 나병 비장질환 등이 올 수 있다. 반면 부족하면 피로감 피부건조 그리고 항상 오슬오슬 추위를 타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근조직이 지나칠 때는 갑상선종 체중증가 분비선(腺)질환 등이 생기고, 적을 때는 뼈마디가 으스러질 것 같은 온몸의 지독한 동통이 수반될 수 있고 피골이 상접한 뼈대만 앙상하게 남게 될 수 있다. 지방은 너무 많으면 심신이 나른하고 젖가슴과 위가 커지며, 부족하면 잠이 없어지고 체중이 줄며 피부가 창백해진다. 뼈가 넘치면 뼈대가 굵어지고 치아가 자라며, 부족하면 머리카락 손발톱 이가 빠지게 된다. 골수가 너무 많을 때는 시력이 약해지고 뼈마디가 통통해지며 온몸의 감수성이 예민해진다. 골수가 부족할 경우는 뼈가 부서지기 쉬게 되고 현기증이 나며 눈에 백내장이 올 수 있다.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해암사
● 주 지 : 한화담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0-11

● 사찰명 : 고불정사
● 주 지 : 석정관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관교동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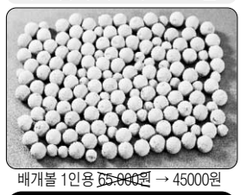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에서 탈종을 공고함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법하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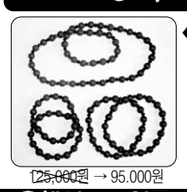
배개볼 1인용 ~~55,000원~~ → 45000원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잇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등 이외의 죽어가는 것도 다 살릴 수 있어요.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신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어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손발이 자주 붓는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125,000원 → 95.000원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이 붓거나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氣를 골고루 전달, 심장박동원활, 신진대사촉진, 신경 및 피가 맑아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아요.

은행석 108염주, 손목압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산범음집

한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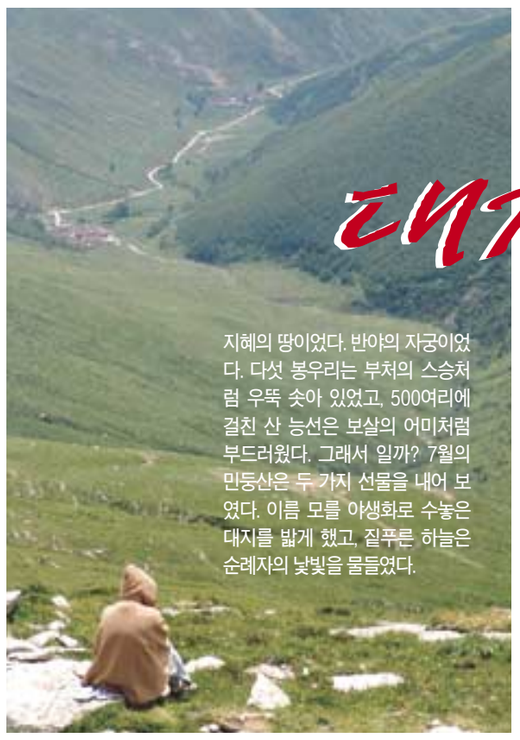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 (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상용천도집 증정)

영산범음집 한문본. 상용천도집. 범음범패집 카세트와 비디오를 가지고 계신 스님들과 불자님들은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농 협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판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뭇 생명 감싸안은 대지의 보살

문수신앙의 성지 중국 오대산

지혜의 땅이었다. 반야의 자궁이었다. 다섯 봉우리는 부처의 스승처럼 우뚝 솟아 있었고, 500여리에 걸친 산 능선은 보살의 어미처럼 부드러웠다. 그래서 일까? 7월의 민둥산은 두 가지 선물을 내어 보였다. 이름 모를 야생화로 수놓은 대지를 밟게 했고, 짙푸른 하늘은 순례자의 낯빛을 물들였다.



대라정 정상에서 바라본 우타이산의 사찰들.

자장 율사 혜초 스님 주석했던 곳
당대 360여 사찰 108개 남아
3보1배 오체투지 구도열기 가득

우타이산(五台山)! 문수신앙의 고향이다. 관음성지 저지앙(浙江)성 보타산, 미타성지 쓰촨(四川)성 아미산, 지장성지 안후이(安徽)성 구화산 등과 함께 중국불교 4대 명산 중 하나다.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은 우타이산을 예로부터 '금오대(金五臺)'라 부르면서 나머지 산들을 '은보타(銀普陀), 동아미(銅峨眉), 철구화(鐵九華)'라 일컬으며 첫손에 꼽았다. 한국불교와의 인연도 지중한 곳이다. 평창 월정사를 창건한 자장 율사가 이곳에서 수행을 했고, <왕오천축국전>을 남긴 신라의 혜초 스님은 여기서 마지막 생을 보냈다.

역시 거산의 면모는 남달랐다. 샨시(山西)성 성도(省都) 타이위안(太原)시 북쪽 약 200km지점 중심에 위치한 우타이산은 평균 해발 2,400m를 훌쩍 넘는 다섯 봉우리가 꼿꼿이 서 있었다. 엽두봉의 뻬이타이(北台)가 해발 3056m로 가장 으뜸이 되고, 금수봉의 쫑타이(中台)가 2936m, 망해봉 똥타이(東台) 2880m, 게월봉 시타이(西台) 2860m, 취암봉의 난타이(南臺)가 2757m로 가장 낮다. 한국의 백두산보다 높은 봉우리들은 높다고 해서 거만하지 않았다. 평원 같이 완만한 곡선을 그려 보이며 뭇 계곡과 생명들을 품고 있었다.

우타이샨에 불문(佛門)이 열린 지는 후한 명제 영평연간(58~75년). 한나라 명제가 사신을 천축에 파견해 불경을 구해오게 한 후부터 우타이샨에 사찰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당나라 때는 사원이 360여개에 달하며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이후 문화혁명의 시련기를 거치면서 현재는 108개의 절이 남아있다.

우타이샨 순례 첫날은 사하촌 격인 타이후아이쩐(臺懷鎭)에서 시작됐다. 중국정부가 4년전부터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한 이곳은 수십 개 사찰이 연립주택처럼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우타이샨의 중심 사원인 시안통(懸通)사를 비롯해 타위안(塔院)사, 슈시앙(殊像)사 등이 밀집해있다. 특히 라마교 색채가 짙은 타위안사의 따바이(大白)탑은 타이후아이쩐 순례의 백미였다. 원나라 대덕 5년(1301년) 때 세워진 이 탑은 높이만 56.3m나 돼 우타이샨의 중심이 됐다.

발길을 시안통사로 옮겼다. 우타이샨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서 동한 영평 10년(68)에 세운 시안통사는 4만 3,700㎡ 규모에 관음전, 문수전, 대웅보전, 나한당, 선방 등 전각이 400여 개가 들어서 있다. 이에 우타이샨에서 가장 큰 문수보살상이 모셔진 슈시앙사로 이동했다. 문수보살이 1만 명의 제자를 데리고 슈시앙사 뒷산 토굴에서 수행했다는 이야기가 내려온 이곳은 1500년 전에 창건됐다가 소실된 것을 600년 전에 복원한 사찰로, 대문수전에는 12m의 문수보살이 조성돼 있다.

순례 이틀 째, 타이후아이쩐을 벗어나 쫑타이와 똥타이로 향했다. 10인승 승합차로 1시간 가량 산을 타고 올라갔다. 산능선은 야생화가 지천이었다. 까마득히 먼 계곡 곳곳에는 사원들이 즐지어 서있고, 시원스럽게 펼쳐진 초원에는 말과 양떼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그렇게 올라간 쫑타이. 자장율사가 삼칠일 기도 끝에 문수보살을 친견했다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에게 가사와 발우, 부처님 진신사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머리에 스쳤다. 쫑타이 오르자 순례객을 제일 먼저 맞은 것은 문수사리탑이었다. 순간, <화엄경> '보살주처품'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문수보살이 1만의 보살 대중을 거느리고 살면서 법을 설했다"는 말. 문수보살의 자취를 어렴풋이 문수사리탑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문수보살의 체취 찾기는 자연스럽게 쫑타이와 뻬이타이 중간에 있는 자오위치(澡浴池)사로 옮겨졌다. 흔히 문수보살이 목욕을 했다고 해 '태화지'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한국불교와 인연이 깊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자오위치사는 자장 율사가 기도 후, 문수보살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본성을 깨달아보니 / 자성이 있다는 것은 없다 / 이 같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성을 이해하면 곧 비로자나부처를 보리라"란 4구게를 받고 돌아온 곳이다.

자오위치사를 뒤로 하고, 똥타이에 올랐다. 꼬불꼬불 난 산길을 30분 정도 오르니, 왕하이(望海)사의 향로가 눈에 들어왔다. 연신 피워 오르는 향, 순례객들의 발이 끊이질 않았다.

출가한 지 4년이 된 창쥬(昌住) 스님은 "왕하이사는 문화혁명 때 대부분 소실됐는데, 문수보살상 만큼은 당시 어느 노보살이 땅에 묻어놓는 바람에 훼손을 피할 수 있었다"며 "그 보살님이 문수보살이 아니겠느냐"고 웃음을 지었다.

1시간가량 똥타이를 참배하고 돌아 나오는 계단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우타이샨 초입에서 똥타이까지 꼬박 3일 걸려 3보1일하며 순례하는 재가자였다. 내리쬐는 햇빛, 뜨거운 복사열, 땅바닥에 얼굴을 대보았다. 후끈 달아오른 열기에 숨이 꽉 막혔다. 그런데 왜? 그 같은 고행을 하는 걸까? 곧장 물었다. 잠시 후, 짧은 말 한마디가 돌아왔다. "즈시환(只希歡)!" "그냥 좋아서"였다. 사실 타위안사에서도 생동하는 중국불교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체투지를 쉴 새없이 하는 스님들의 구도열기가 바로 그것이었다. **후원: 한진관광**

글 · 사진/중국 오타이샨=김철우 기자



쫑타이(中台)의 자오위치(澡浴池)사.



우타이샨의 최대 사찰 시안(懸通)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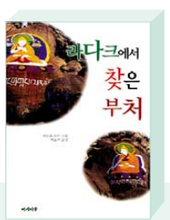


슈시앙(殊像)사에 조성된 우타이샨 최대 문수보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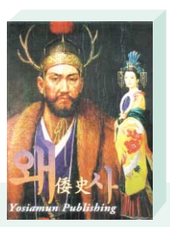
최고 30% 파격적인 할인에 무료배송까지!!
여름휴가를 여시아문 도서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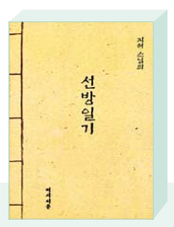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여시아문에서 발행된 도서를 파격적인 할인과 함께 무료배송서비스 혜택(30,000원 이상 구매시)까지 드리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올 여름휴가는 여시아문도서와 함께 불서 탐독의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사이트 www.yosiamun.com을 참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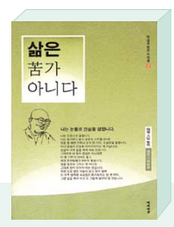
행사기간 : 2005년 7월 20일 - 8월 20일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
정가 12,000원
특별가 9,600원(20%)


정말 봄은 오는가
정가 9,000원
특별가 7,200원(20%)


왜 사
정가 25,000원
특별가 17,500원(30%)


선방일기
정가 5,000원
특별가 4,250원(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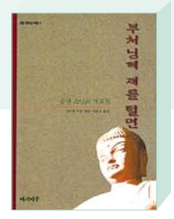

삶은 고가 아니다
정가 9,000원
특별가 7,200원(20%)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강좌
정가 6,500원
특별가 5,200원(20%)


스님이야기
정가 12,000원
특별가 9,600원(20%)


원각경
정가 9,500원
특별가 7,600원(20%)


스님 요즈음 뭘 하십니까
정가 9,000원
특별가 7,200원(20%)


부처님께 재를 털면
정가 9,000원
특별가 7,200원(20%)

여시아문 http://www.yosiamun.com
yosiamun@buddhapia.com
전화주문 : 02_737_0696 팩스주문 : 02_2004_8220